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우해봉·최인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5-15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72-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15>

발|간|사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미시적 수준의 개인 행동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발전을 추구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급격한 양상을 보였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도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거시적 수준의 사회 구조와 미시적 수준의 개인 행동에서 나타난 변화의 영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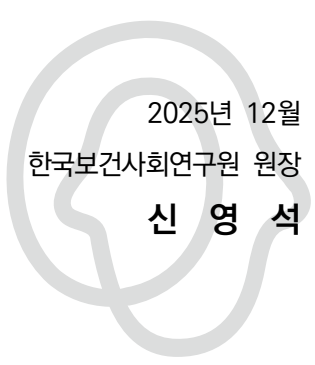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단위인 가구 또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대략 1/3에 달한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대 후반에 이미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와 더불어 총인구도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집합체인 가구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에 초점을 맞춰 인구변동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구 구조가 가족의 기능적 혹은 관계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구 변동에 관한 분석은 전체 사회변동의 일환으로 가족에서 나타난 변화, 특히 가족의 동거 형태에서 나타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1인 가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거주 형태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혹은 정서적 지원의 필요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구 수와 평균 가구 규모는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가구 구조의 현황과 변화 양상은 불평등



(소득분배)이나 노후소득보장(빈곤,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구 구조의 변화는 에너지 사용이나 기후변화 같은 환경 관련 문제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가구변동의 함의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인구학적 연구에서 ‘개인’(인구)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접근을 보완하여 ‘가구’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1인 가구, 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청년 가구주 가구 등 ‘특정’ 유형의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다양한 가구 유형을 모두 아우른 ‘전체 가구’의 변화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인구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및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가구변동을 초래한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우해봉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최인선 전문연구원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국가데이터처(인구총조사과)의 김서영 과장님과 본원의 최선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3
제2장 가구와 가구변동: 개념과 분석 틀	15
제1절 개념 정의와 측정	17
제2절 가구변동의 분석 틀	23
제3장 국제 가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41
제1절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 개관	43
제2절 국제 가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48
제3절 종합 및 소결	93
제4장 한국의 가구변동 양상과 인구학적 기초 분석	95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97
제2절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 분석	112
제3절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 분석	156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73
제1절 가구변동 분석 결과의 종합	175
제2절 국내외의 가구변동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17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8
참고문헌	191
Abstract	20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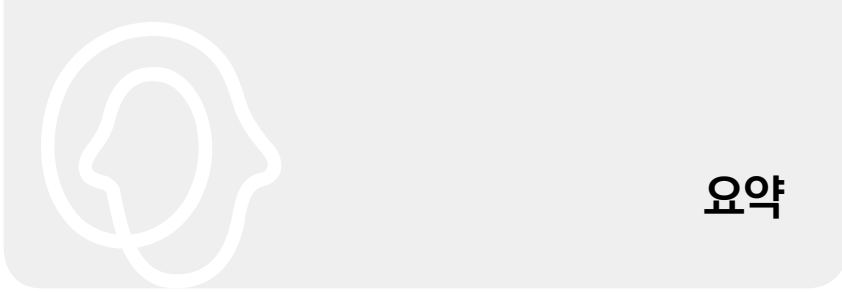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표 3-1〉 대륙(지역)별 및 OECD 회원국의 평균 가구 규모 및 가구원 규모별 가구 분포	55
〈표 4-1〉 센서스의 가구 구분: 1960~2020년	100
〈표 4-2〉 센서스의 가구주와의 관계 주요 구분 사항: 1960~2020년	103
〈표 4-3〉 인구 및 전체/유형별 가구 규모: 1980~2023년	111
〈표 4-4〉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교육 수준별 가구 유형 분포(2020년)	132
〈표 4-5〉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인구 규모의 변화: 1980~2020년	162
〈표 4-6〉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1980~2020년	164
〈표 4-7〉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가구주율 및 가구주율의 변화: 1980~2020년	166
〈표 4-8〉 가구 수 변화의 요인 분해: 1980~2020년	170
〈표 4-9〉 가구변동의 요인별 분해 종합: 1980~2020년	172

그림 목차

[그림 2-1] 가구변동의 분석 틀: 제약 조건과 영향 요인	27
[그림 3-1] 평균 가구 규모의 전 세계적 패턴	49
[그림 3-2] 평균 가구 규모의 지역별 패턴	52
[그림 3-3] 가구원 규모별 가구 분포	58
[그림 3-4] 세계 및 대륙별 평균 가구 규모의 추이	64
[그림 3-5] 가구원 규모의 변동 수준과 주요 국가(지역) 평균 가구 규모의 추세	65
[그림 3-6] 여성 가구주 구성비의 지역별 패턴	67
[그림 3-7] 가구주 연령 분포의 지역별 패턴	70
[그림 3-8]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가구원 동거 가구의 지역별 패턴	73
[그림 3-9] 20세 미만(좌) 및 65세 이상(우) 거주 가구의 추세 및 변화 수준	75
[그림 3-10] 가구당 연령대별 평균 가구 규모의 지역별 패턴	77
[그림 3-11] 가구당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의 추세	79
[그림 3-12] 대륙별 가구당 20대 미만 평균 가구원 수의 추세	81
[그림 3-13] 기본 가구 유형의 지역별 패턴	85
[그림 3-14] 기본 가구 유형의 추세: 전체	88
[그림 3-15] 기본 가구 유형의 추세: 유럽 및 북미 지역	89
[그림 3-16] 세대 유형별 가구의 지역별 패턴	92
[그림 4-1] 가구 유형의 분류 도식	108
[그림 4-2] 가구 규모의 변화: 1980~2020년	112
[그림 4-3] 가구 규모별 인구 분포의 변화: 1980~2020년	114
[그림 4-4] 가구의 연령 및 연령 격차: 1980~2020년	115
[그림 4-5] 관계별 평균 규모 추이: 1980~2020년	117
[그림 4-6] 가구 유형별 인구 분포: 1980년 → 2020년	119
[그림 4-7] 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1): 1980년 → 2020년	121
[그림 4-8] 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2): 1980년 → 2020년	123
[그림 4-9] 성별 및 연령별 가구 유형의 분포: 1980년 → 2020년	128
[그림 4-10] 권역별 가구 유형의 변화 양상: 1980~2020년	134



[그림 4-11] 권역별-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 2020년	136
[그림 4-12] 부부 단독 가구의 현황과 인구학적 특성: 1980~2020년	137
[그림 4-13] 부부 자녀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139
[그림 4-14] 한부모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142
[그림 4-15] 확대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144
[그림 4-16] 확대 가구의 세대별 분포: 1980~2020년	145
[그림 4-17] 친족/비친족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147
[그림 4-18]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149
[그림 4-19] 1인 가구의 혼인 상태 구성: 1980~2020년	150
[그림 4-20] 비친족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151
[그림 4-21] 비친족 가구의 가구 규모별 분포: 1980~2020년	153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1인 가구, 노인 가구(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청년 가구주 가구 등 특정 유형의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및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가구변동을 초래한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2. 주요 연구 결과

첫째, 이 연구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료상의 한계와 국가 및 지역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에 기초한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 및 이로 인한 평균 가구 규모의 축소 현상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진행이 확대 가구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비록 평균 가구 규모와 비교할 때 가구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수렴 패턴이 관측되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북미 등 인구변천을 선도한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확대 가구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2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유럽이나 북미처럼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사한 가구변동 양상이 관측된다는 점은 가구 규모의 축소와 구조의 단순화처럼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가구변동의 전조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구변동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구의 규모와 유형 및 구성에서 관측되는 국가(지역) 간 이질성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을 아울러 나타나는 출산율과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기대수명의 상승 같은 인구변동이 향후 가구변동이 전개될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할 수 있지만, 가구변동의 세부적인 양상은 개별 국가(지역)가 발전해 온 다양한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통계청의 센서스 2% 표본 자료에 기초하여 1980~2020년에 걸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변동 과정은 전체 인구 가운데 확대 가구나 비친족 가구원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에 속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부부 단독이나 자녀 혹은 동거 가구원이 없는 소규모의 단순화된 가구구조가 주류로 등장하는 가구의 파편화-원자화 과정에 있음을 보여 준다. 가구변동에서 관측되는 가구의 파편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 가구의 원자화 과정은 인구학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은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구처럼 가구의 생애주기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학적 기초가 된다. 한편, 최근 들어 혼인력에서의 변화가 가구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성, 연령, 혼인 상태로 정의된 인구학적 변화(인구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구성비 변화)와 가구 선택 성향(가구주율)에서의 변화로 구분

하여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가구변동(가구 수 변화)을 분석하였다. 1980~2020년에 걸친 가구 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인과 가구 선택 성향 요인으로 분해한 분석 결과는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변동에서 두 요인 모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 주지만,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더 컸음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에서는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특히 유배우 남성)의 고령층 진입이 가구 수 증가를 견인했으며, 동거하는 대신에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가구주율)의 증가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여성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가구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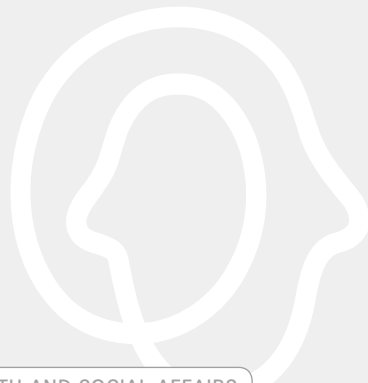
현재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가구변동은 유럽 등 가구변동의 선도국이 보여 준 추세를 따라가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인구변동의 양상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훨씬 가파른 모습을 보인다. 초저출산과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으로 향후 한국 사회가 경험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는 선진국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가구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출현시킬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동과 독립적 거주 성향의 증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1~2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향후 한국 사회가 경험할 가구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단순히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대신에, 제도적 조건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인구변동, 가구변동, 가구 구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미시적 수준의 개인 행동과 가치관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발전을 추구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급격한 양상을 보였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도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거시적 수준의 사회 구조와 미시적 수준의 개인 행동 및 가치관에서 나타난 변화의 영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단위인 가구 또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45%에 달한다(통계청, 2025b).¹⁾ 이러한 점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가구의 규모와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사회변동과 그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가늠해 보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에 이미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더불어 총인구도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

1) 2025년 10월 1일 자료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자료가 부처의 명칭 변경 이전에 발간된(공표된) 자료라는 점에서 통계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지하고 있다.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집합체인 가구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에 초점을 맞춰 인구변동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가구 구조가 가족의 기능적 혹은 관계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구변동에 관한 분석은 전체 사회변동의 일환으로 가족에서 나타난 변화, 특히 가족의 동거 형태(coresidential pattern)에서 나타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Li et al., 2020, p. 1370).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에서 노동 공급과 소비 수요가 결정되기에 가구는 가족 구성원(가구원)의 복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위이다. 이에 따라 가구, 특히 미래의 가구 구조에 대한 전망과 분석은 사회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지적된다(Ott, 2010, p. 163).

가구 구조의 현황과 변화 양상은 인구학자 등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담당자에게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 구조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구변동이 초래하는 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학술적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분석과 비교할 때 ‘가구’에 대한 분석은 조작적 정의와 측정의 명확성으로 인해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수월함이 지적된다(Li et al., 2020, p. 1370). 가족에 관한 경험적(계량적) 연구가 대체로 가구에 기초하여 가족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상황은 가구 구조에 기초한 분석의 장점을 잘 보여 준다. 인구학자 가운데는 특정 유형의 가구를 가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예컨대, Willekens, 2010, p. 87).

한편, 1인 가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거주 형태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혹은 정서적 지원의 필요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가구원의 수나 가구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관계의

유형이나 가구 내의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가족’이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거주 형태(가구 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Jacobsen et al., 2012, p. 2).

가구 수와 평균 가구 규모는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인구가 동일하더라도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이 증가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평균 가구 규모가 변하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평형에 대한 수요도 바뀔 수 있다. 가구 구조의 현황과 변화 양상은 불평등(소득분배)이나 노후소득보장(빈곤,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의 소득은 가구 단위로 통합되어 지출되기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최근의 국내 연구는 가구 구조가 가구 소득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핵심임을 시사한다(김창민 외, 2020).

가구 구조의 변화는 에너지 사용이나 기후변화 같은 환경 관련 문제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우해봉, 임지영, 2024, pp. 129-132). 특히 소규모 가구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부족하기에 대규모 가구에 비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높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Jiang & Hardee, 2011, p. 295). 환경 관련 이슈에서 가구변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에는 실현될 개연성이 높은 일련의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가구의 수, 평균 가구 규모, 가구의 구성을 전망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예컨대, Jiang & O'Neill, 2007). 종합적으로, 가구변동의 함의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인구학적 연구에서 ‘개인’(인구)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접근을 보완하여 ‘가구’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가구변동은 경제-기술-제도 발전,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가족의 근대화(현대화) 양상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같은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Esteve & Reher, 2024, p. 227; Li et al., 2020, pp. 1372-1374). 출산율의 감소, 기대여명의 증가,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의 증가, 혼인과 이혼-재혼 패턴의 변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인구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출산율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를 통해 가구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망률(노년기)의 감소 또한 자녀의 독립과 맞물려 고령의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망률 감소가 노년기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기대수명 및 혼인 연령의 차이로 인해 남성의 사망률 감소는 자녀의 독립 후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혼인 상태(부모/자녀)의 변화도 부모-자녀의 세대 간 동거 여부와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미혼이나 사별/이혼 같은 무배우 상태에 있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동거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혼인의 지연이나 비혼 인구의 증가는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의 강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이혼율의 상승은 1인 가구나 한부모(특히 모-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배우자(파트너)가 없는 가구는 사회에서 가구-가족이 담당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핵가족 이외의 친족-비친족 가구원과 동거하는 등 배우자(파트너)가 있는 가구와 비교할 때 더욱 복잡한 가구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Burch, 1979, p. 178).

가구 구조의 현황과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은 출산, 사망, 이동(국내/국

제) 같은 인구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출산, 사망, 이동(국내/국제) 같은 인구학적 과정이 온전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조건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속한 가구의 상황에 따라 인구학적 과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파트너)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임신-출산이나 건강-사망의 패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출산, 사망, 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과정의 결과로 가구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컨대, 고령의 부부 단독 가구에서 배우자의 사망은 1인 가구,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시설 입소 등 거주 형태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구가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가구변동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인구학적 논의는 현재까지 확고한 경험적 및 이론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황이다.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이나 분석 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예컨대, De Vos & Palloni, 1989), 현재까지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종합하고 이론화하는 한편 가구변동을 현실성 있게 모형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Burch, 1995).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을 둘러싼 복잡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요인들의 세부적인 작동 기제와 상호적 관계를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및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가구변동을 초래한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1인 가구, 노인 가구(노인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 청년 가구주 가구 등 ‘특정’ 유형의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다양한 가구 유형을 모두 아우른

‘전체 가구’의 변화 추세와 양상 및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인구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반적인’ 가구변동을 분석할 때도 가구의 규모나 세대 유형 등 소수의 제한된 정보만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가구 유형을 모두 아우른 전반적인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최근까지 본 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또한 대체로 (중)고령 및 청년 1인 가구(김세진 외, 2023; 이원진 외, 2021) 등 특정 가구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거나, 미래의 가구 전망(추계)에 관한 연구들(김유경, 조대희, 1994; 송창길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이 주를 이룬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 가구변동은 독립적인 주제로 검토되는 대신에 대체로 ‘가족’ 연구의 일부로 통합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예컨대, 김유경 외, 2013; 김정석, 2002; 송유진, 2024). 가구변동을 다루는 인구학 분과(가구-가족 인구학; household and family demography)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전통적으로 해외에서도 ‘가구’에 대한 분석은 인구학의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가족’과 연계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가족과 가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가구와 가족은 구분되는 개념이다(United Nations[UN], 2017, p. 193). 분석적으로 이 연구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 즉 가구에 속한 개인의 수와 특성 및 상호적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출현시킨 ‘가족’에 관한 연구와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²⁾ 다만, 가구변동의 원인과 파급 효과에 관한 논의에서는 가족 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핵가족 등 가구를 형성하기 위한 인구학적 단위(개인/집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가구를 형성하기 위한 인구학적 단위가 만들어진 후 거주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가족과 가구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가구-가족 논의가 혼재되면 가구변동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컨대, 가구-가족이 혼재된 연구에서는 두 개념이 동시적으로 논의되기에 가구 수(증가율) 및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세대별(예,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가구) 분포, 평균 가구원 수 같은 기초 분석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가구와 가구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화 추세와 세부적인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 연구가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자료의 문제는 가구와 가구변동 분석에서 근본적인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가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표본 자료 정도밖에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자료가 제공하는 가구에 관한 정보는 범위와 깊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내 인구학계에서 가구변동에 관한 논의가 매우 제한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센서스 표본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가구 및 가구변동의 분석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분석 틀을 소개한다. 본 연구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가구 및 가구변동에 관한 논의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가구변동에 관한 분석 틀을 소개하지만, 분석 틀에서 논의하는 모든 요인을 아우른 종합적인 접근을 지향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가구변동의 분석 틀에 대한 논의는 전반적인 가구변동의 맥락 속에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UN, 2022a)를 활용하여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다양한 국가(지역)를 가로질러 나타나는 가구변동의 복잡한 양상과 자료상의 제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은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구변동을 이해하는 한편, 앞으로 전개될 가구변동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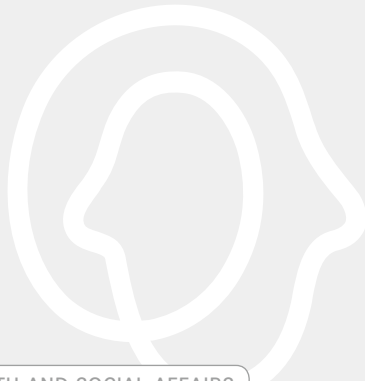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제4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1980~2020년 기간에 걸쳐 나타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를 살펴본다. 통계청의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과 가구 선택 성향(가구주율) 요인으로 구분하여 지난 40년에 걸쳐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가구와 가구변동: 개념과 분석 틀

제1절 개념 정의와 측정

제2절 가구변동의 분석 틀

제2장 가구와 가구변동: 개념과 분석 틀

제1절 개념 정의와 측정

전통적으로 가족에 관한 연구가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들 분야와 비교하여 가구-가족에 관한 인구학적 관심은 일반적으로 개인 단위에서 분석되는 인구학적 현상의 맥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Pilon, 2006, p. 437). 이 절에서는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 및 그 인구학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과 분석 틀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가구(household)의 개념은 교환이나 상호 의무의 관계 대신에 특정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 형태의 하나이다(Stockmayer, 2004, p. 1). ‘가족’의 정의에서 혈족이나 혼인 관계가 핵심 요소인 것과 비교해 ‘가구’의 정의에서는 주거지의 공유가 핵심 요소이다(Keilman, 2006, p. 458).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연구에서 가구에 대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와 밀접히 연관된다. 사실상 인구학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개념은 센서스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구의 개념이 센서스나 사회조사에서 대상의 누락이나 중복 계상(double counting) 없이 개인들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관측 단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Pilon, 2006, p. 436). 이렇듯 가구의 개념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들을 집단화하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가족(family) 연구의 목적과는 거

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구와 가족은 밀접히 연관된다.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가족에 관한 통계는 대체로 가구 단위에서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Pilon, 2006, p. 436). 비록 가족과 가구가 대체(교환) 가능한 용어가 아닌 동시에 '가구' 외부에 존재하면서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 구성원의 규모와 그 중요성이 작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경험적으로 수집되는 가족 통계는 가구 단위에 기초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가족과 가구의 의미는 밀접히 연관된다.³⁾

이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 가족의 범위를 혈연(입양)이나 혼인 관계를 통해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개인으로 국한하기도 한다. 사실 상당수의 인구학적 연구에서 가족은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Burch, 1979, p. 174). 이 경우에는 모든 가족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지만, 일부 가구(예컨대, 1인 가구, 비친족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속하지 않는다(Keilman, 2006, p. 458). 다양한 이론적 혹은 분석적(방법론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접근을 따라 센서스에서 정의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가구를 이해한다.

가구에 대한 센서스상의 정의는 2000년 센서스 라운드에 대한 UN의 권고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UN은 가구(일반 가구)(household or private household)를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와 다인 가구(multi-person household)로 구분한다. 1인 가구는 별도의 거처(housing unit)에서 혼자 살거나, 유숙인(留宿人; lodger)으로서 해당 거처에서 별도의 공간(방)을 점유하되, 다른 거주자와 함께 다인 가구의 일

3)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UN은 가족 핵(family nucleus)을 가구(일반+시설) 내에서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 동거 파트너(동성 포함), 부모와 자녀로 관계된 2명 이상의 집단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UN, 1998a, p. 43). 그러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나 1인 가구 등 실제 가족의 분류에서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Keilman(2006, p. 460)을 참고할 수 있다.

부를 구성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인 가구는 2명 이상이 함께 거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식량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조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UN, 1998a, pp. 41-42).⁴⁾

가구에 대한 UN의 이러한 논의는 가구의 정의에서 ① 소득-자산의 형성 및 재화-용역의 소비 등을 아우른 공동의 가계 관리(housekeeping)와 ②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Keilman, 2006, p. 458; UN, 1993; Willekens, 2010, p. 89). 이러한 가구(일반) 개념을 ‘가계 관리 단위 개념’(housekeeping unit concep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앞의 1인 가구의 정의에서 ‘유숙인’(lodger)은 배타적인 사용 목적으로 거처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세입자로, 임대 가구와 함께 식사하고 시설을 공유하는 하숙인(下宿人; boarder)과는 구분된다(UN, 1998a, p. 42).⁵⁾

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는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한다(인구주택총조사 규칙, 202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서 사

4) 참고로, UN은 개인을 식별하는 체계로 가구(household)와 시설(institution)을 구분한다. 이에 따라 센서스의 상주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내국인)은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household population)나 시설에 거주하는 인구(institutional population)에 속한다(UN, 2017, p. 37). 일반적으로 가구는 ‘일반 가구’를 의미하지만, 용어 사용 과정에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가구’(institutional household)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 가구와 비교하여 시설 가구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규칙을 적용받고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eilman, 1995, p. 113).

5) 이와 다르게 가구의 개념을 ‘거처’와 동일시하는 접근을 ‘가구 주거 단위 개념’(household-dwelling unit concept)이라고 한다. 이 개념에서는 동일한 거처를 점유하는 모든 개인은 동일한 가구에 속하게 된다. 행정 데이터(등록부)에 기초하여 센서스를 진행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구 구조의 파악 측면에서는 ‘가계 관리 단위’ 접근이 더욱 유용한 것으로 지적된다(Keilman, 2006, p. 458; UN, 1998a, p. 42). 일반적으로 가구의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차이가 전체 가구의 규모(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1인 가구의 규모는 가구 개념의 접근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유숙인(lodger)은 가계 관리 단위 접근에서는 1인 가구로 계상되지만, 주거 단위 접근에서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거처의 구성원으로 분류된다(Keilman, 2006, pp. 458-459).

용된 이러한 정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가구를 규정하는 공간적, 사회적, 시간적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 센서스에서 가구를 정의하는 공간적 단위는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처로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 아파트 등 하나의 거처를 점유해야 독립적인 가구로 분류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청(2025d)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처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센서스에서도 가구(다인 가구)의 사회적 요소는 공동으로 거주하며 가계를 함께 관리하는 관계(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가구의 사회적 요소에 관한 이러한 통계청의 규정이 거주 형태를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구 유형(예컨대, 친족 가구, 친족-비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세대 유형(1~3세대) 등 센서스의 세부적인 조사 내용에서는 가구의 사회적 요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구의 시간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해당 거처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주(現住; de facto)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상주(常住; de jure)는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제2조 제5호)을 의미한다(인구주택총조사 규칙, 2024).⁶⁾ 다만,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주지의 판단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 외에도 미래의 체류 기간과 관련한 응답자의 주관성(거주하려는 기간)이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서는 상주 개념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

6) 우리나라 통계청이 상주인구를 정의하는 시간적 기준인 3개월은 UN의 12개월 기준(UN, 1998b, p. 18)과 차이가 있다. 상주인구 기준(12개월)은 국제이동(이민)에 관한 정의에서도 적용된다(UN, 2022b, pp. 7-8). 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 3개월 기준의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에 관한 정의는 1960년 센서스부터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적용되었다. 등록인구에 기초한 2015년 이후의 센서스도 기본적으로 상주인구 방식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1925~1955년 기간의 센서스에서는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 방식에 기초하였다(김가은, 전광희, 2020, p. 109).

침을 주지 않지만, UN의 권고안은 조사 대상 개인이 매일 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여야 함을 권고한다(UN, 1998a, p. 11). 기본적으로 상주인구를 야간인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박경숙 외, 2015, p. 119)도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5년 센서스부터 우리나라의 센서스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등록센서스 방식에서 인구는 주민등록의 거주지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2024)은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개인을 등록 대상으로 한다(외국인 제외; 제6조 제1항). 등록센서스 방식에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기초한다. 현재와 같은 등록센서스 체계가 기초하고 있는 ‘등록인구’(registered population)가 1960년 센서스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주인구’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김가은, 전광희, 2020, p. 109). 그러나 센서스 기준 시점(예컨대, 11월 1일 0시)에서 확인된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행정 자료를 통해 기준 시점 이후의 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등록인구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등록인구도 여전히 상주인구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거주지(상주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정 자료에 기초하는 등록센서스에서는 과거의 현장(대면) 조사와 달리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하려는 기간(의도/의향)’을 측정할 수는 없다.

가구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가구주’(head of household)이다. 전통적으로 센서스에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며, 가구에 거주하는 나머지 구성원(가구원)들은 가구주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과거 큰 문제나 논란 없이 사용되었던 가구주 개념은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한 문제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구주 개념이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지는 한편

그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가구주 개념이 초래하는 문제는 특히 부부 가구와 비친족 가구(non-family households)에서 두드러진다. 과거와 비교할 때 점점 더 많은 부부가 결혼을 평등한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가구주’를 낯설고도 이질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친족 가구의 상당수도 단순히 주거만을 공유할 뿐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에 기초하기에 가구주가 가구의 대표자가 되기는 어렵다(Sweet & Bumpass, 1987, p. 337).

‘가구주’ 개념의 부적절성과 모호성은 가구주 개념의 폐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1980년 센서스부터 ‘household head’ 개념을 ‘householder’로 대체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들 두 개념이 동일하게 ‘가구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householder’는 ‘가구주’가 아니라 ‘준거인’(reference person)이라고 할 수 있다.⁸⁾ 한편, 센서스에서 가구주-준거인 용어의 사용에 따라 센서스 자료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용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Sweet & Bumpass, 1987, p. 337).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household head’와 ‘householder’ 개념을 상호 대체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7) UN은 1990년 센서스까지 가구주(head of household) 개념의 사용을 권고했지만,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구주 개념의 타당성/적실성 문제로 2000년 센서스 라운드부터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함축하지 않는 준거인(reference person) 개념을 제안한다(UN, 1989, p. 7; UN, 1998a, pp. 44-45). 비록 가구주가 반드시 가구 내의 최고령자나 최고 소득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주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주 개념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주 정보는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8) 미국 센서스에서 가구의 준거인은 주택의 소유-임대 명의자로 하되, 이러한 개인이 없으면 가구원 가운데 어떤 성인이든 준거인이 될 수 있다. 가구의 준거인으로 선정된 가구원을 ‘householder’라고 하며, 가구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가구원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reference person’으로 명명된다(Sweet & Bumpass, 1987, p. 337).

제2절 가구변동의 분석 틀

이 절에서는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 간의 가설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분석 틀을 살펴본 후에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들과 전반적인 가구변동의 추이 및 특징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구변동에 관한 논의에서 분석 틀은 가구변동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분석 틀은 변수(요인) 간의 상호적 관계를 (가설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어떤 요인에서 나타난 변화가 가구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시각에서 가구 구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약 조건과 영향 요인들을 간결하게 도식화한 De Vos & Palloni(1989, p. 177)의 분석 틀을 살펴본다. 비록 이들의 분석 틀이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포괄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가구 구조의 복잡성과 그 변화 양상을 정확히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를 간명하게 보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에서 가장 아랫부분(F)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가구의 구조(규모 및 구성)이며, 가구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구의 형성-소멸 규칙(A), 사회경제적 조건(B), 친족의 활용 가능성(C)이 있다(실선 표시). 이들 세 가지 요인은 가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상호 간에도 (직접 혹은 다른 요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점선 표시). 오른쪽 위에 있는 원격(distal) 요인, 즉 인구학적 요인(E)과 친족 관계에 관한 규칙(D)은 가구의 형성-소멸 규칙 혹은 친족의 공급(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요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구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의 형성-소멸 규칙(A: rules of household formation/dissolution)은 동거 여부, 신규 혹은 기존 가구원의 진입(합가) 및 탈퇴(독립), 가구의 분리와 결합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선호 체계나 사회적 규범을 지칭한다. 이러한 가구의 형성 및 소멸에 관한 규칙 가운데 가구변동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항들로는 ① 혼인(동거), 이혼, 재혼, ② 분가 혹은 독립(미성년/미혼 자녀), ③ 합가 혹은 편입(성인/기혼 자녀), ④ 입양, ⑤ 가구주와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가구 진입/이탈이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항인 혼인(동거), 이혼, 재혼은 부부(혼인) 관계와 핵가족 형성의 기초가 되며, 나머지 규칙들은 이렇게 형성된 관계의 확장이나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De Vos & Palloni, 1989, p. 177).

둘째, 사회경제적 조건(B: socioeconomic conditions)은 주택의 이용 가능성과 소득-자산 대비 주택의 상대적 가격, 생산과 소비의 기본 단위로서 가구의 노동력 수요 등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De Vos & Palloni, 1989, p. 177). 예컨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의 운영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수록 핵가족을 넘어 확대 가구 및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확장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 분석 틀에서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에는 기술의 발전(진보)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한 기능과 가족 관련 가치 체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 친족에 대한 접근성 혹은 친족의 활용 가능성(C: availability of kin)은 잠재적으로 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친족의 존재 여부와

분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친족은 혈연에 기초한 생물학적 친족 관계망은 물론이고 입양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아우른다(De Vos & Palloni, 1989, p. 177). 거주 형태의 선택지로 친족과의 동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친족의 존재가 전제(제약) 조건이다(Sweet, 1972, p. 144). [그림 2-1]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친족의 공급은 인구학적 요인과 친족 관계에 관한 규칙의 영향을 받는다. 친족의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도 전체 인구와 유사하게 친족의 출산, 사망, 이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넷째, 원격 요인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관한 규칙(D: kinship rules)은 사회적으로 혼인과 친밀성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한다. 혼인은 친족의 범위 및 친족 내부의 우선순위, 근친 관련 규범(예컨대, 근친혼, 근친상간), 단혼(單婚)이나 복혼(複婚) 등에 관한 규범 등 친족 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2-1]의 도식에서 나타나듯이 친족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은 인구학적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된다.

다섯째, 인구학적 요인(E: demographic factors)은 출산, 혼인, 사망, 인구의 국내이동과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들을 모두 아우른다. 다만, 이동력(mobility)의 민감성과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에 미치는 복잡한 파급 효과로 인해 가구 구조의 분석에서 이동력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기는 쉽지 않으며, 경험적 연구 또한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 절에서 가구변동의 기본 틀을 살펴보았지만, 실제의 경험적 연구에서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험적 분석에서 이들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존에 수집된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하는 이 연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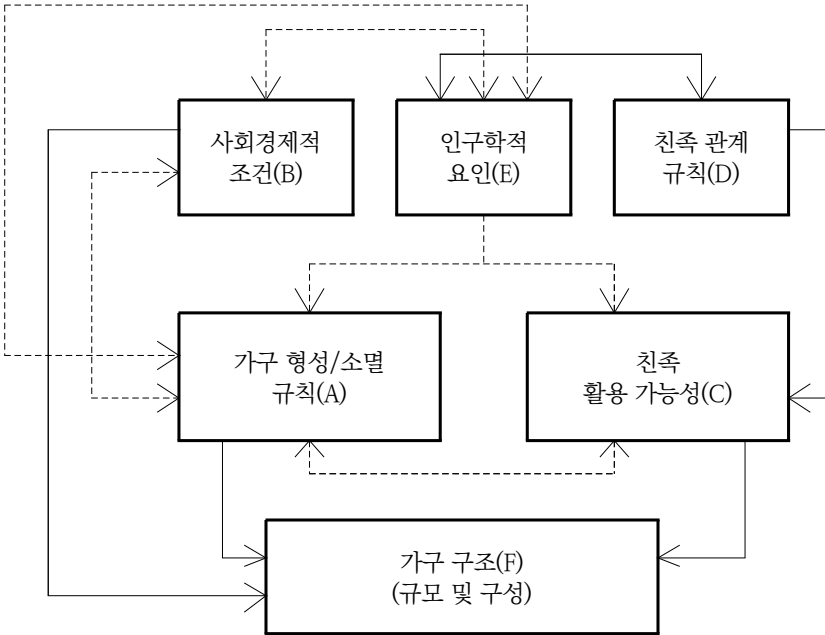
연구는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의 분석과 관련하여 ‘인구학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가구에 관한 인구학적 모델은 다른 제약 조건(A, B, C, D) 속에서 인구학적 요인(E)이 가구 구조(F)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학적 요인의 역할은 ① 동거할 수 있는 친족(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자녀)의 존재 여부와 분포 및 ② 인구학적 구성(인구의 성·연령·혼인 상태 등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구동태율(vital rates)의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참고로, 센서스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조사 자료에서 가구 외부에 존재하는 가족·친족에 관한 정보(kin availability)는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전통 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친족 구성원 모두가 한 가구에서 동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를 대상으로 한 가구변동 연구에서 인구학적 요인의 역할은 대부분 ‘인구학적 구성’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국제 가구변동을 다루는 제3장은 가구 구조(규모 및 구성)(F)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한국의 가구변동을 분석하는 제4장에서는 가구 구조(F)의 변화 양상을 기술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러한 가구변동에서 인구학적 요인(E)의 역할을 추가로 분석한다. 국내 가구변동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인구학적 요인(E)의 역할은 인구의 절대적 규모 변화와 함께 인구의 성·연령·혼인 상태별 구성에서 나타난 변화를 포괄한다. 반면에 인구학적 요인(E)을 제외한 다른 잔여적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가구주율(headship rate)을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된다. 가구변동의 분석 틀에 대한 논의에 이어 아래에서는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최근까지 진행된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에 관한 이론화 작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림 2-1] 가구변동의 분석 틀: 제약 조건과 영향 요인



출처: "Formal model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kinship and household organization," De Vos, S., & Palloni, A., 1989, Population Index, p. 177(Figure 1). Copyright 1989 by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at Princeton University.

가구와 가족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가 1960년대에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등장하여 1970년대 이후 큰 진전을 보였지만(Pilon, 2006, p. 438), 가구 변동에 관한 이론적 발전은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모습이다. 개인 단위의 분석이 지배적인 인구학 일반과 마찬가지로 가구(가족) 인구학 분야에서도 이론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인다. 현재까지 가구 변동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논의(예컨대, Stockmayer, 2004, pp. 19-29)는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 체계의 구축보다는 가구의 규모(household size)가 축소되고 핵성(nuclearity)이 증가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⁹⁾

첫째, 가구변동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강조하는 시각은 상당히 다양하다.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에 의한 소득 수준의 변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변화, 대가족-핵가족 등 가족 규모에 따른 비용과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이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속한다. 소득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은 사생활이나 독립적인 거주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s)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연금 등의 복지제도가 강화될수록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가족) 대신에 소규모의 단순한 가구(가족)를 더욱 선호할 개연성이 높음을 전망한다(Stockmayer, 2004, p. 20).

선행 연구는 특히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대(생애) 소득이나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urch, 1995, p. 91; Engelhardt et al., 2005; Giannelli & Monfardini, 2000; Haurin et al., 1993; McGarry & Schoeni, 2000). 예컨대, 1940~1990년 기간의 미국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McGarry & Schoeni(2000)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사별 여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데 사회보장(Social Security; OASDI) 급여의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분석 대상 기간에 걸친 1인 가구의 증가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47%에 이른다. 전체 노인을 아우른 Engelhardt et al.(2005)의 연구도 거주 유형의 선택에서 소득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사회보장 급여 수급의 효과는 사별이나 이혼처럼 배우자가 없는 집단, 혹은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한다.

9)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Stockmayer(2004, pp. 19-29)를 참고할 수 있다.

소득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시장의 변화도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임대차 가격의 변동은 사실상 소득의 변화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제 지원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Stockmayer, 2004, pp. 21-22). 예컨대, 미국의 20대를 대상으로 한 Haurin et al.(1993)의 분석에 의하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비(임대료) 수준은 부모 가구로부터의 독립 여부는 물론이고 독립 후에 거주하는 가구의 형태(집단 거주, 단신 거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가격의 효과는 부모-자녀 간 동거 문화(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혼 전에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1인 가구보다는) 비친족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결혼 전까지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독립적인 가구 형성을 지연시킴으로써 가구 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Burch, 1995, pp. 91-92).

둘째, 경험적인 증거가 쉽지 않지만 문화적 요인도 가구 유형의 선택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엄밀한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지는 않지만, 인구학적 연구 또한 가구 규모의 축소나 독립된 가구의 증가 현상을 거주 형태에 관한 규범의 변화로 이해한다(Kobrin, 1976, p. 136). 특히 Lesthaeghe(1983)는 현대 사회의 가구 및 가족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의 원인을 인구변동과 함께 세속적 개인주의의 확산 같은 문화(가치체계) 변동에서 찾는다. Kramarow(1995, p. 335)는 지난 20세기에 걸쳐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사별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어떤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의 분석은 소득 상승의 효과와 별개로 가치관의 변화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Kobrin(1976, p. 134)도 소득(사회보장 급여) 같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가구 규모의 감소와 독립된 가구 수의 증가 패턴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한편, 가구의 형성-소멸과 구조에 관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과 관련하여 성역할 변화(changing gender role)의 중요성도 지적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혼인율을 낮추고 이혼율을 높임으로써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Burch, 1995, p. 92).

비록 청년기를 중심으로 거주 형태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경향이 있지만(예컨대, 후술하는 남유럽의 사례), 거주 형태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청년층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치 체계는 자녀, 특히 성인 자녀와의 동거와 관련하여 노인층이 가구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거주 형태의 선택에 관한 문화의 영향은 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 의식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지위나 미흡한 사회보장 체계와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층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보장 체계의 도입에 따라 거주 형태에 관한 가치 체계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구변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이다. 앞의 [그림 2-1]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친족 접근성과 인구학적 구성이 있다. 우선, 친족(가족) 접근성은 가구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친족이 동거 대상으로 선호되는 사회일수록 친족에 대한 접근성은 가구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Burch,

1995, p. 92).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친족’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저출산 현상이 보편화된 선진국 환경에서 친족 가운데 가구 유형(특히 노인)을 결정하는 핵심은 배우자와 자녀라고 할 수 있다.¹⁰⁾

잘 알려져 있듯이 친족 접근성의 중요성은 확대 가족(특히 직계 가족)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 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논리 구조상 높은 사망률에 직면한 사회에서는 오직 소수의 인구 집단만이 생존하여 3세대 이상의 가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본격적인 건강 변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세기 말까지 인간의 기대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Riley, 2005, p. 538). 이러한 사망률 조건에서는 혼인과 출산을 아무리 일찍 하더라도 한 가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거주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는 친족 접근성은 사회의 규범 체계 등 다른 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작동한다. 예컨대,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더라도 혼인한 자녀 가운데 한 명만이 부모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stem family)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인구학적 조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3세대 이상의 확대 가족이 사회 전체의 가구 분포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3세대 이상의 확대 가족은 영구적인 형태가 아니라 직계 가족이 형성되어 소멸하기까지의 전체 가족 생애주기 가운데 일부분에 국한됨이 지적된다. 예컨대, 직계 가족 규범이 지배적이더라도 부모가 일찍 사망하거나 자녀의 결혼-출산이 늦어지면 3세대 이상의 확대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Berkner, 1972, p. 405).

10) 비록 뒤에서 논의하는 ‘인구학적 구성’과 비교할 때 ‘친족 접근성’의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친족 접근성 또한 장기적인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컨대, 특정 인구 집단의 친족 접근성은 해당 집단이 출생하기 오래전에 발생한 장기적인 인구 동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Murphy, 2011, p. 71).

물론 Ruggles(1994, p. 109)가 지적하듯이 ‘실제 거주 형태’와 ‘거주 형태에 대한 선호’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전통 사회에서 확대 가족(특히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 형태에서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더라도 거주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선호(residential preference)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노년기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진 20세기에 이르러 3세대 이상의 확대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인구학적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현실에서 확대 가족이 보편적인 가구(가족) 형태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친족 접근성과 더불어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또 다른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학적 구성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친족 접근성과 비교할 때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는 직접적인 제약 조건으로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Stockmayer, 2004, p. 24). 현실에서 인구학적 구성 변화의 효과는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대체로 특정 가구 유형의 분포에서 나타난 집계적 변화를 사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학적 구성에서 나타난 변화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출산, 사망, 이동(국내/국제) 같은 인구변동 요인들(demographic components)이 작용한 결과이다. 예컨대, Kobrin(1976, pp. 129-130)이 지적하듯이 출산율의 감소는 가구원 규모가 큰 가구의 수를 축소시켜 평균 가구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편, 사망률(노년기)의 감소는 생애주기 가운데 부부가 함께하는 기간(특히 고령의 부부 단독 가구가 경험하는 빈 둥지(empty nest) 단계)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가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작용하는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혼인 상태의 변화이다. 특히 성인 자녀의 혼인 상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알려진다. 미국의 센서스 자료(IPUMS)를 분석한

Messineo & Wojtkiewicz(2004)의 연구에 의하면 1960~1990년 기간에 걸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9~30세 인구의 증가 현상은 거주 성향에서의 변화가 아닌 과거에 비해 이 집단의 혼인 상태 구성에서 이혼이나 미혼 인구가 증가한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인 자녀의 혼인 상태 변화가 부모의 가구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유배우 자녀와 비교할 때 이혼이나 별거 같은 무배우 상태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들의 분석 결과는 또한 과거와 비교할 때 무배우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자 하는 성향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들의 분석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친족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와 거주 형태에 관한 선호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Da Vanzo & Goldscheider(1990, p. 254)는 혼인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직 등 성인기 초기 단계의 생애 사건들로 인해 부모 가구로 귀환하는 현상이 상당히 흔한 현상임을 지적한다. 혼인과 혼인 해체를 통한 부모 가구로부터의 독립과 후속의 귀환 패턴에 추가하여 Goldscheider & DaVanzo(1985, p. 559)는 자녀가 있는 무배우자일수록 부모와 동거할 개연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이는 성인기 초기의 혼외 출산이나 출산 후의 이혼-별거의 증가 현상도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요인(구성 변화)으로 위에서 사망률 변화의 영향을 언급하였지만, 사망률 변화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장애나 건강 변화(특히 노년층) 또한 가구 유형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Burch, 1995, p. 92). 노년기 사망률 감소가 부부 단독 가구나 여성 1인 가구의 구성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언급되지만, 사망률 변화의 기초가 되는 노년층의 건강 변화는 가구 유형의 선택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예

컨대,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분석을 진행한 Mutchler & Burr(1991, pp. 386-387)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구 유형의 선택에서 경제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특히 1인 가구), 시설 거주에서는 건강이 더욱 중요하고 경제적 자원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한다. 실제로 이들의 분석에서 건강의 효과가 고려되면 경제적 자원과 시설 거주(입소) 간의 연관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앞에서는 가구변동의 분석 틀과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별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넘어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추세와 양상을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한적이지만 아래에서는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에 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가구변동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구변동의 추세와 양상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특정 지역(국가)과 시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17세기 중엽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전개된 영국의 가구변동을 분석한 Wall(1995)은 경제적 요인이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빈족과 동거하는 가구(비율)의 감소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 사이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친족과 동거하는 가구(비율)의 감소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었음을 주장한다. 비록 19세기 이전이나 19세기 후반과 비교할 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부부나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그는 지난 200년의 기간에 걸쳐 전개된 거대한 인구학적 및 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개인이 가족(특히 부부 혹은 부모-자녀)과 함께 거주하는 양상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유럽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Kuijsten(1995)은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알려진 인구학적 현상을 통해 가구의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를 논의한다. 앞에서 언급한 Wall(1995)의 분석과 비교할 때 그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시기인 20세기 후반부(1950~1990년)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이혼, 동거, 혼외 출산의 4개 지표를 기준으로 23개의 유럽 국가를 5개의 하위 지역으로 유형화하여 유럽 내부의 지역별 차이에 주목한다.¹¹⁾ 또한 그는 제2차 인구변천 논의와 최근까지 유럽에서 전개된 인구학적 변화(혼인, 동거, 이혼, 출산)를 기초로 향후 유럽의 가구 구조에서 전개될 수렴 혹은 분기의 가능성과 그 논거를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비록 유럽에서 전개될 미래 가구변동의 방향성(수렴 대 분기)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분석은 현재 유럽의 가구 구조에서 관측되는 다양성이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측면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지역에서 전개된 가구(가족)의 주요 변동양상(특히 방향)과 관련하여 Keilman(2006, pp. 468-472)은 ①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② 합의에 기반한 동거 관계의 중요성 증가, ③ 한부모 인구의 증가, ④ 무자녀 인구의 증가, ⑤ 청년층이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연령의 변화를 언급한다. 참고로, 그의 분석에 의하면 청년층이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연령과 관련하여 1960~1970년대에는 청년들이 점점 더 이른 시기에 부모의 거주지를 떠났지만,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추세가 중단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11) 일부 예외가 있지만 Kuijsten(1995, p. 55)이 유형화한 5개 지역(North, West, Center, South, East & Fringe)은 유럽의 권역 구분과 밀접히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North에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West에는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Center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서독), 룩셈부르크, 스위스, South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East & Fringe에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포함된다.

나타난다(특히 남성).

또 다른 선행 연구로 1987~2002년에 걸쳐 유럽의 20~75세 남녀(EU Labor Force Survey; LFS)의 거주 유형을 분석한 Fokkema & Liefbroer(2008, pp. 1408-1409)는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추세를 확인한다. 이들이 확인한 가구변동의 추세(방향)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Keilman(2006)의 분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를 대상으로 이들이 확인한 추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과거와 달리) 청년층(성인)이 부모와 동거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모습이 관측된다. 이러한 패턴은 지역적으로 분화된 패턴이 뚜렷한데, 부모-자녀 간 동거 기간의 연장은 주로 남유럽과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년기와 노년기에 자녀 없이 부부(커플)만 거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비록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좀 더 뚜렷하지만, 이와 같은 추세는 유럽 전역에서 관측되는 현상이다. 셋째, 배우자(파트너) 및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유럽 전역을 가로질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남유럽에서 이러한 패턴은 45세 이하 인구 집단에서만 관측되며, 45세를 넘어서는 인구 집단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된다. 넷째, 자녀와 동거하는 한부모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 전역에서 증가하는 모습(특히 중년기)을 보인다. 다섯째, 유럽 전역에서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는데, 특히 이러한 패턴은 생애주기 가운데 중년기에 강하게 나타난다.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전개되는 이러한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Fokkema & Liefbroer(2008, p. 1411)는 지역(권역)별 변이가 상당히 크며(특히 북·서유럽 대 남·동유럽), 가까운 미래에 유럽 내부의 지역 간 차이가 사라질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식적 및 제도적 돌봄 환경에서의 차이가 지역(권역) 및 국가별 거주 유형에서 차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될 것임을 지적한다.

대체로 20세기 이후의 기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가구변동을 둘러싼 다양한 인구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0~1985년에 걸친 미국의 가구변동을 분석한 Santi(1988)에 의하면 이 기간에 뚜렷한 추세를 보인 부부 자녀 가구의 감소와 한부모 가구의 증가 현상은 가구주율(가구 선택 성향)의 변화보다는 출산력과 혼인력의 변화 같은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임을 보고한다. 한편,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증가 현상은 비혼 및 무자녀 인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 및 이로 인한 고령 인구의 가구주율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1970~1980년 기간의 가구 수 증가 요인을 분석한 Sweet(1984, p. 138)에 의하면 이 기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의 69.4%가 인구 분포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1900~2000년에 걸친 장기적인 가구변동의 양상을 분석한 Stockmayer(2004, pp. 1-2)는 미국의 가구변동이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 구조에서 1인 가구나 부부(단독/자녀) 가구처럼 상대적으로 단순한 가구 형태로 전개됨을 지적한다. 그의 분석은 또한 최근 들어 사망력을 대신하여 혼인력이 가구 구조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의 가구변동에 관한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이 매우 크다. 개별 개발도상국에서 가구변동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의 가구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국제적 차원의 사회조사 자료에 기초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자료는 개발도상국의 가구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자료원이다.

1990~1998년 기간에 걸쳐 조사된 43개 개발도상국의 DHS 자료를

분석한 Bongaarts(2001, pp. 277-278)에 의하면 지역별 인구학적 조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문화적 배경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구 규모와 가구 구성에서의 지역(국가)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가구 규모는 출산율이나 평균 혼인 연령과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혼인 해체 수준과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 짧은 시계열 자료상의 한계는 있지만 그의 분석 결과는 또한 분석 대상 개발도상국의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가구 규모의 감소 패턴은 가구당 자녀 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67개국의 센서스(IPUMS) 자료를 분석하여 경제발전과 가구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Monkkonen(2015, pp. 23-30)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발전(1인당 GDP)과 가구주율, 1인 가구의 비중, 확대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 간에는 뚜렷한 선형적(양/음) 관계가 관측된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연령 간에는 선형적 관계 대신에 대체로 음(-)의 포물선 관계를 보이는데, 경제발전이 중간 수준인 국가군에서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른 90개국의 센서스(IPUMS) 자료를 사용하여 거주 형태에서 관측되는 변이와 발전(HDI)과의 관계를 분석한 Esteve & Reher(2024, p. 211, 228)의 연구도 발전과 핵 가구 형태의 거주 간에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핵 가구 형태의 거주 방식은 발전(HDI) 수준이 중간 정도인 국가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서는 핵 가구(가족) 형태의 거주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연구는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서 핵가족 이외의 친족이나 비친족과 동거하는 거주 형태가 다소 증가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출현함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추세와 양상에 관한 논의를 넘어 가구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궁극적으로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전망하는 이론의 구축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가운데는 기술 진보로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 복잡한 가구 형태에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단순한 형태의 가구로 변모함을 전망하는 가족 근대화 이론(family modernization theory)이나 인구 구조가 고출산-고사망 구조에서 저출산-저사망 구조로 전환된 결과로 가구변동을 이해하는 인구변천 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을 가구변동에 관한 이론으로 소개하기도 한다(Li et al., 2020, pp. 1372-1373).

인구변천 이론이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전개된 인구변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들 두 이론은 ‘근대화’의 영향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들 이론이 가구변동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구변동에 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들 이론에 기초하여 가구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실증 연구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구학계에서 가구변동 이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은 상당히 지체되는 상황이며, 분석 주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 미래 또한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¹²⁾

12) 가구변동 이론(가설)의 현황(사례)과 가구변동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슈들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Burch(1995)를 참고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국제 가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제1절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 개관

제2절 국제 가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제3절 종합 및 소결

제3장 국제 가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제1절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 개관

본 장에서는 가구변동의 국제적인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주-준거인 등 가구의 분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복잡한 이슈와 국가별 센서스 설계-조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가구변동의 국제 비교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시도인가에 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비록 센서스가 설계되고 조사되는 방식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가구변동에 관한 국제 비교가 완전히 의미 없는 작업은 아니다. 예컨대, 가구주-준거인 등 개념 사용에서 관측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역) 간 가구주-준거인의 연령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주-준거인 등 센서스의 설계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권력 구조, 특히 연령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Murphy, 1991, pp. 158-159). 또한 부부 단독 가구 혹은 부부 자녀 가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가구주-준거인 지정을 둘러싼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 유형과 성별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국제 비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도 지적된다(Keilman, 2006, p. 460).

그럼에도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에 관한 분석은 현재까지도 자료상의 제약(시계열, 측정 정보의 동일성/일관성 등)이 많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분석 대신에 가구변동의 국제적인 동향과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는 수준으로 분석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에도 불구

하고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에 대한 분석은 후속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에 관한 분석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UN의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UN, 2022a)를 사용한다. 개인 단위로 제공되는 일반적인 인구통계 자료와 비교할 때 현재까지 UN의 가구통계 자료는 상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별 시계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UN의 2022년 가구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자료는 4개 연도(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의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2017년에 처음 발표된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센서스와 가구 서베이를 활용하여 추정된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대략 98%인 196개 국가(지역)의 1,059개 자료원에 기초하며, 제공 정보의 준거 기간은 1960~2021년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지역)별로 제공되는 시계열 정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된 자료원(후술)이 제공하는 가구통계 정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자료원을 가로질러 표준적인 추정 절차를 사용하기에 국가(지역)-시간을 가로질러 비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IPUMS-I(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amples-International; 이하 IPUMS), DYB(Demographic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LFS(Labour Force Surveys of the European Union),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의 총 5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다(UN, 2022a).¹³⁾ 참고로, UN의 2018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1960~2016년의 기간에 걸쳐 163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DHS, IPUMS, DYB, LFS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였다(UN, 2019, pp. 1-2). MICS 데이터베이스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자료원이다.

UN(2022a)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총 9개의 변수를 제공한다. 첫째, 평균 가구 규모(average household size)이다. 이 지표는 ‘가구당’ 평균 상시 거주자의 수를 의미한다. 둘째,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이다. UN의 가구통계에서 가구원 규모는 1명, 2~3명, 4~5명, 6명 이상의 네 범주로 구성된다. 셋째, 전체 가구 가운데 여성 가구주의 구성비(백분비)이다. 넷째, 가구주의 연령대별 가구의 분포로 20대 미만 가구주 가구, 20~64세(근로 연령대) 가구주 가구,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 정보가 제공된다. 다섯째,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특정 연령대(아동-청소년,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이다. 세부적으로 15세 미만, 18세 미만, 2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비 정보가 제공된다.

여섯째, 특정 연령대의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이다. 이는 위의 다섯 번째 항목을 조합한 정보이다. 예컨대, 20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구원과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각각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비 정보가 제공된다. 일곱째, 특정 연령대의 평균 가구 규모이다. 예컨대, 가구당 20세 미만 평균 가구 규모에 관한 지표가 산출된다

13)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DHS는 1990년, IPUMS는 1960년, DYB는 1995년, LFS는 2001년, MICS는 1999년부터 자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전에는 IPUMS 자료만이 제공되며, 2000년대 이후부터 5개 자료원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된다.

(분모는 전체 가구). 여덟째, ‘기본 가구 유형’이다. 정보가 결측인 가구의 범주(unknown)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에 대비한 특정 가구 유형의 구성비 정보가 제공된다. 전체 가구에 대비한 구성비 정보가 제공되는 가구 유형은 ① 1인 가구, ② 부부 단독 가구, ③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이하 부부 자녀 가구), ④ 한부모 가구(부/모+자녀), ⑤ 한부모 가구(모+자녀), ⑥ 한부모 가구(부+자녀), ⑦ 확대 가구, ⑧ 비친족 가구 등 9개이다 (정보 결측 가구는 별도의 범주로 제공).¹⁴⁾ 참고로, 가구 유형에 관한 정보가 결측인 가구는 가구주와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한 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세대 유형(intergenerational household type)이다. 가구의 세대 유형은 핵(nuclear) 가구, 다세대(multi-generation) 가구, 3세대(three generation) 가구, 조손 세대(skip generation) 가구로 구성된다. 핵 가구는 부부 단독 가구, 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를 아우른다. 다세대 가구는 2세대 이상 친족(20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3세대 가구는 연령과 관계없이 3세대 이상의 친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손 세대 가구는 손자-손녀의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특정 시점에서 관측되는 ‘횡단면적’ 가구 분포의 전 세계적 패턴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료가 제공되는 전체 국가(지역)를 모두 아울러 9개 변수별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원을 사용한다. 횡단면적 분석에서 사용된 정보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의 최근 자료이다.¹⁵⁾ 동일 연도에 복수의 정보가 제공되면 위에서 언급한 자료의 순서

14) UN의 가구 유형 분류에서 확대 가구는 핵 가구(부부 단독 가구, 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이외의 친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참고로, UN은 가족 핵(family nucleus)을 정의(분류)하지만(UN, 2017, p. 196), ‘핵가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UN의 ‘가족 핵’ 정의는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개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가구의 정의와 밀접히 연관된다.

대로 가장 최근의 자료원 정보를 구축하였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은 DHS, 선진국은 IPUMS나 DYB 자료에 기초하는 경향이 강하다.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된 자료원 가운데 DHS, IPUMS, MICS 자료는 상대적으로 표준화 수준이 높다. DYB는 개별 국가(지역)의 통계 기관이 UN에 보고하는 자료에 기초하며, LFS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에 한정하는 자료원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횡단면적 분석과 더불어 종단면적 분석을 통해 국제 가구변동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본다.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평균 가구 규모 및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를 통해 국가(지역)를 가로지른 가구 규모의 패턴을 살펴본다. 자료상의 한계가 크지만 횡단면적 분석에 추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 가구 규모의 전반적인 변동 양상도 간략히 정리한다. 둘째, 가구주 및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여성 가구주율의 패턴과 가구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맥락에 걸쳐 가구주 개념은 그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주 개념이 지닌 한계를 염두에 두되,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다.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원의 연령대별 분포와 가구당 아동-청소년 및 근로 연령대 인구의 분포(평균 규모)를 살펴본다. 셋째, 국가(지역)를 가로지른 가구 유형의 분포와 특징 및 시간적 추세를 살펴본다.

15) 196개 국가(지역) 가운데 가구의 규모 및 가구주에 관한 정보는 모두 2000년 이후의 자료에 기초한다. 반면에 가구원의 연령별 분포와 가구 유형에서는 이스라엘(1995년 IPUMS)과 영국(1991년 IPUMS)의 정보가 2000년대 이전의 자료에 기초한다.

제2절 국제 가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관련하여 먼저 가구 규모의 전 세계적 패턴을 살펴본다. 가구 규모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평균 가구 규모(average household size)와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household distribution by size)를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평균 가구 규모가 가구 규모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지표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Esteve et al., 2024,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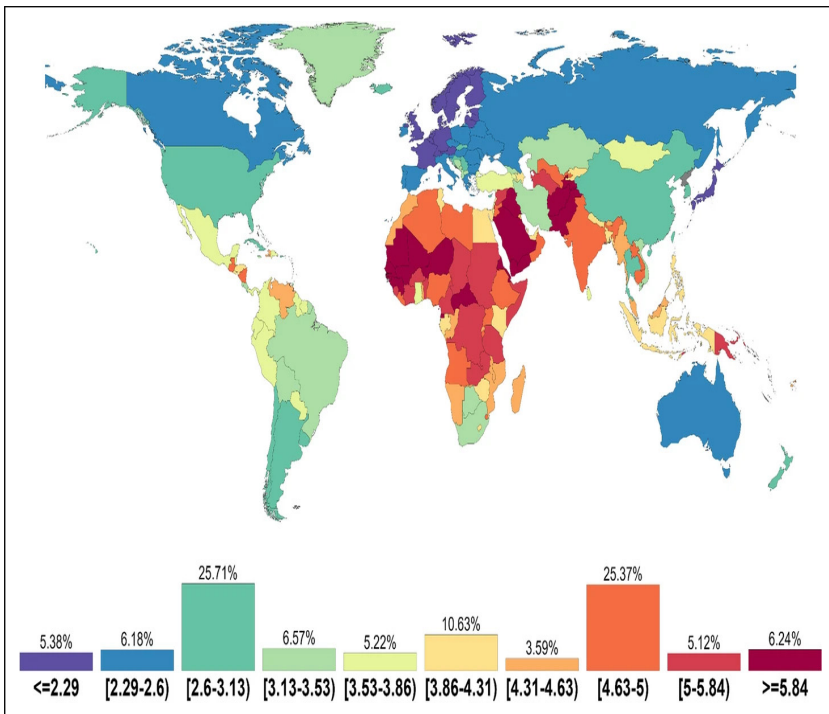
UN(2022a)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 가구 규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187개 국가(지역)의 가구당 평균 가구 규모는 핀란드 2.07명(최솟값; 2010년)에서 세네갈 8.66명(최댓값; 2017년)의 범위를 보인다.¹⁶⁾ 187개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는 3.93명이며(표준편차 1.37명), 중앙값은 3.75명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이전 자료인 UN(2019, p. 3)의 2018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료가 제공된 153개 국가(지역)의 가구당 평균 가구 규모가 4.0명, 중앙값이 3.8명으로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난 바 있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원자료)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와 CORESIDENCE 데이터베이스

16) 북유럽은 평균 가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 중의 하나로 알려지지만,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부 국가에 한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참고로, 선행 연구에서 덴마크의 2021년 평균 가구 규모는 1.83명으로 보고되는데(Esteve et al., 2024, p. 8), 이 자료는 또 다른 주요 국제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인 CORESIDENCE 데이터베이스(CoDB)에 기초한다. CoDB는 155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1960~2021년 기간에 걸친 가구통계를 제공한다. UN의 가구통계에 비해 대상 국가(지역) 수가 적지만, 국가 수준의 정보 외에 하위의 지역 단위 가구통계 정보를 제공한다(Esteve et al., 2023). 다만, CoDB가 기초하는 자료원 또한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와 큰 차이는 없다. CoDB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https://zenodo.org/records/8142652>)를 참고할 수 있다.

(CoDB)에 기초하여 평균 가구 규모의 전 세계적 패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3-1]을 살펴본다. 이 그림에서 평균 가구 규모의 수준은 범례에서 제시된 색상 및 범례 하단의 수치 구간을 통해 구분된다. 히스토그램 형태의 범례 10개 범주는 자료가 활용 가능한 전체 국가를 10분위로 나눈 것이다. 또한 범례의 윗부분에는 특정 수준(구간)의 평균 가구 규모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규모)가 백분비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3-1] 평균 가구 규모의 전 세계적 패턴



주: UN 및 CORESIDENCE 데이터베이스의 2000년 이후 가장 최근 자료에 기초함; 히스토그램 형태의 10개 범주는 자료가 활용 가능한 전체 국가를 10분위로 나눈 것이며, 히스토그램의 범례 위에 표시된 수치는 세계 인구에 대비한 해당 지역(국가) 인구의 백분비(%)임.

출처: “A global perspectiv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1970–2020”, Esteve, A., et al, 2024, Genus, p. 8(Fig. 1). Copyright 2025 by BioMed Central Ltd.

전반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특히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과 서남아시아(중동), 남아시아(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제외) 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들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37개국)의 평균 가구 규모는 대체로 5명 이상이다. 참고로, 평균 가구 규모가 5명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11.36%를 차지한다($5.12\% + 6.24\% = 11.36\%$). 반면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서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일본의 평균 가구 규모는 2.3명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5.38%를 차지한다. 세계 인구의 대략 83%는 평균 가구 규모가 2.3명에서 5명 사이에서 분포한다([그림 3-1] 참고).

〈표 3-1〉의 상단은 UN의 2022년 가구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한 평균 가구 규모의 5개 대륙 및 18개 하위 지역별 패턴을 보여 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UN의 가구통계 정보가 제공되는 187개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가 대략 4명이지만, 지역별 변이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그림 3-1]과 비슷한 맥락에서 아프리카(4.89명)와 아시아(4.42명)의 평균 가구 규모가 크고 유럽(2.60명)의 평균 가구 규모가 작은 패턴이 관측된다.

북미(Northern America)와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를 아우른 아메리카(미주)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3.23명)는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 오세아니아(대양주)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4.93명)가 아프리카 지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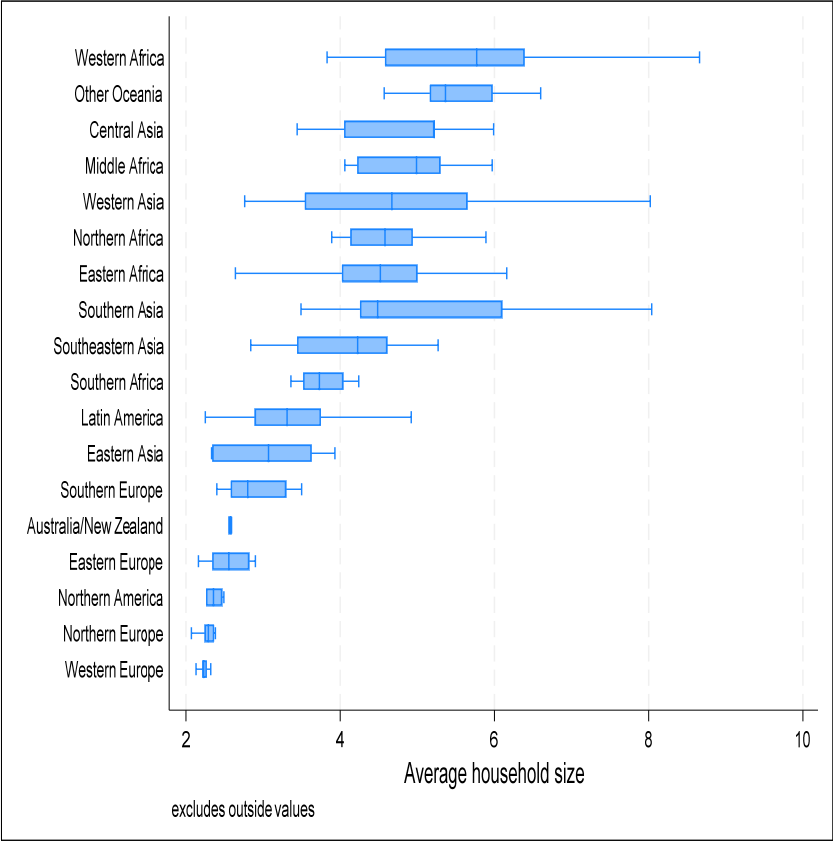
17) 뒤에서 추가로 언급하겠지만, 인구학적 현상에서 아프리카 내부의 기본적인 구분은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이다. 다만, 경제적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아프리카 지역은 다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본적으로 오세아니아 대륙의 호주-뉴질랜드 지역(2.58명)과 다른 소규모 도서 국가(지역)(5.52명) 간 차이에 기인한다.

위에서 제시된 오세아니아 대륙의 사례가 잘 보여 주듯이 평균 가구 규모에 관한 대륙(지역) 수준의 일반화는 대륙(지역)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잘 보여 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위 단위의 평균 가구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2]와 <표 3-1>이 보여 주듯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의 국가(지역)별 변이가 상당히 크다.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5.72명)가 남아프리카(3.78명) 지역보다 2명 가까이 큰 모습을 보인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세네갈(8.66명)과 감비아(8.07명)의 가구당 평균 가구 규모는 8명 이상이다. 반면에 자료가 제공되는 아프리카 53개 국가(지역) 가운데 9개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는 4명 미만이다(튀니지 3.89명, 가나 3.83명, 세이셸 3.78명, 케냐 3.75명, 레소토 3.73명, 보츠와나 3.52명, 모리셔스 3.48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3.36명, 레위니옹(Réunion) 2.64명).

평균 가구 규모에서 관측되는 이질성은 아시아 국가(지역)에서도 관측된다. 남아시아(5.15명) 국가(지역)를 포함하여 서아시아(4.82명), 중앙아시아(4.78명), 동남아시아(4.07명)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동아시아(3.07명)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가 가장 작다. 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8.04명)과 파키스탄(6.80명), 서아시아의 오만(8.02명), 예멘(6.67명), 이라크(6.35명)의 평균 가구 규모는 6명 이상이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일본(2.33명)과 한국(2.34명)의 평균 가구 규모는 유럽, 북미,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3-2] 평균 가구 규모의 지역별 패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87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상자 도표(box plot)에서 상자의 좌측 변은 제1사분위수(제25백분위수), 중간 변은 제2사분위수(제50백분위수, 중앙값), 우측 변은 제3사분위수(제75백분위수)를 표시함(이하 동일).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한편, 중남미 37개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가 187개 전체 국가(지역)의 평균(3.93명)보다 작은 3.33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25~ 4.92명 수준의 상당한 변이를 보인다. 유럽의 평균 가구 규모는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5개 대륙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유럽 내부에서도 변이는 관측된다. [그림 3-2]와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내부에서는 남유럽 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가 3명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변이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 자료가 제공되는 남유럽 13개국에서 평균 가구 규모의 최솟값은 2.40명(이탈리아), 최댓값은 4.90명(코소보)이다. 몬테네그로(3.29명), 알바니아(3.30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50명), 북마케도니아(3.45명), 코소보(4.90명)의 평균 가구 규모는 3명 이상이다. 이탈리아(2.40명), 스페인(2.58명), 포르투갈(2.61명), 그리스(2.56명) 등 주요 남유럽 국가들의 평균 가구 규모는 모두 2.4~2.6명 수준이다.

<표 3-1>은 또한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가구 규모(추정치)를 보여 준다. 자료가 제공되는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가구 규모는 2.59명으로 나타난다.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 가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튀르키예(4.07명)이며, 핀란드의 평균 가구 규모가 2.07명으로 가장 작다. 평균 가구 규모가 3명 이상인 국가로는 튀르키예(4.07명), 멕시코(3.75명), 콜롬비아(3.53명), 코스타리카(3.21명), 이스라엘(3.14명), 칠레(3.04명)가 있다.

한편, <표 3-1>과 [그림 3-3]에는 세계의 대륙(지역) 및 국가별로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구원의 다양한 분포(조합)가 동일한 수준의 평균 가구 규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균 가구 규모에 추가하여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에서도 변이가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20.92%)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

가구원 규모가 6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가 30%를 넘어선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가구원 규모가 6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가 30%를 초과하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동아시아에서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는 5.85%에 불과하다. 유럽 대륙에서는 남유럽에서 가구원이 6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7.97%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5% 미만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북미와 중남미 지역 간 차이가 대략 10%p이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가구원 규모가 6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에서 내부 지역(국가) 간 격차가 가장 큰 대륙에 해당한다. 호주-뉴질랜드에서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가 3.91%인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기타 도서 국가(지역)는 6명 이상이 동거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6%에 이른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와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정확히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가구원이 6명 이상인 대규모 가구의 구성비가 낮은 대륙(지역)일수록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남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전체 가구의 1/4 이상이다. 서유럽은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1인 가구이며, 북유럽도 이에 준하는 수준이다.

국가(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규모별 가구의 분포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는 195개 국가(지역) 가운데 15개 국가(지역)에서 6명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아프가니스탄 76.52%, 세네갈 66.13%, 파키스탄 60.88%, 예멘 59.79%, 감비아 58.57%, 이라크 57.48%, 사모아 56.89%, 기니비사우 56.35%, 소말리아 54.74%, 남수단 52.92%, 기니 52.32%, 수단 52.25%, 타지키스탄 52.18%, 오만 51.94%, 차드 50.98%).

〈표 3-1〉 대륙(지역)별 및 OECD 회원국의 평균 가구 규모 및 가구원 규모별 가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평균 가구 규모	가구원 규모별 가구 분포(%)			
				1명	2~3명	4~5명	6명 이상
대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4.69	4.63	26.16	39.20	30.01
		동아프리카	4.58	9.72	27.95	31.44	30.88
		서아프리카	5.72	10.37	22.92	26.20	40.52
		남아프리카	3.78	21.78	32.25	25.05	20.92
		중앙아프리카	4.91	12.16	23.83	27.24	36.77
		전체	4.89	10.96	26.01	29.32	33.72
	아시아	동아시아	3.07	17.84	45.21	31.11	5.85
		서아시아	4.82	8.97	28.17	31.07	31.79
		남아시아	5.15	4.10	26.38	34.93	34.59
		동남아시아	4.07	8.83	31.81	35.68	23.69
		중앙아시아	4.78	7.85	24.47	33.00	34.69
		전체	4.42	9.33	31.04	33.15	26.47
	유럽	동유럽	2.56	28.24	47.45	20.47	3.84
		서유럽	2.24	35.77	45.66	16.87	1.69
		남유럽	3.03	19.55	44.55	27.93	7.97
		북유럽	2.34	32.90	46.57	18.08	2.45
		전체	2.60	28.16	45.94	21.52	4.37
	아메리카	북미	2.37	30.28	49.70	17.71	2.30
		중남미	3.33	18.67	41.14	28.02	12.16
		전체	3.23	19.78	41.96	27.04	11.23
	오세아니아	호주/뉴질랜드	2.58	23.59	50.24	22.27	3.91
		기타 도서 국가/지역	5.52	9.07	27.06	28.72	35.16
		전체	4.93	11.14	30.37	27.79	30.69
OECD 회원국	그리스(2011)		2.56	25.74	49.16	22.64	2.46
	네덜란드(2011)		2.23	35.11	45.53	18.01	1.35
	노르웨이(2011)		2.22	39.58	40.73	18.13	1.56
	뉴질랜드(2018/2013)		2.60	22.84	50.52	22.09	4.55
	대한민국(2020)		2.34	31.75	48.10	19.27	0.89
	독일(2011)		2.14	37.27	48.09	13.21	1.43
	라트비아(2021)		2.26	41.08	40.80	14.41	3.70
	룩셈부르크(2011)		2.41	33.34	43.27	20.88	2.51

56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구분		평균 가구 규모	가구원 규모별 가구 분포(%)			
			1명	2~3명	4~5명	6명 이상
	리투아니아(2011)	2.38	31.67	47.50	18.98	1.85
	멕시코(2015)	3.75	7.37	39.26	39.73	13.65
	미국(2015)	2.49	27.89	49.49	18.81	3.81
	벨기에(2011)	2.32	34.05	46.50	17.26	2.19
	스위스(2000)	2.21	37.51	43.64	17.23	1.62
	스페인(2011)	2.58	23.19	51.75	23.29	1.78
	슬로바키아(2011)	2.90	25.33	41.37	26.81	6.49
	슬로베니아(2015)	2.47	32.60	43.69	20.54	3.16
	아일랜드(2016)	2.83	22.02	45.38	27.39	5.20
	에스토니아(2011)	2.30	33.90	47.28	17.14	1.67
	영국(2011)	2.35	30.58	49.67	17.50	2.24
	오스트리아(2011)	2.27	36.40	44.88	16.45	2.27
	이스라엘(2008)	3.14	21.01	39.99	28.29	10.70
	이탈리아(2011)	2.40	30.91	47.06	20.48	1.55
	일본(2015)	2.33	34.53	45.45	17.76	2.25
	체코(2011)	2.34	32.51	47.22	18.54	1.74
	칠레(2017)	3.04	20.17	44.75	27.47	7.60
	캐나다(2016)	2.45	28.20	49.59	19.20	3.02
	코스타리카(2018)	3.21	12.07	48.80	31.61	7.51
	콜롬비아(2015)	3.53	11.13	42.41	34.80	11.66
	튀르키예(2004)	4.07	6.37	36.23	39.03	18.36
	포르투갈(2011)	2.61	20.73	55.52	21.54	2.22
	폴란드(2011)	2.82	24.04	45.92	23.68	6.37
	프랑스(2015)	2.22	35.46	46.84	16.08	1.62
	핀란드(2010)	2.07	41.01	44.46	12.97	1.57
	헝가리(2011)	2.36	32.23	48.31	17.39	2.06
	호주(2016/2011)	2.55	24.34	49.95	22.44	3.27
전체(187개국/195개국)		3.93	16.12	35.08	27.94	20.85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87개(평균 가구 규모) 및 195개(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국가명 옆 괄호 안에 부기된 연도는 가구통계 자료의 연도임;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가구통계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이와 대조적으로 20개 국가(지역)에서는 6명 이상 대규모 가구의 구성비가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생피에르 미클롱 0.69%, 한국 0.89%, 모나코 0.94%, 생바르텔레미 1.25%, 리히텐슈타인 1.31%, 네덜란드 1.35%, 독일 1.43%, 벨라루스 1.47%, 이탈리아 1.55%, 노르웨이 1.56%, 맨섬 1.56%, 핀란드 1.57%, 스위스 1.62%, 프랑스 1.62%, 에스토니아 1.67%, 버뮤다 1.70%, 체코 1.74%, 스페인 1.78%, 리투아니아 1.85%, 마르티니크 1.96%). 앞에서 전체 가구에 대비하여 가구원 규모가 6명 이상인 대규모 가구의 구성비가 높은 국가(지역)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지역)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 국가는 대부분 유럽과 북미 대륙(지역)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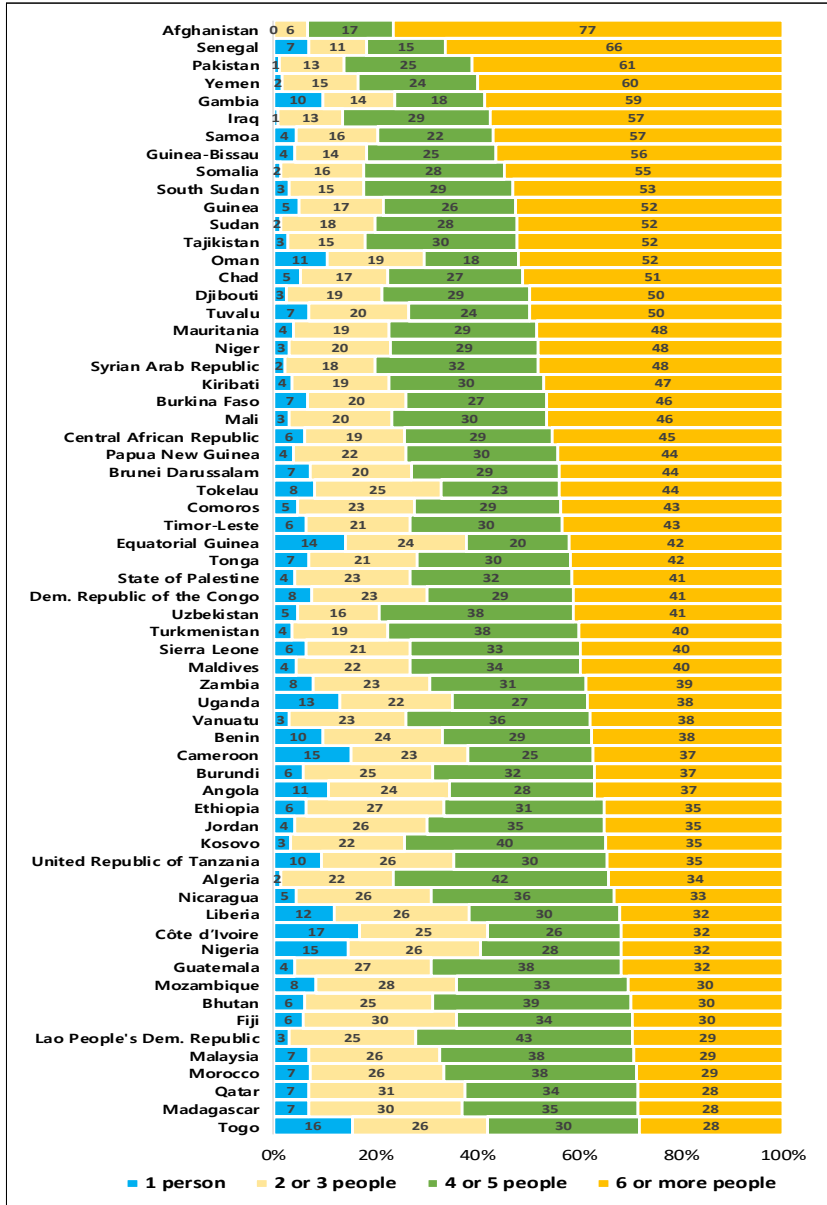
한편, 적지 않은 국가(지역)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30개 국가(지역)에서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구성비가 30%를 넘어선다. 이는 특히 유럽 대륙에서 두드러지는데, 30개 국가(지역) 가운데 22개 국가(지역)가 유럽 대륙에 속한다. 라트비아(41.08%)와 핀란드(41.01%)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34.53%)과 한국(31.75%)의 1인 가구 구성비가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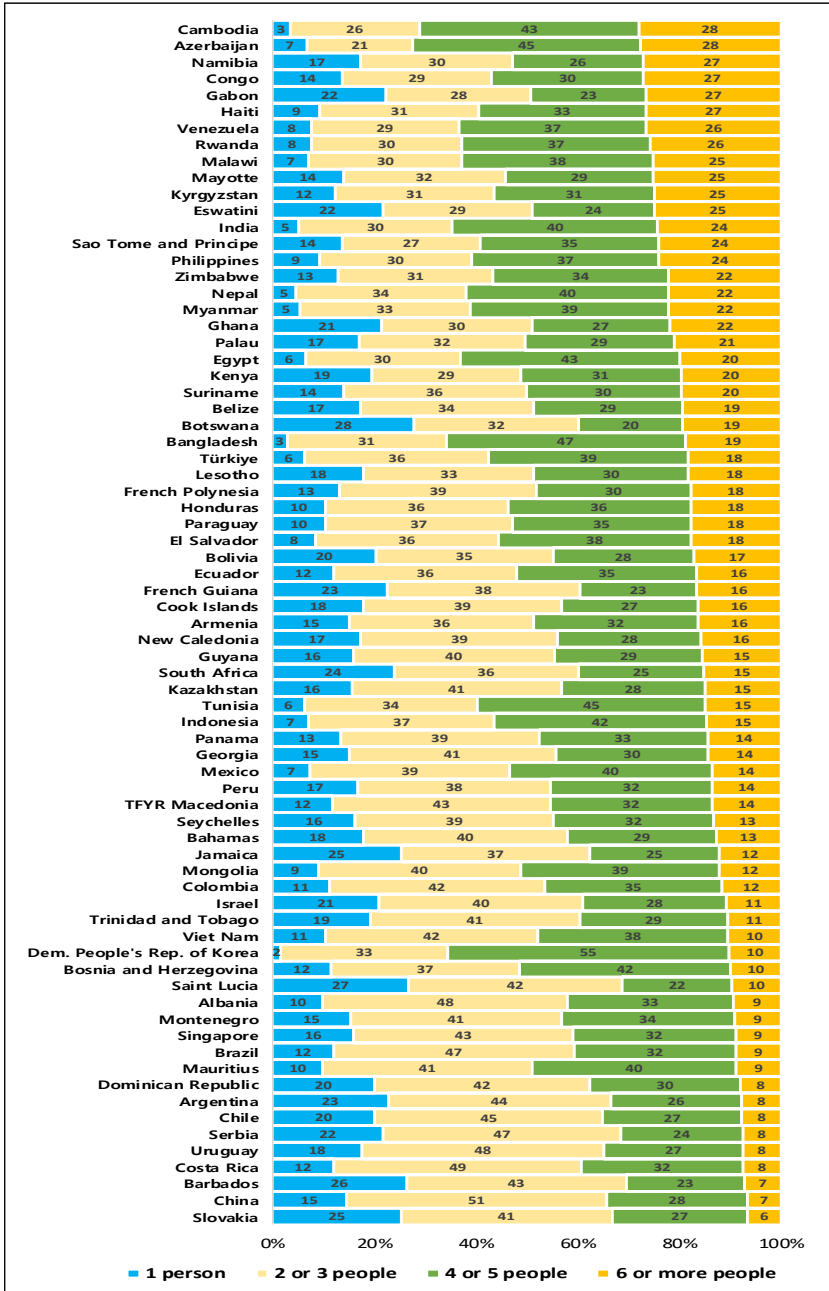
반면에 가구원이 6인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가 50% 이상인 아프가니스탄(0.19%), 이라크(1.01%), 파키스탄(1.08%), 소말리아(1.53%), 수단(1.59%), 예멘(1.87%)의 경우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구성비가 2% 미만으로 매우 낮다. 알제리(1.61%)와 북한(1.68%)의 1인 가구 구성비도 전체 가구 대비 2% 미만이지만, 이들 국가(지역)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가구보다는 4~5인 가구나 2~3인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패턴을 보인다.

58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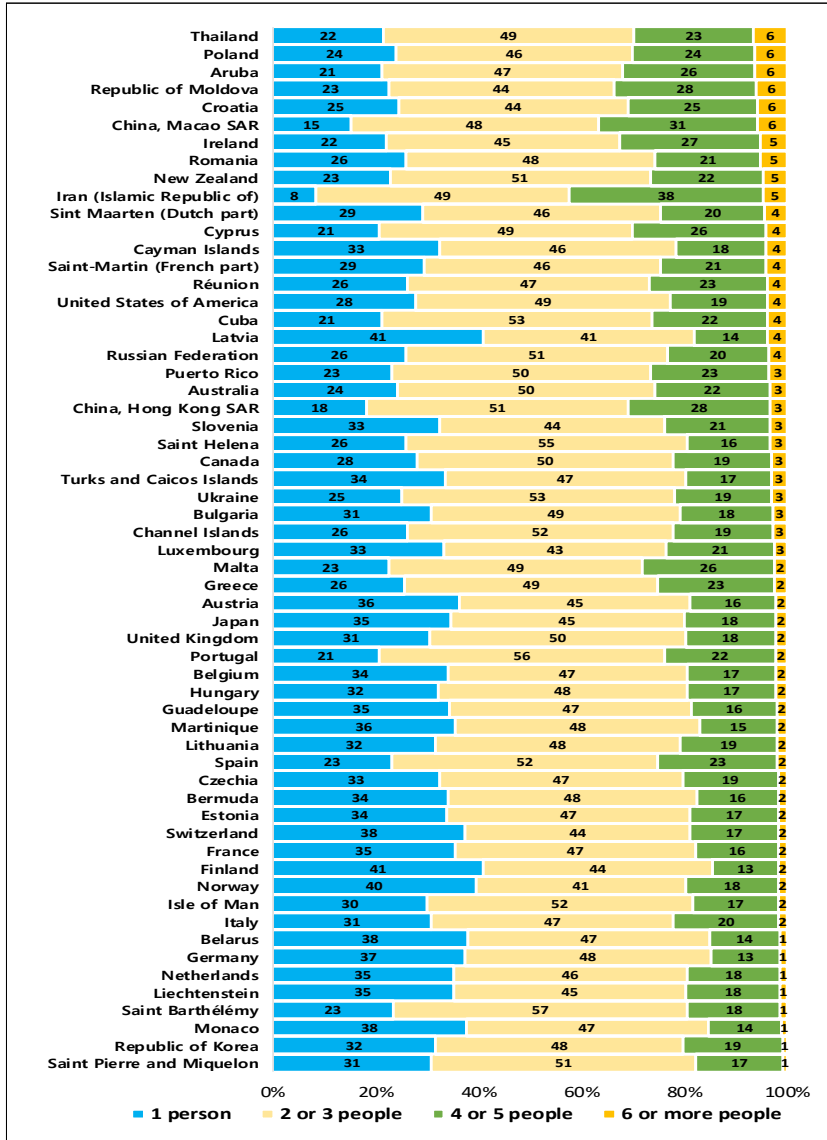
[그림 3-3] 가구원 규모별 가구 분포

(단위: %)





60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95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그림에 표기된 수치는 반올림을 적용한 수치임).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자료의 유형(DHS, IPUMS, DYB, LFS, MICS)이나 자료가 제공되는 횟수 및 시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국가(지역)를 모두 아울러 평균 가구 규모의 시간적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기초적인 추세 파악이 가능한 국가(지역)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진행된 평균 가구 규모의 시간적 패턴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평균 가구 규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187개 국가(지역) 가운데 2 시점 이상의 자료가 제공되는 157개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에서 관측되는 변화 양상([그림 3-4] 및 [그림 3-5] 좌측 상단)을 보면 138개 국가(지역)에서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87.90%), 18개 국가(지역)에서 평균 가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1.46%). 참고로, [그림 3-5] 좌측 상단의 히스토그램은 2 시점 이상의 평균 가구 규모 정보가 제공되는 157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최종 및 최초 관측 시점의 평균 가구 규모 간 차이를 보여 준다.

한편,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최초 및 최종 시점의 평균 가구 규모가 동일한 사례는 우간다가 유일하다. 우간다의 평균 가구 규모는 1991~2019년 기간에 걸쳐 4.7~5.0명 수준에서 변화하지만, 최초(1991년 IPUMS) 및 최종(2019년 DHS) 시점 모두 평균 가구 규모가 4.87명으로 동일하다.

관측 기간에 걸쳐 평균 가구 규모가 2명 이상 감소한 국가(지역)로는 태국(-2.87명), 코스타리카(-2.38명), 콜롬비아(-2.15명), 보츠와나(-2.09명), 멕시코(-2.09명), 칠레(-2.0명)가 있다. 예컨대, 태국의 평균 가구 규모는 1970년 5.71명(IPUMS)에서 2019년에 2.84명(MICS)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34개 국가(지역)에서 평균 가구 규모가 1명 이상 2명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국가(지역)별로 관측 시점과 기간이 다른 조건에 기초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국가(지역)별로 전체 관측 기간에 걸쳐 평균 가구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많지 않다. 더욱이 평균 가구 규모가 증가한 이들 국가(지역)에서도 증가 폭은 크지 않다.

국가(지역)별로 관측 기간에 걸쳐 평균 가구 규모가 0.5명 이상 증가한 사례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감비아, 차드, 동티모르의 6개 국가(지역)에 국한된다. 더욱이 관측 기간에 걸쳐 평균 가구 규모가 1명 이상 증가한 사례는 파키스탄(1.99명)이 유일하다. 파키스탄의 평균 가구 규모는 1973년 4.81명(IPUMS)에서 2013년에 6.80명(DHS)으로 증가했지만, 2013년의 평균 가구 규모는 2006년 7.15명(DHS)보다는 감소한 상황이다.

[그림 3-4]는 전 세계적 패턴과 함께 5개 대륙별 평균 가구 규모의 추이를 보여 준다. 비록 예외적인 사례들이 관측되지만, 모든 대륙을 가로질러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사례가 많이 관측되지만,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폭은 국가별로 가구통계 자료가 최초 제공되는 시점의 가구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측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에서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유럽에 속한 상당수 국가는 이미 UN의 최초 가구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의 평균 가구 규모가 4명 아래인 관계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최근까지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그 패턴이 덜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포함하여 OECD 회원국처럼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한 국가(지역)에서도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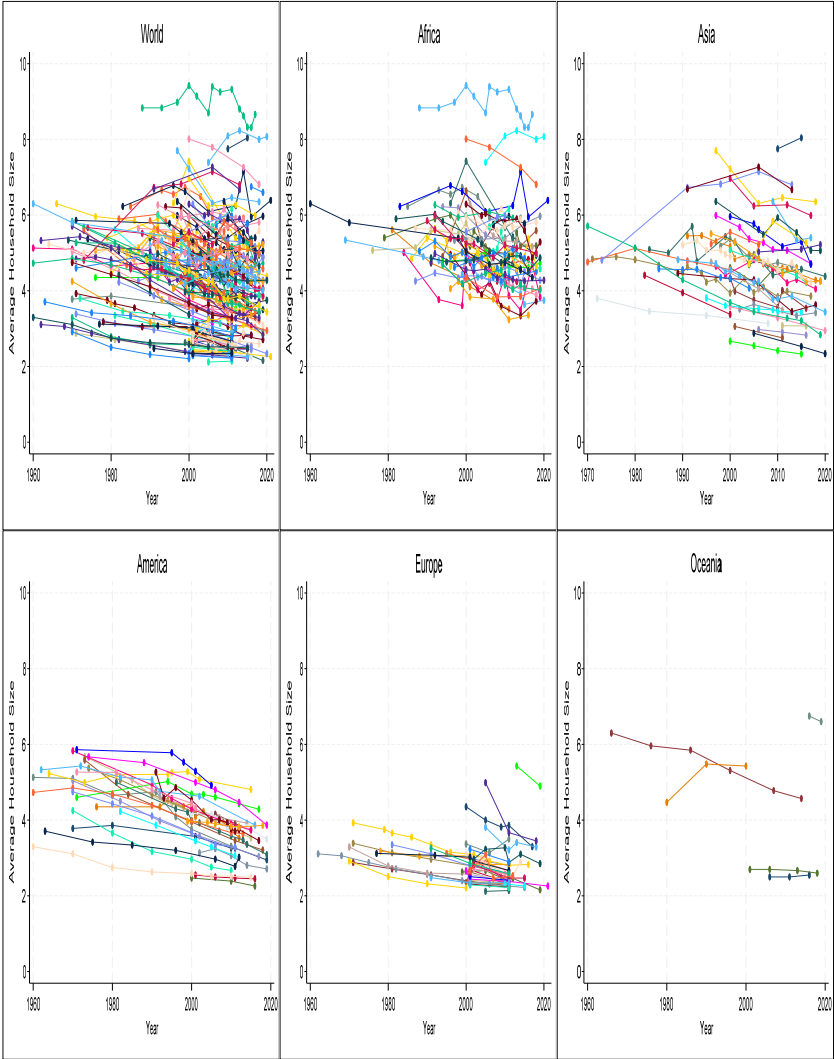
적이지만, UN의 가구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최초 시점의 평균 가구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최초 시점인 1960년의 평균 가구 규모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인 3.30명(IPUMS)이었으며, 2015년에는 2.49명(IPUMS)까지 감소하였다.¹⁸⁾ 다만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등 상대적으로 OECD 가입 시점이 늦지만 1970년대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의 1970년대 평균 가구 규모는 모두 5명 이상으로 평균 가구 규모가 큰 시점부터 가구통계 자료가 제공된다.

한편 [그림 3-5]는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패턴이 뚜렷한 4개 국가(보츠와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태국)와 최초 관측 시점에서 평균 가구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최근까지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 4개 국가(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감비아, 파키스탄)의 사례를 예시적으로 보여 준다.

18) 참고로, IPUMS 자료에서 미국의 1900년 기준 평균 가구 규모는 4.5명이었다 (Stockmayer, 2004,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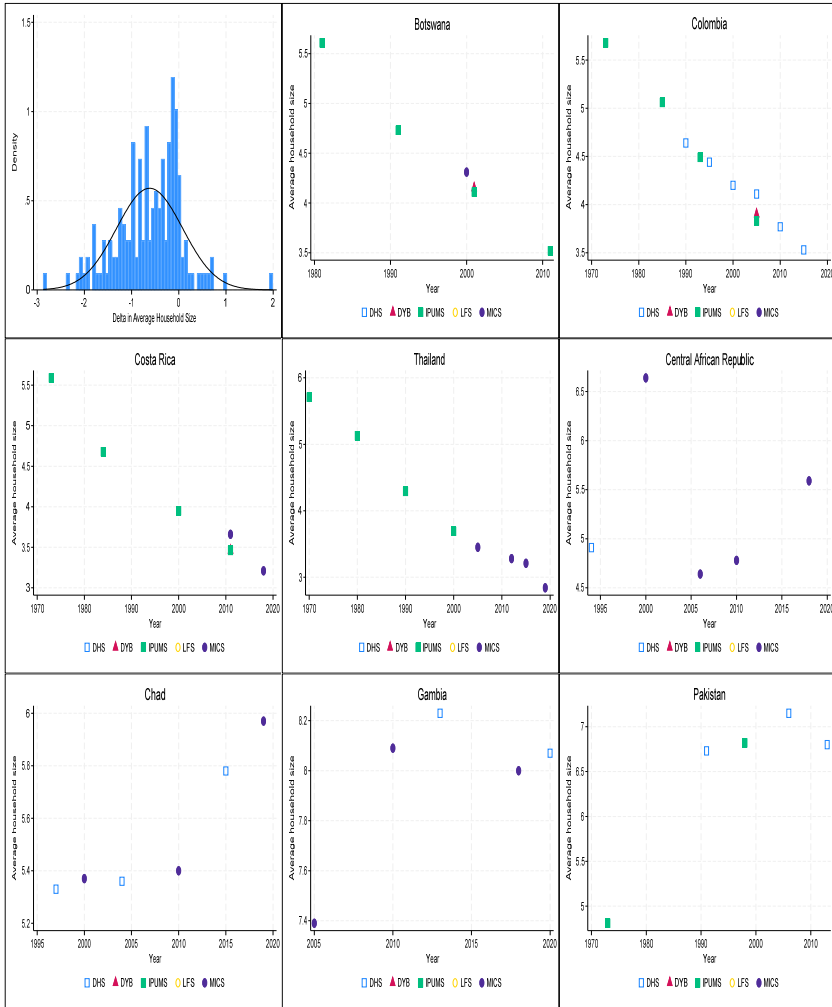
[그림 3-4] 세계 및 대륙별 평균 가구 규모의 추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의 자료가 제공되는 157개 국가(지역)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그림 3-5] 가구원 규모의 변동 수준과 주요 국가(지역) 평균 가구 규모의 추세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의 자료가 제공되는 157개 국가(지역)의 평균 가구 규모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히스토그램은 최종 관측 시점의 평균 가구 규모에서 최초 관측 시점의 평균 가구 규모를 제한 값에 기초하여 산출함; 8개국의 평균 가구 규모 추세 그림에서 동일 시점에 복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자료를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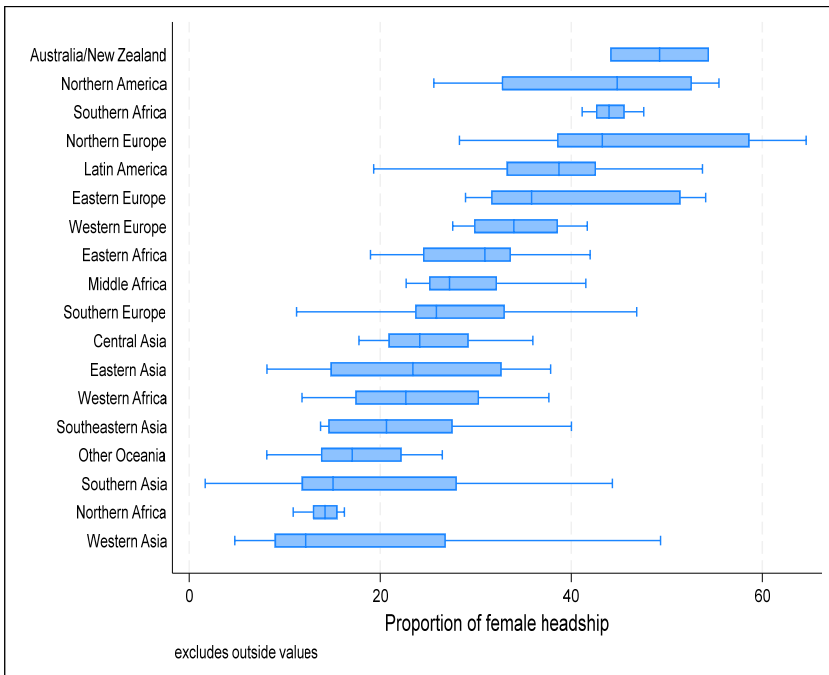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가구 규모에 대한 논의에 이어 아래에서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는 여성 가구의 비중과 가구의 연령 분포가 있다. 가구에 성인 남성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여성 가구주율의 분포는 전체 가구 가운데 성인 남성 가구원이 없는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목적으로 빈번히 사용된다(UN, 2019, p. 12). 2022년 UN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최근 추정치 기준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185개 국가(지역)의 평균 여성 가구주율은 30.29%이다(최대 64.59%, 최소 1.67%, 표준편차 12.31%). 대륙별 여성 가구주율은 아메리카 38.46%, 유럽 36.14%, 아프리카 28.25%, 오세아니아 23.93%, 아시아 21.09%로 상당히 큰 변이가 존재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18개 하위 지역으로 구분한 [그림 3-6]에서도 여성 가구주율의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평균 값 기준으로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여성 가구주율이 49.24%로 가장 높고, 북아프리카의 여성 가구주율이 13.96%로 가장 낮다. [그림 3-6]에서 표시된 중앙값 기준으로는 호주-뉴질랜드의 여성 가구주율이 49.24%로 가장 높고, 서아시아가 12.19%로 가장 낮다.

전반적으로 호주-뉴질랜드, 북아메리카, 유럽의 여성 가구주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가구주율이 낮다. 유럽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유럽 지역의 여성 가구주율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다만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18개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 또한 상당히 크다. 개별 국가(지역) 기준으로 보면 자료가 제공되는 185개 국가(지역) 가운데 10개 국가(지역)의 여성 가구주 구성비가 50% 이상이다(라트비아 64.59%, 리투아니아 58.65%, 에스토니아 55.66%, 버뮤다 55.47%, 뉴질랜드 54.42%, 폴란드 54.08%, 푸에르토리코

53.73%, 러시아 52.11%, 벨라루스 51.44%, 아르헨티나 50.03%). 이들 가운데 6개 국가(지역)가 북유럽과 동유럽 지역에 속한다. 이들 국가(지역)와 대조적으로 아프가니스탄(1.67%), 카타르(4.77%), 예멘(7.78%), 바누아투(8.12%), 북한(8.14%), 시리아(8.32%), 이라크(8.94%)의 여성 가구주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 참고로,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가구주율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다(2020년 기준 32.17%).

[그림 3-6] 여성 가구주 구성비의 지역별 패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85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여성 가구주의 비율에 이어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대를 20세 미만, 20~64세, 65세 이상의 3개 범주로 구분하며, 이들 3개 범주에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지역)는 직전 시점의 자료로 대체하거나, 직전 자료가 없으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⁹⁾

[그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에서 18개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다(X-축 레이블 참고). 국가(지역)별로도 분석 대상인 179개 국가(지역)를 모두 아울러 2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매우 낮다(평균 0.62%). 남미 지역에 속한 볼리비아의 2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가 4.19%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 대륙의 보츠와나(2.50%), 모잠비크(2.33%), 마다가스카르(2.26%), 코트디부아르(2.01%), 마요트(2.01%)의 2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가 2% 수준이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근로 연령대에 속한 20~64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분석 대상 전체 국가(지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평균 80.96%, 최대 카다르 95.14%, 최소 세르비아 59.88%). 다만, 근로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개발도상국이 많이 속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3-7]의

19) 이론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3개 범주(20세 미만, 20~64세, 65세 이상)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3개 범주의 합이 99% 미만인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직전 시점으로 대체하거나 대체 자료 부재 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스,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앙골라, 일본, 칠레는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직전의 자료로 대체하고, 대체 자료가 없는 바누아투, 지부티, 채널 아일랜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구주의 연령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총 179개 국가(지역)이다.

중간 및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와 노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상관계수 = -0.9967). [그림 3-7]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가구주의 연령 분포에서 관측되는 변이의 핵심은 유럽, 북미, 호주-뉴질랜드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차이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유럽, 북미,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근로 연령대(20~64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패턴이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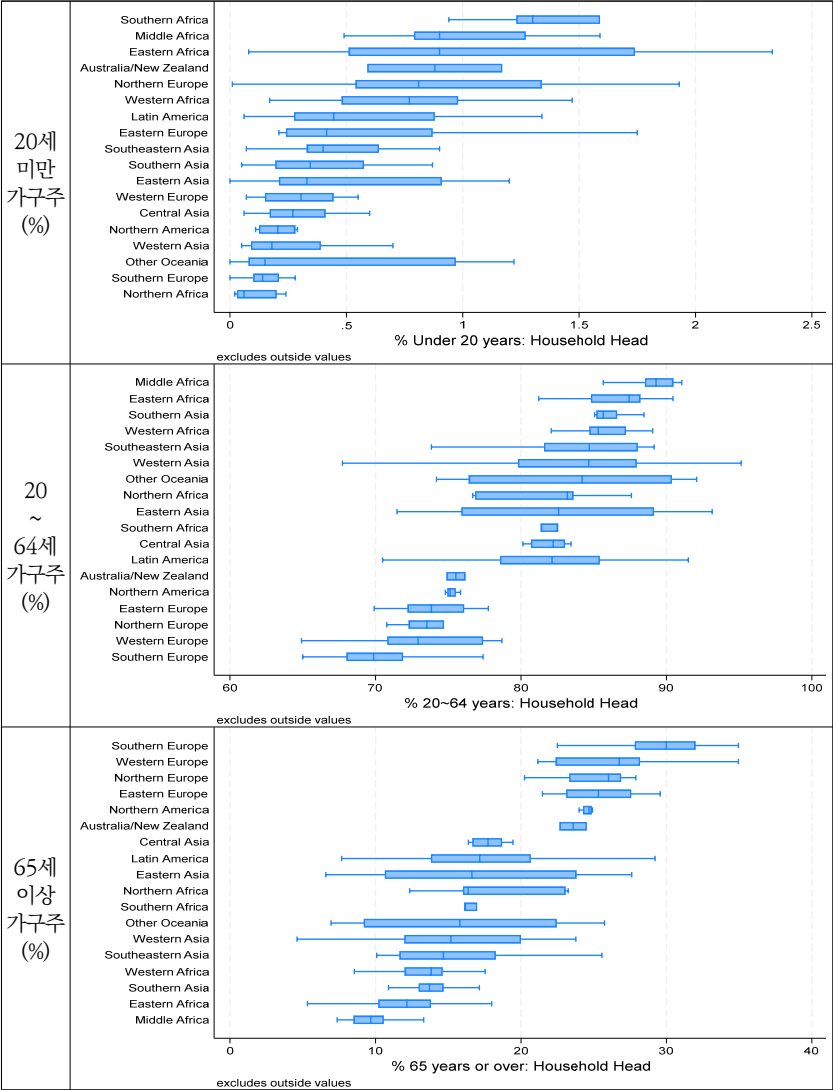
비록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입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구주의 연령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까지 유럽 대륙이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향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울러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개별 국가(지역) 차원에서 살펴보면 세르비아(2019년)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가 39.98%로 가장 높다. 반면에 카타르의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4.60%에 불과하다.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인 이탈리아(2011년)의 노인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도 34.95%로 상당히 높다.²⁰⁾ 참고로, UN의 가구통계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22.61%로 보고된다(2020년 기준).

20) 이 연구가 분석한 자료에서 일본의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27.61%이지만, 이 자료는 2005년 자료이다(DYB).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일본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자료이지만, 가구주의 연령 분포 자료(합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일본의 2015년 가구통계 자료에서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는 35.28%이다.

70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그림 3-7] 가구주 연령 분포의 지역별 패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79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데 이어 가구원의 연령별 가구 구성을 살펴본다. 이 지표는 전체 가구 가운데 특정 연령대의 가구원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비를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① 20세 미만 가구원, ② 65세 이상 가구원, ③ 20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이들 지표는 UN의 가구통계가 제공하는 가구의 구성에 관한 대표적인 정보이다. 참고로, 후술하는 가구 유형이나 세대 구성 정보가 부분적으로 가구의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구 단위의 집계 정보에 국한하기에 가구의 구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가구주나 준거인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변수)는 UN의 가구통계에서 직접 제공되지 않는다.

우선, 가구 내에서 부모와 동거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세 미만 가구원의 존재는 출산율 및 사망률(아동기-청소년기) 수준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8]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지역)를 중심으로 가구 내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20세 미만 가구원이 있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96.49%), 니제르(92.91%), 소말리아(92.38%), 남수단(91.95%), 말리(91.67%), 차드(90.95%) 같은 국가(지역)에서는 90% 이상의 가구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20세 미만 가구원이 거주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과 북미 대륙(지역)에서는 2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오스트리아(27.83%), 스위스(27.98%), 이탈리아(28.81%), 헝가리(28.81%)는 전체 가구 가운데 20세 미만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들이다.²¹⁾

21) 참고로, UN의 가구통계에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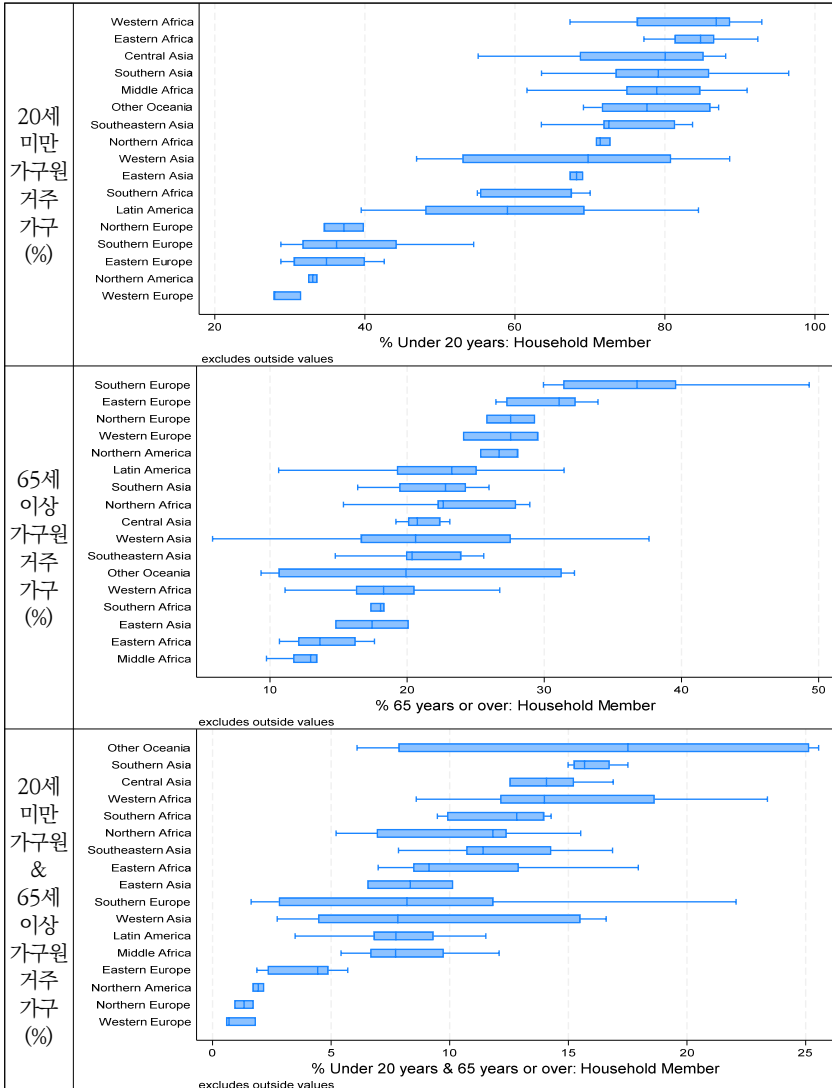
2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와 비교해서 국가(지역)를 가로지른 변이가 작지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한 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에서도 지역별 변이가 작지 않다.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특히 남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65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세르비아(49.31%), 이탈리아(36.82%), 그리스(36.76%) 등 12개 국가(지역)에서 65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전체의 1/3을 넘어선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특히 카타르(5.81%), 바누아투(9.35%), 앙골라(9.75%)에서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의 확대 가구에 속할 개연성이 있는, 20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 대비 구성비가 높지 않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자료가 제공되는 145개 국가(지역) 가운데 20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평균)는 10.13%이다(중앙값 9.36%).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고 출산율이 높은 구조에서 20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이 함께 거주할 개연성이 높지만, 인구변천 과정에서 사망률과 출산율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출산-고사망 구조 → 저출산-저사망 구조).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세네갈(30.49%), 사모아(25.55%), 투발루(25.15%), 기니(23.39%), 감비아(23.12%), 코소보(22.07%), 통가(21.35%), 파키스탄(20.06%)에서 20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20%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3-8]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가구원 동거 가구의 지역별 패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45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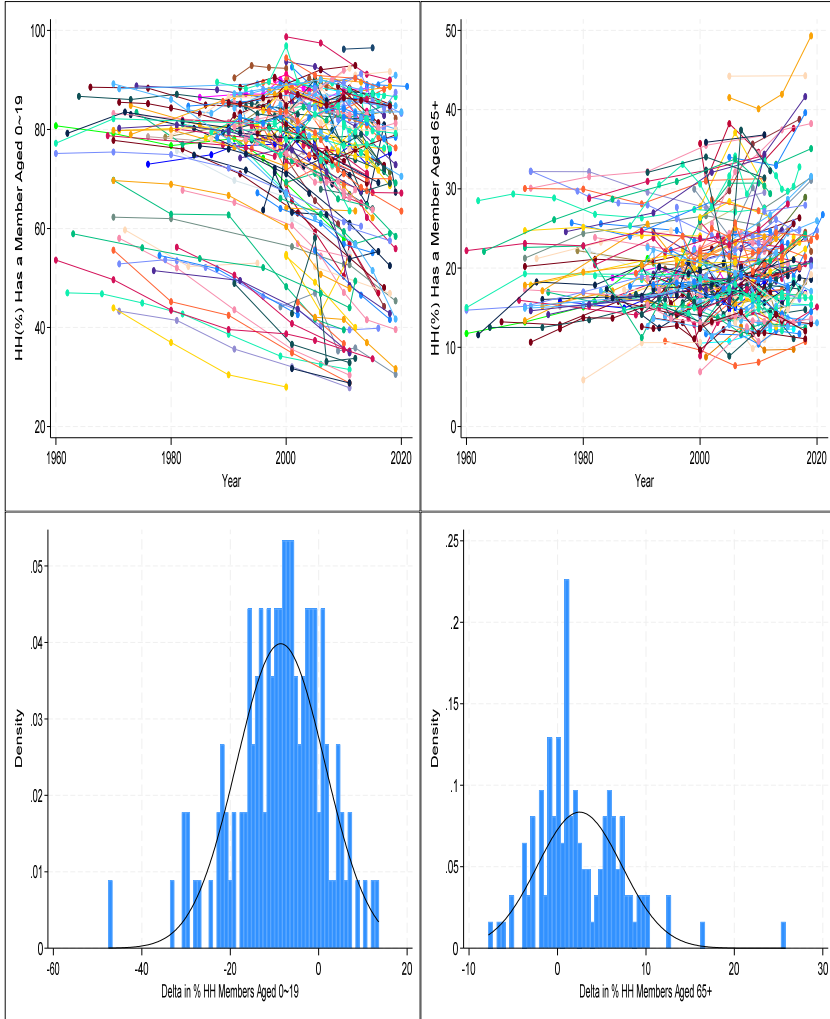
앞에서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대 가구원이 최소한 한 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횡단면 분석). 전 세계를 가로지른 시간적 추이를 엄밀히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UN의 가구통계가 제공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러한 가구 특성의 시간적 특성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가(지역)별 변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가구 특성은 일정한 시간적 추세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율의 감소는 2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 감소, 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 실제로 [그림 3-9]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 미만 가구원이 최소한 한 명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감소세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가구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보인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에서 측정 시점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지역)별 최초 관측 시점의 구성비와 최종 관측 시점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2 시점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는 129개 국가(지역) 가운데 106개(82.17%) 국가(지역)에서 2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감소하였으며, 23개(17.83%) 국가(지역)에서 20세 미만 가구원이 최소한 한 명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9]의 좌측 하단). 관측 기간에 걸쳐 2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태국(-47.51%p; 1970년 89.22% → 2019년 41.71%)이며, 해당 구성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말리(13.58%p; 1987년 78.09% → 2018년 91.67%)이다.

[그림 3-9] 20세 미만(좌) 및 65세 이상(우) 거주 가구의 추세 및 변화 수준

(단위: %)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129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산출함; 그림 하단의 특정 연령대별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 변화는 국가(지역)별 최종값에서 최초값을 제한 것임.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이와 대조적으로 관측 기간에 걸쳐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증가한 국가(지역)가 88개(68.22%), 해당 구성비가 감소한 국가(지역)가 41개(31.78%)로 나타난다([그림 3-9]의 우측 하단).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북마케도니아(25.77%p; 2005년 15.88% → 2018년 41.65%)이며, 해당 구성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보츠와나(-7.81%p; 1981년 22.21% → 2011년 14.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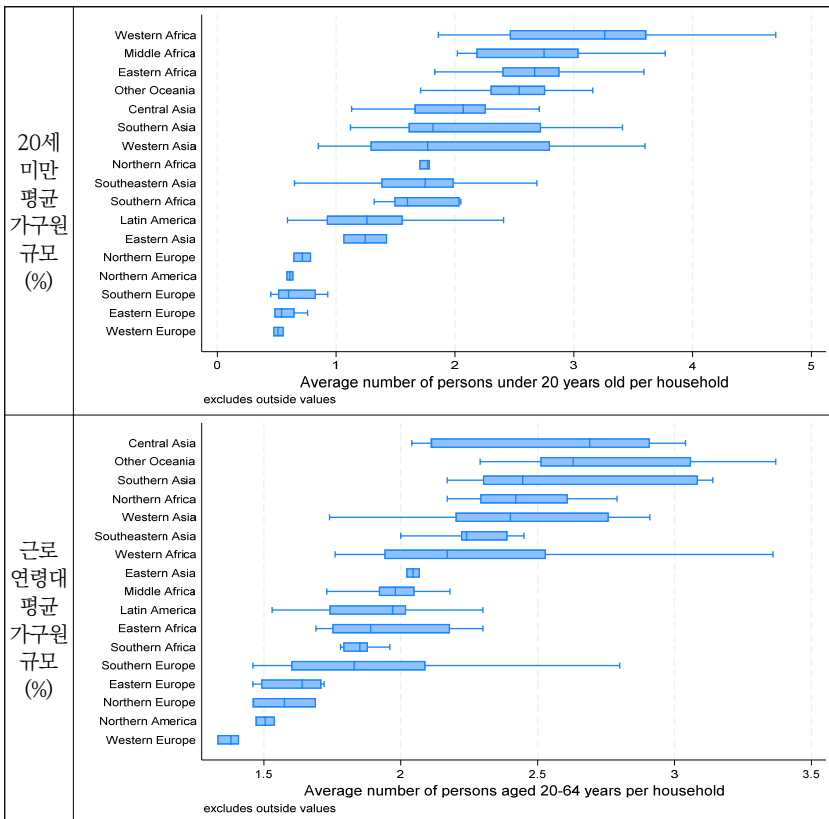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구원의 연령별 가구 구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또 다른 지표로 ①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와 ② 가구당 근로 연령대(20~64세) 가구원 수(평균)를 살펴본다(전체 가구 기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의 존재는 출산율과 사망률(아동기-청소년기)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145개 국가(지역)의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는 1.86명이며(최소 0.45명, 최대 4.7명), 가구당 근로 연령대(20~64세) 가구원 수(평균)는 2.11명으로 나타난다(최소 1.33명, 최대 3.56명).

앞에서 살펴본 가구원의 연령대별 가구 구성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지역)의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많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의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적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는 가구당 2.67명이다. 특히 북아프리카(1.94명)와 남아프리카(1.70명)를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의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인다(동아프리카 2.70명, 중앙아프리카 2.75명, 서아프리카 3.16명). 세네갈(4.70명), 아프가니스탄(4.69명), 감비아(4.41명)는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4명 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유럽의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는 0.66명이며, 하

위 4개 권역을 모두 아울러 1명 미만이다(동유럽 0.57명, 북유럽 0.72명, 남유럽 0.74명, 서유럽 0.51명). 특히 이탈리아(0.45명), 오스트리아(0.47명), 우크라이나(0.48명), 헝가리(0.48명), 벨라루스(0.49명)는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0.5명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림 3-10] 가구당 연령대별 평균 가구 규모의 지역별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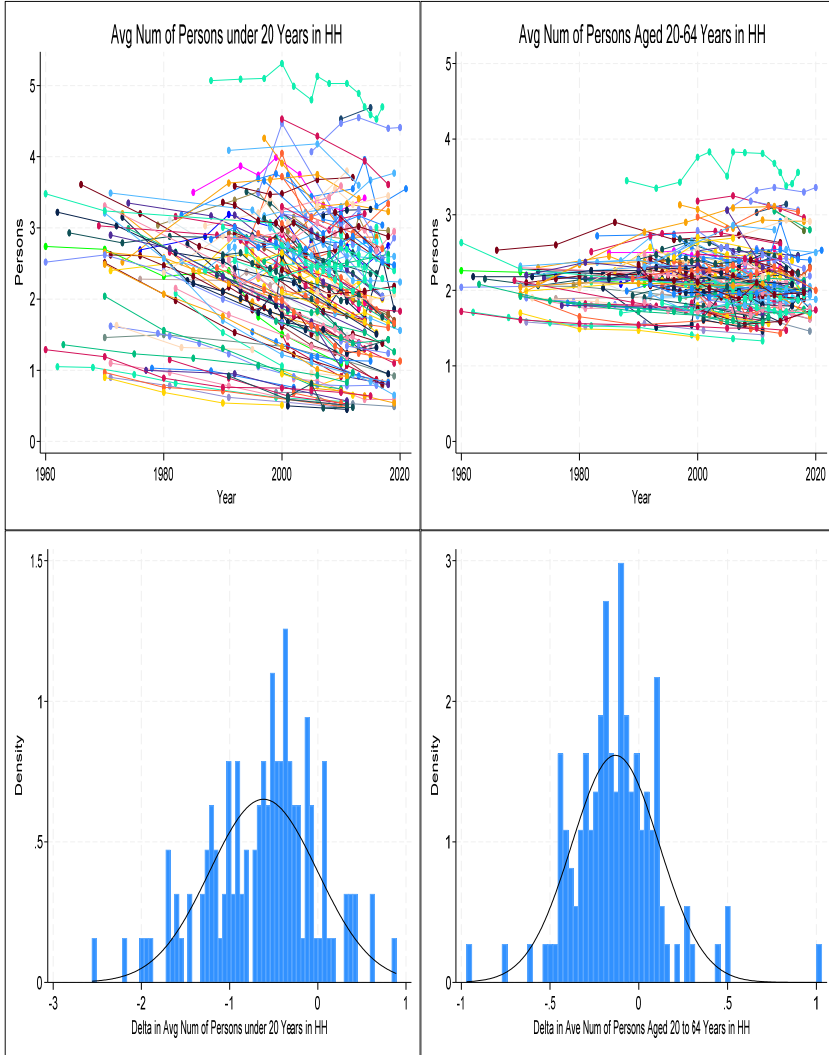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45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20세 미만 가구원과 비교할 때 근로 연령대(20~64세) 가구원 수는 상대적으로 대륙 및 지역별 변이가 작다. 대체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가구당 근로 연령대 가구원 수(평균)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의 가구당 근로 연령대 가구원 수(평균)는 2명 미만이다. 세네갈(3.56명), 투발루(3.37명), 감비아(3.36명), 아프가니스탄(3.14명) 등 10개국에서 가구당 근로 연령대 가구원 수(평균)가 3명 이상으로 보고된다. 반면에 프랑스(1.33명), 스위스(1.38명), 오스트리아(1.41명), 이탈리아(1.46명) 등 유럽과 북미 지역 8개국의 가구당 근로 연령대 가구원 수(평균)는 1.5명 미만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은 가구당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의 추세를 보여 준다. 2 시점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는 129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최초 및 최종 시점을 비교하면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증가한 국가(지역)는 17개국(13.18%)이며, 112개국(86.82%)에서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감소하였다.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증가한 17개국에서도 증가 폭은 1명 미만이다.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평균)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파키스탄으로 1973년에 2.52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0.89명 증가한 3.41명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태국으로 1970년(3.21명)에서 2019년(0.65명) 사이에 2.56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기간에 걸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UN의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가구당 20세 미만 가구원 수가 뚜렷한 감소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그림 3-11]의 상단). 이러한 패턴은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현상이 기본적으로 출산율 감소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출산율의 감소는 가구당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림 3-11] 가구당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의 추세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129개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산출함; 그림 하단의 특정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에서의 변화는 국가(지역)별 최종값에서 최초값을 제한 것임.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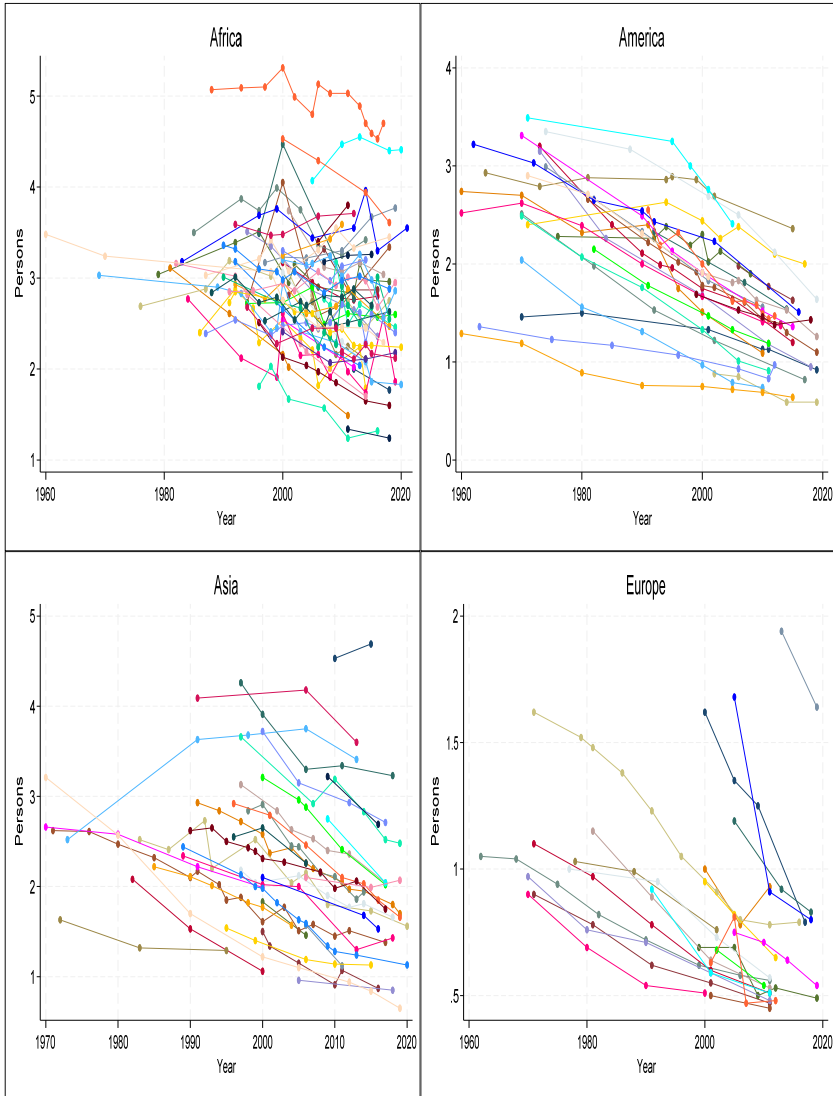
한편, 가구당 20~64세 가구원 수에서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이 우세하지만, 20세 미만 가구원과 비교할 때 변화 폭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3-11]의 우측 참고). 129개 국가(지역) 가운데 96개국(74.42%)에서 근로 연령대(20~64세) 가구원 수가 감소했으며, 32개국(24.81%)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²²⁾ 또한 국가(지역)별 변이에서도 20세 미만 가구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가(지역) 간 격차가 작게 나타난다.

[그림 3-12]는 가구당 20세 미만 평균 가구원 수를 대륙별로 구분하여 추세를 보여 준다. 대륙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앞의 [그림 3-11]과 비교하여 가구당 20세 미만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좀 더 뚜렷하게 관측됨을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20세 미만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관측되지만,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패턴이 뚜렷하지는 않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프리카 대륙도 내부적인 변이가 작지 않은 지역이다. 별도의 그래프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UN이 분류하는 5개 지역(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으로 구분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외되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세 미만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관측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한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20세 미만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추세는 상당히 뚜렷하게 관측된다. 반면에 사하라 이남 지역 가운데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추세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22) 가구당 근로 연령대 가구원 수(평균)에서 변화가 없는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다.

[그림 3-12] 대륙별 가구당 20대 미만 평균 가구원 수의 추세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산출함; 2 시점 이상 사례가 제한적인 오세아니아 대륙은 제외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특히 동아프리카(범위 1.83~4.47명) 및 중앙아프리카(범위 2.02~4.05명) 지역과 비교할 때 서아프리카 지역(범위 1.74~5.31명)은 20세 미만 평균 가구원 수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참고로, UN의 2024년판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에 의하면 2023년의 합계출산율(TFR) 추정치는 중앙아프리카 5.51명, 서아프리카 4.44명, 동아프리카 4.11명, 북아프리카 2.95명, 남아프리카 2.30명으로 보고된다(UN, 2024).

가구통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UN의 분류 체계(방식)에 기초한 기본 가구 유형과 세대 구성을 살펴본다.²³⁾ UN(2022a)의 가구통계에서 가구 유형(basic household types)은 1인 가구(one-person), 부부 단독 가구(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 가구 포함; couple only), 부부 자녀 가구(couple with children), 한부모 가구(부/모+자녀; single parent (mother/father) with children), 확대 가구(extended family), 비친족 가구(non-relatives)로 분류된다.

라트비아(41.08%)와 핀란드(41.01%)의 사례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은 이미 앞에서 가구 규모별 가구의 분포에서 살펴본 바 있다. 유럽 내부에서는 서유럽의 1인 가구 구성비(평균)가 34.94%로 가장 높고, 북유럽(33.62%), 동유럽(27.16%), 남유럽(17.97%)의 순서를 보인다. 북미 지역의 1인 가구 구성비(30.10%)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1인

23)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 가구 유형의 분석에서는 전체 정보가 결측이거나 가구 유형별 구성비의 합계에서 정보의 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만 제외하였다(20개). 이들을 제외한 176개 국가(지역) 가운데 37개 국가(지역)는 한부모 가구(부/모+자녀)의 세부적인 유형(부+자녀 또는 모+자녀)이 식별되지 않는 동시에 확대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국가(지역)의 경우에도 가구 유형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결측 가구의 구성비(unknown) 정보는 제공된다. 확대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분석에서는 이들 국가(지역)(37개)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다. 특히 남아시아(3.95%), 북아프리카(4.63%), 중앙아시아(7.85%) 등에서는 1인 가구의 구성비가 10% 미만으로 보고된다.

부부 단독 가구는 호주-뉴질랜드(24.47%), 서유럽(24.32%), 북미(23.7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독일(28.39%), 생피에르 미클롱(27.64%), 핀란드(26.88%), 생바르텔레미(26.69%), 스위스(26.49%), 영국(26.36%), 프랑스(25.80%), 캐나다(25.58%), 벨라루스(25.40%)는 전체 가구의 1/4 이상이 부부 단독 가구이다. 반면에 세네갈(1.19%), 기니비사우(1.73%), 아프가니스탄(1.97%) 같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지역)에서는 부부 단독 가구가 전체 가구의 2% 미만으로 매우 낮다.

가구 유형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비에서 관측되는 변이는 상당히 크게 관측된다. 북아프리카(60.08%)와 서아시아(50.89%) 지역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과반이다. 시리아(73.92%), 팔레스타인(71.58%), 요르단(67.52%), 알제리(65.05%), 이집트(65.04%), 이란(64.70%), 튀니지(60.77%)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다. 반면에 보츠와나(10.32%), 나미비아(11.89%), 에스와티니(14.11%) 같은 남아프리카 국가(지역)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비는 15% 미만으로 매우 낮다. 참고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비가 낮은 이들 국가(지역)에서는 가구 유형 가운데 확대 가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한부모 가구의 구성비(평균)는 중남미(13.32%), 동아프리카(12.43%), 중앙아프리카(11.13%), 남아프리카(10.64%), 북유럽(10.23%) 지역에서 10% 이상이다. 반면에 서아시아 등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부모 가구의 구성비가 낮게 보고된다. 개별 국가(지역) 기준으로는 북유럽에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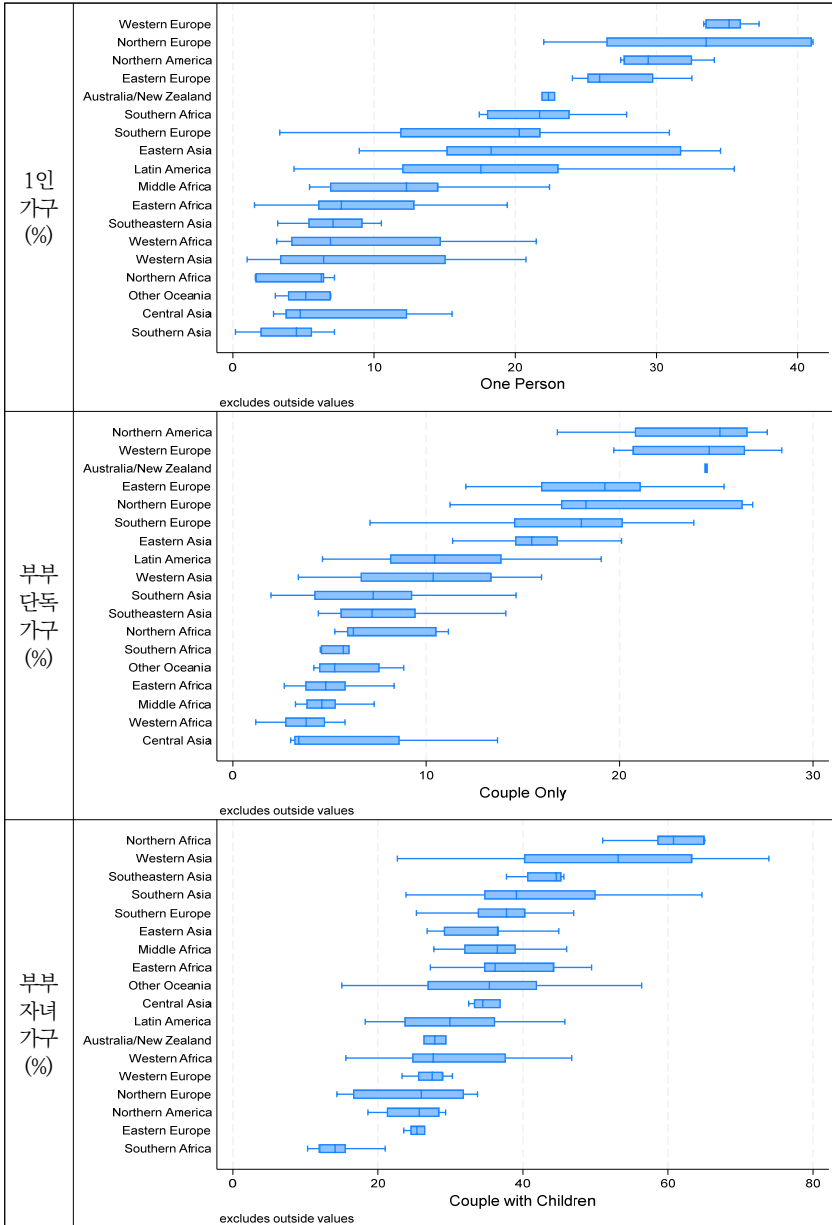
한 라트비아(22.07%), 중남미에 속한 과들루프(21.17%), 생마르탱(21.12%), 마르티니크(20.82%), 프랑스령 기아나(20.02%)의 한부모 가구의 구성비가 전체 가구의 1/5 이상으로 나타난다. 한부모 가구의 세부 유형별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지역)(139개) 가운데 대부분은 모(母)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이다. 국가(지역) 기준으로 부(父)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의 구성비는 중남미 지역에 속한 바베이도스(3.14%), 자메이카(3.02%), 세인트루시아(3.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다.²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마찬가지로 확대 가구의 구성비에서 관측되는 지역별 변이도 상당히 크다. 확대 가구(평균)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45.70%), 서아프리카(43.49%), 중앙아시아(40.46%)에서 구성비가 40% 이상으로 보고된다. 반면에 북유럽(4.40%), 북미(7.21%), 서유럽(7.61%)에서 확대 가구의 구성비는 10% 미만이다. 개별 국가(지역) 기준으로는 서아프리카 및 기타 오세아니아 지역에 속한 기니비사우(67.80%), 세네갈(62.70%), 투발루(60.69%)에서 확대 가구의 구성비가 60% 이상이다. 반면에 영국(4.22%), 아일랜드(4.58%), 캐나다(5.39%) 같은 북유럽과 북미 국가에서 확대 가구의 구성비가 상당히 낮게 보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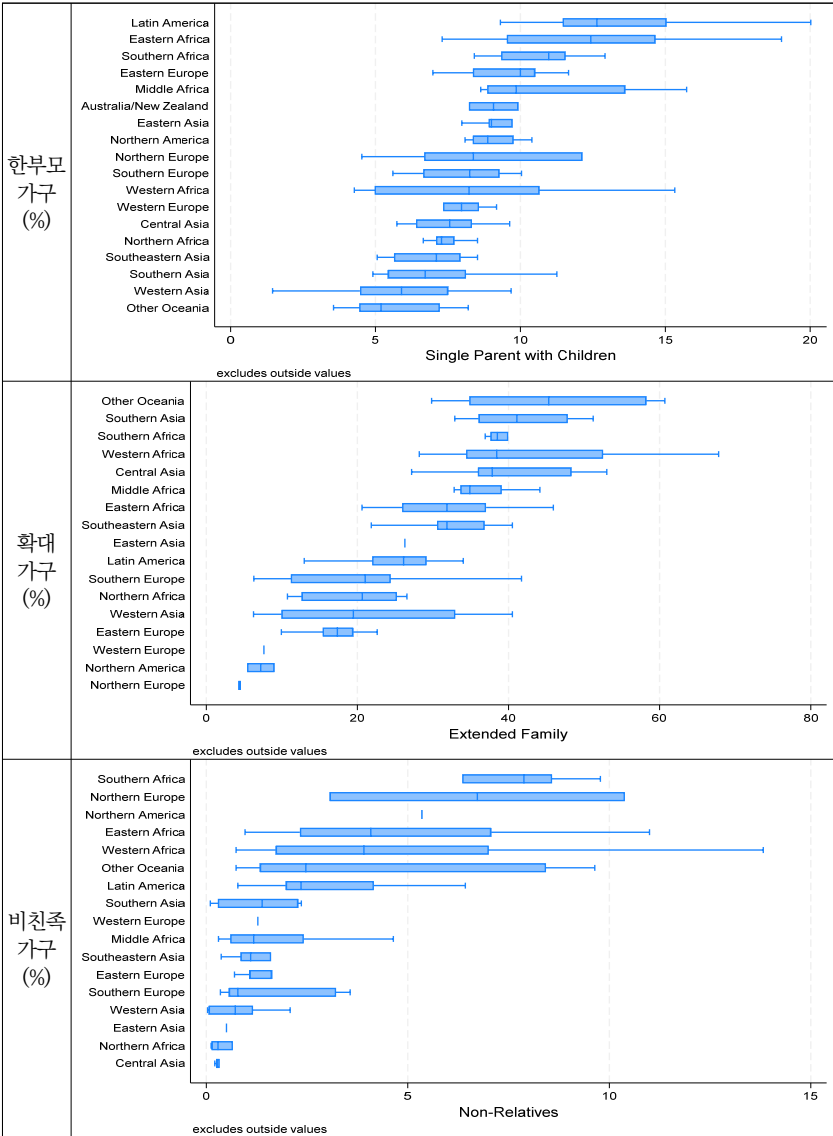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을 아울러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비친족 가구 구성비(평균)가 7.06%, 북유럽이 6.73%, 북미가 5.3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개별 국가(지역) 기준으로는 카타르(20.73%), 감비아(13.82%), 탄자니아(11.00%), 아일랜드(10.39%)에서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가 10% 이상이다.

24)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부모 가구의 구성비가 보고되는 국가 가운데 37개 국가(지역)의 경우 하위 유형에 관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도 포함된다.

[그림 3-13] 기본 가구 유형의 지역별 패턴



86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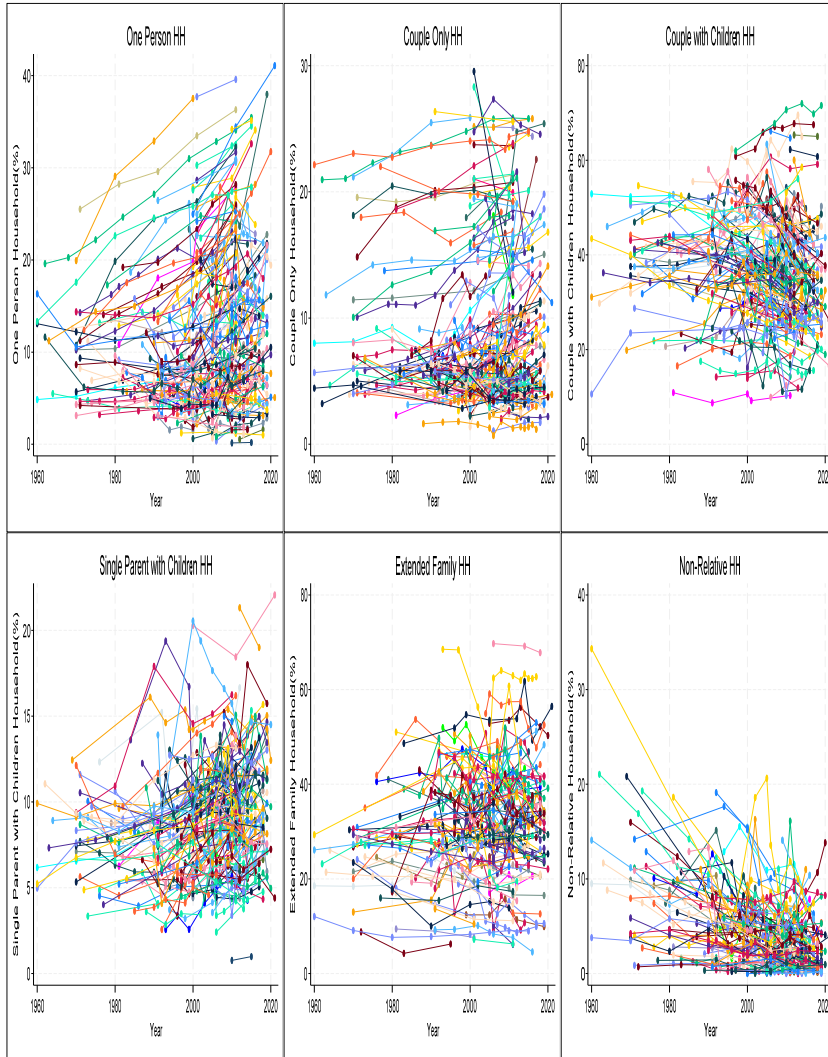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에서 제공되는 176개(1인 가구, 부부 단독 가구, 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및 139개(확대 가구, 비친족 가구)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 유형의 추이를 보면 일부 가구 유형에서 방향성이 관측되기도 하지만, 국가(지역)별 이질성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예외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14]는 1인 가구의 구성비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단독 가구에서도 일부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에 비해 그 추세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한부모 가구의 구성비는 증가세,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는 감소세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자녀 가구와 확대 가구의 구성비에서는 뚜렷한 패턴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륙(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할 때 기본 가구 유형에서 관측되는 이러한 추세는 유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그 전개 양상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림 3-15]는 가구변동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한정하여 가구 유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추세를 보여 준다. 앞서 살펴본 [그림 3-14]와 비교할 때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가구 유형의 변화에서 추세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한정하면 1인 가구는 뚜렷한 증가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부부 단독 가구와 한부모 가구도 뚜렷한 상승 패턴을 보여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부 자녀 가구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준다. 확대 가구에서도 부분적으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추세가 불명확한 국가(지역)도 일부 존재한다. 한편,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일부 상승세를 보인다. 참고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가 일부 증가하는 현상은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 가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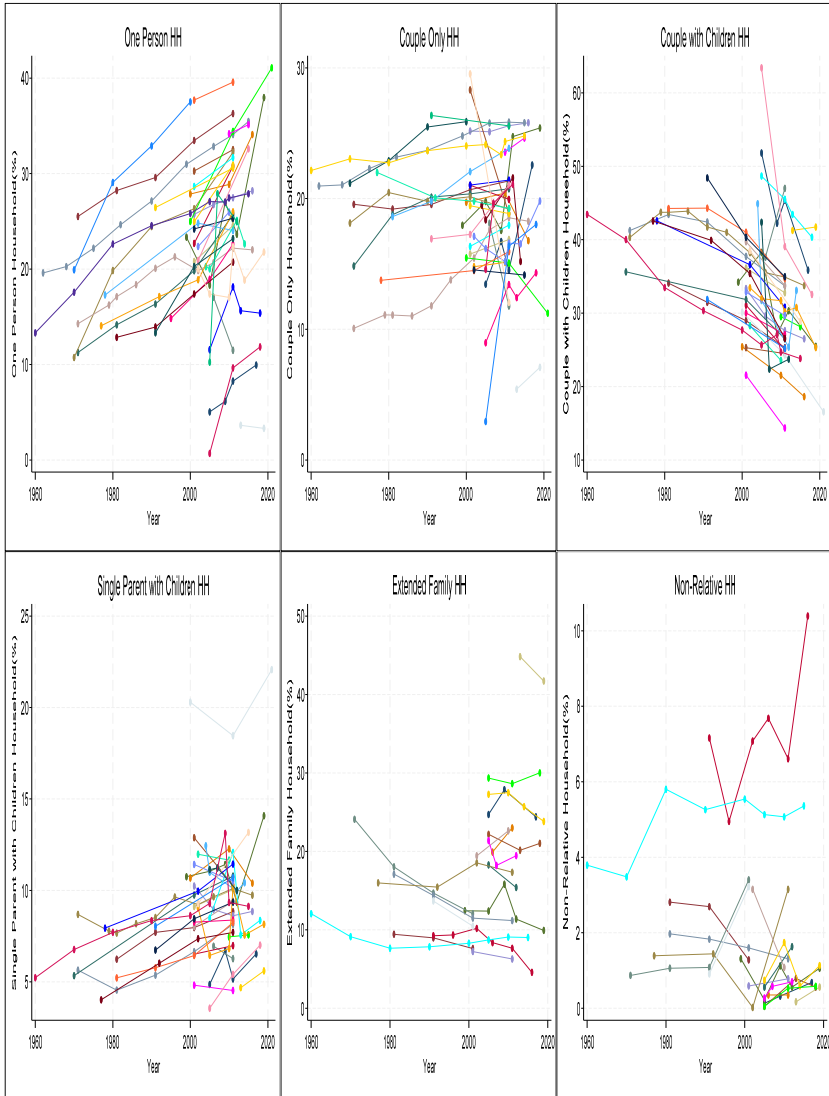
[그림 3-14] 기본 가구 유형의 추세: 전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지역)에 기초하여 산출함(1인 가구 151개국, 부부 단독 가구 148개국, 부부 자녀 가구 146개국, 한부모 가구 146개국, 확대 가구 123개국, 비친족 가구 123개국).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그림 3-15] 기본 가구 유형의 추세: 유럽 및 북미 지역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 시점 이상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유럽 및 북미 국가(지역)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마지막으로 UN의 가구통계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세대 유형에 관한 변수로는 다세대 가구(multi-generational household), 3세대 가구, 조손 세대 가구(skip-generation household)가 있다([그림 3-16] 참고). UN의 가구통계에서 다세대 가구는 2세대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가구원은 20세 이상의 친족 가구원을 의미한다. 이와 다르게 3세대 가구는 가구원의 연령과 관계없이 3세대 이상 친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한편, 조손 세대 가구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되 손자녀의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한다. UN 가구통계의 세대 유형 변수에서는 137개 국가(지역)의 정보가 제공된다(가장 최근 자료 기준).

2세대 이상의 성인(20세 이상) 가구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구의 구성비(평균)는 중앙아시아(50.28%), 남아시아(46.10%), 서아시아(40.05%) 같은 아시아 지역,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46.2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다. 유럽 대륙에서는 남유럽 지역(41.85%)에서 다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북미(15.82%)와 북유럽(17.89%) 지역에서 다세대 가구의 구성비는 2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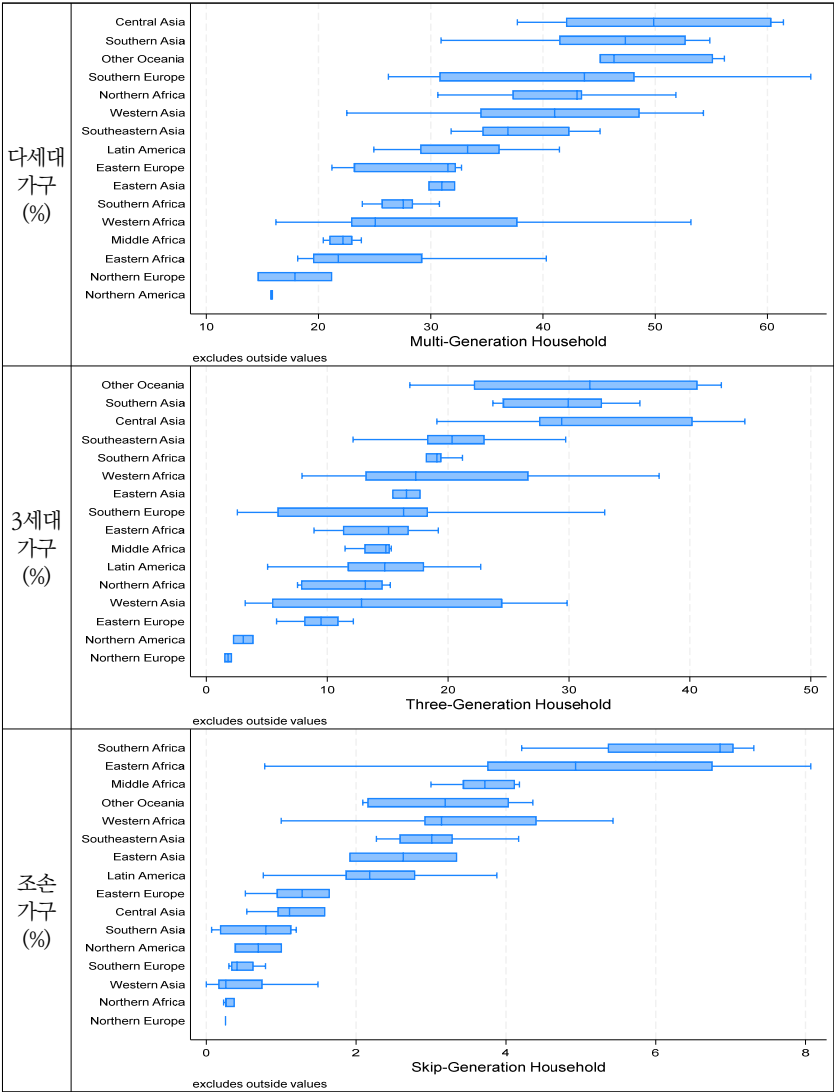
개별 국가 기준으로는 코소보(63.86%), 투르크메니스탄(61.43%), 타지키스탄(60.34%) 같은 남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속한 지역의 다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60% 이상으로 보고된다. 이 외에도 투발루(56.17%), 사모아(55.15%), 파키스탄(54.87%), 아르메니아(54.30%), 몰디브(54.15%), 세네갈(53.19%), 알제리(51.85%), 조지아(51.80%), 마케도니아(51.47%), 인도(51.28%), 아프가니스탄(50.39%)의 다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전체 가구의 과반으로 보고된다. 반면에 영국(14.57%),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14.91%), 미국(15.70%), 캐나다(15.94%), 니제르(16.20%), 앙골라(17.54%), 모잠

비크(18.14%), 말라위(18.23%), 우간다(19.16%), 브룬디(19.51%), 코트디부아르(19.75%), 나이지리아(19.78%), 짐바브웨(19.85%)에서는 다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20% 미만으로 낮은 모습을 보인다.

연령 조건 등 지표를 정의하는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세대 가구의 구성비는 대체로 다세대 가구의 지역별 패턴과 유사하다. 중앙아시아(32.15%), 남아시아(26.66%),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30.94%)의 구성비(평균)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다. 반면에 북유럽(1.81%)과 북미(3.05%) 지역에서 3세대 이상 가구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개별 국가(지역) 기준으로 보면 타지키스탄(44.55%), 투발루(42.61%), 사모아(40.64%), 투르크메니스탄(40.23%)의 3세대 이상 가구의 구성비가 40% 이상이다. 반면에 영국(1.48%), 아일랜드(2.13%), 캐나다(2.19%), 이탈리아(2.56%)에서 3세대 가구의 구성비는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조손 세대 가구는 전반적으로 제한된 분포 양상을 보여 준다. 조손 세대 가구는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료가 제공되는 137개 국가(지역) 가운데 15개 국가(지역)에서 조손 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5%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들 15개 국가(지역)는 말라위(8.07%), 짐바브웨(7.78%), 에스와티니(7.31%), 레소토(7.04%) 등으로 태국(6.72%)을 제외하고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지역)이다.

[그림 3-16] 세대 유형별 가구의 지역별 패턴



주: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137개 국가(지역)의 가장 최근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출처: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United Nations, 2022a,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25. 4. 1. 검색.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제3절 종합 및 소결

이 장에서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가구변동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의 제약성이 여전히 상당하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가구변동의 국제적 동향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간(국가-지역) 및 시간을 가로지른 복잡한 전개 양상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소규모의 단순한 가구 유형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관측이 시작된 초기 시점의 가구 규모가 큰 국가(지역)일수록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패턴이 더욱 뚜렷하게 관측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점진적인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현상은 대체로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감소 및 고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증가 현상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이는 후속적으로 가구(주)의 연령 분포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 현상은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가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울러 이루어진 출산율 감소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체 가구 대비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감소하고 고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증가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확대 가구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의 구성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선진국에서 최근까지 관측되는 추세는 인구 고령화가 확대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가구 같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되지만,

가구의 구성에서는 가구의 규모와 같은 정도로 수렴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지역 등을 중심으로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가구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나 확대 가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패턴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유럽, 북아메리카, 호주-뉴질랜드처럼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사한 가구변동의 양상이 관측된다는 점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가구변동의 전조를 일정 부분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서 관측되는 국가 간 다양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럽 대륙이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권역별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남유럽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권역과 비교할 때 확대 가구나 부부 자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가구의 비중이 낮은 패턴을 보인다. 선행 연구(Fokkema & Liefbroer, 2008; Kuijsten, 1996) 또한 가구변동에서 유럽 내의 권역별 차이가 대체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가구변동이 수렴과 동시에 개별 국가(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아울러 나타나는 출산율의 감소, 혼인율의 하락과 혼인 해체의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미래 가구변동이 전개될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구변동이 전개되는 세부적인 양상은 개별 국가(지역)가 발전해 온 다양한 맥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장

한국의 가구변동 양상과 인구학적 기초 분석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2절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 분석

제3절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 분석

제4장 한국의 가구변동 양상과 인구학적 기초 분석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가구변동의 양상과 인구학적 기초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소개한다. 가구변동에 관한 본 연구의 핵심 자료원은 센서스 표본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부터 이루어진 ‘국세조사’에 기원을 둔다. 해방 후인 1949년(5월 1일 기준)에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55년(9월 1일 기준)에는 ‘간이 총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복 및 한국전쟁 전후에 이루어진 이들 조사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이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의 영향으로 조사의 계획과 실행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이 지적된다(김민경, 2002, p. 26).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면모를 갖춘 본격적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대에 이르러 실시되었다. 1960년에 이루어진 센서스는 UN의 기술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1949년과 1955년 센서스에 적용된 현주(de facto) 인구 대신에 현재와 같은 상주(de jure) 인구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60년의 센서스는 또한 인구 항목에만 한정된 기존 센서스와 달리 주택 사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김가은, 전광희, 2020, p. 107).²⁵⁾

25) 참고로, 1960년 센서스는 연령을 만 연령 대신에 ‘세는 나이’ 기준으로 조사함으로써 만 연령에서 0세가 없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김가은, 전광희, 2020, p. 107).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보다 1년 늦게 이루어진 1966년 센서스에서 또다시 주택 부문이 제외되었다. 주택 부문은 1970년 센서스부터 다시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1980년 센서스에서는 기준 시점이 현재와 같은 11월 1일로 변경되었다. 1960년 센서스에서 처음 도입된 표본조사 방법은 1985년 센서스에서 모든 조사 항목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지만, 1990년 센서스부터 다시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김민경, 2002, p. 28).²⁶⁾ 가장 최근의 변경 사항으로 2015년 센서스부터는 현장 조사(전수)를 하지 않는 대신에 행정 자료에 기초하는 동시에 표본조사의 규모를 20%로 확대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가구 단위의 통계가 제시되지만, 개인(인구)이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가구변동의 양태를 분석하는 이 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구’가 아니라 다양한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개인’이다.²⁷⁾ 분석 단위가 가구가 아니라 개인인 것은 이 연구가 다양한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개인(집단)의 생애에 걸친 가구변동의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구 자체가 어떤 변화를 이끌고 경험하는 행위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연구가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 즉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같은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가구변동에 초래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가구가 아닌 인구학적 속성을 보유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분석이

26) 다만, 1960년의 표본조사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신속한 집계 목적으로 20% 표본을 추출하였기에 엄밀한 의미의 표본조사 방식이 아니다. 현재의 센서스에서 사용되는 표본조사 방식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 센서스이다. 표본의 규모는 1975년 5%, 1980년 15%, 1966년, 1970년, 1990~2010년은 10%, 2015년은 20%이다. 1985년은 전수조사만 이루어졌다(김가은, 전광희, 2020, p. 107).

27) 분석 단위에 따라 지표가 갖는 함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평균 가구 규모(average household size)는 분석 단위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가구를 분석 단위로 하면 평균적 가구의 가구 규모(size of the average household)를 측정하지만,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면 평균적 개인의 가구 규모(size of the average person's household)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수치가 더 큰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규모가 큰 가구에 속한 개인에게 더 큰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모든 가구의 가구원 수가 동일하면 두 지숫값은 일치하게 된다.

필요하다. 가구 단위의 분석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 단위에 기초한 가구변동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참고로,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특징 분석은 ‘가구 단위’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다. 이는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가구 단위의 정보 수집과 분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 단위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미시 자료를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센서스 2% 표본 자료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가구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센서스 표본 자료가 제공되는 1960년대 이후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구 구조 변화의 추이와 양상을 분석하는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 표본이 제공하는 가구 관련 정보(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해 센서스 간 비교의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도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센서스의 역사에서 주택 부문은 1960년 센서스에서 조사 항목으로 처음 포함되었으며, 이후 1966년 센서스에서 제외되었다가 1970년 센서스부터 다시 편입되었다.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센서스 2% 표본 가운데 ‘인구’ 사항은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자료가 제공되지만, ‘가구-주택’ 사항은 1975년 자료부터 제공된다. 비록 1960년 센서스에서 주택 부문이 조사되었지만, 현재 통계청이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는 가구-주택 표본은 1%에 국한된다.

가구변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자료에서 사용되는 가구 관련 정보 분류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1960년 센서스 이후 가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

센서스는 가구를 개인 가구와 집단 가구로 구분하였다. 개인 가구에는 혈연 가구와 1인 가구가 포함되며, 집단 가구에는 집단시설 가구와 5인 이상의 비혈연 가구가 포함된다. 참고로, 1960년 센서스에서는 4인 이하의 비혈연 동거인이 있는 가구를 혈연 가구로 분류하였다.²⁸⁾

〈표 4-1〉 센서스의 가구 구분: 1960~2020년

연도	1960년	1966년	1970~1975년	1980~2020년
가구 구분	[개인 가구] • 혈연 가구 (4인 이하 비혈연 동거인 포함) • 1인 가구	[보통 가구] • 혈연 가구 • 1인 가구 (독립 조리 시설 有)	[보통 가구] • 혈연 가구 • 1인 가구	[일반 가구] • 혈연 가구 •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1인 가구
	[집단 가구] • 집단시설 가구 • 비혈연 5인 이상 가구	[준가구] • 1인 가구 (독립 조리 시설 無) • 기타 준가구	[준가구] • 집단시설 가구 • 비혈연 가구	[집단 가구] • 집단시설 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외국인 가구]	[외국인 가구]	[외국인 가구]	[외국인 가구]
기준일	12월 1일	10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주: 1960년 센서스에서 4인까지의 비혈연 동거인은 세대의 동거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개인 가구(혈연 가구)로 조사됨; 1966년 센서스에서 독립된 조리(부엌) 시설이 있는 1인 가구는 보통 가구, 독립된 조리(부엌) 시설이 없는 1인 가구는 준가구로 조사됨.

출처: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김민경, 2002, 통계청, p. 27 및 p. 32의 표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추가)하고 최근 센서스로 확장함. 저작권 2002. 통계청.

주택 부문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1966년 센서스에서는 가구를 보통 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였다. 1966년 센서스에서 사용된 가구 분류상의 특징은 독립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1인 가구를 보통 가구로

28) 참고로, 〈표 4-1〉에서 일괄적으로 ‘외국인 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1970년 이전 센서스에서 외국인 가구를 공식적인 가구 유형의 하나로 분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상주인구 개념에 기초한 센서스에서 상주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조사 대상이었다. 최근의 센서스 자료에서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현황을 보여 주지만, 통계청이 제공하는 과거 센서스 자료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분류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1인 가구는 준가구로 분류한 점이다. 준가구는 독립적인 취사 시설이 없는 1인 가구와 기타 준가구로 구분된다. 1970년대의 센서스도 1966년과 마찬가지로 가구를 보통 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였다. 보통 가구는 혈연 가구와 1인 가구로 분류하였는데, 독립적인 조리 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1인 가구를 보통 가구로 분류하였다. 준가구는 집단시설 가구와 비혈연 가구로 분류하였다.

가구의 분류 체계는 1980년 센서스부터 현재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1960~2020년의 기간에 걸쳐 집단(준) 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하고 일반(개인, 보통)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센서스에서 가구 분류 체계의 변천 과정은 1980년 이후가 분석 대상 기간으로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개인 자료에 기초하여 가구변동을 분석하는 이 연구에서 가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변수는 가구주와의 관계이다. <표 4-2>는 1960년 이후 센서스 자료에서 제공되는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의 주요 변천 사항을 보여 준다. 가구주 본인과 가구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 구분은 시기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자녀 범주에서는 1960년과 1966년 센서스에서 혼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1970~1990년 기간에는 미혼 자녀만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기간에 걸쳐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1995년부터 다시 자녀의 혼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는데(미혼+기혼), 이는 자녀(기혼)의 배우자를 별도의 범주로 구성하는 것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에 관한 분석이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혼인 상태 정보와 결합한 후 미혼 자녀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 범주는 1960년과 1966년 센서스에서 가구주의 부모만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이 기간에 배우자 부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1970년 센서스부터 배우자의 부모가 별도의 범주로 구성되지만,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통합 범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주/배우자’의 부모와 ‘가구주’의 조부모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시계열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전체 기간에 걸쳐 가구주의 부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며(2005년), 가구주 부부(가구주+배우자)의 부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1960년, 1966년, 2005년). 다만, 2005년 센서스에서도 가구-주택 부문의 별도 정보(세대 구성)를 활용하면 가구주 부부의 부모와 조부모를 추가로 구분할 수 있다.

손자녀(손주)는 1960년과 1966년 센서스에서 별도의 범주로 구성되었지만, 1970~1990년 기간에는 별도의 범주로 구성되지 않았다. 1995년 센서스부터 손자녀 범주는 손자녀의 배우자와 통합되어 별도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다만, 증손자녀(+배우자) 범주도 1995년 센서스부터 별도의 범주로 구성되었는데, 2005년 센서스에서는 손자녀(+배우자)와 증손자녀(+배우자)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전반적으로 손자녀 범주는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주로 분류된다. 조부모 범주는 대체로 일관성 있게 별도의 범주로 구성되었지만, 1966년 센서스에서는 조부모 범주에 그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하나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5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의 조부모가 가구주/배우자의 부모와 통합되어 하나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표 4-2〉 센서스의 가구주와의 관계 주요 구분 사항: 1960~2020년

구분	가구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1960년	○	○	○ (기혼+미혼)	○ (배우자 부모 미구분)	○	○	X
1966년	○	○	○ (기혼+미혼)	○ (배우자 부모 미구분)	○	○ (형제자 매 포함)	○ (기혼+미혼)
1970년	○	○	○ (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X	○	○ (미혼)
1975년	○	○	○ (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X	○	○ (미혼)
1980년	○	○	○ (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X	○	○ (미혼)
1985년	○	○	○ (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X	○	○ (미혼)
1990년	○	○	○ (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X	○	○ (미혼)
1995년	○	○	○ (기혼+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 (+배우자)	○	○ (미혼+기혼/ 배우자)
2000년	○	○	○ (기혼+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 (+배우자)	○	○ (미혼+기혼/ 배우자)
2005년	○	○	○ (기혼+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미구분) (조부모 범주와 미구분)	△ (+배우자) (증손자/배 우자 범주와 미구분)	△ (부모 범주와 미구분)	○ (미혼+기혼/ 배우자)
2010년	○	○	○ (기혼+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 (+배우자)	○	○ (미혼+기혼/ 배우자)
2015년	○	○	○ (기혼+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 (+배우자)	○	○ (미혼+기혼/ 배우자)
2020년	○	○	○ (기혼+미혼)	○ (가구주/배우자 부모 구분)	○ (+배우자)	○	○ (미혼+기혼/ 배우자)

주: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기혼+미혼)가 조사됨;
1995년부터 자녀의 배우자가 별도로 조사됨.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6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는 1966년 센서스부터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지만 범주의 구성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 1966년 센서스에서 형제자매의 혼인 상태 구분이 없었지만, 1970~1990년 기간에는 가구주의 미혼 형제자매만이 독립적인 범주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동일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별도의 범주로 조사되었는데, 가구주의 형제자매와 달리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혼인 상태의 구분이 없었다(미혼+기혼). 이후 1995년 센서스부터 혼인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통합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으로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도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주에 속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센서스 표본(2%) 자료의 제공 현황 및 센서스에서 사용된 가구의 구분 방식과 가구주와의 관계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1980~2020년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본다.²⁹⁾ 다만, 1980~2020년 기간으로 한정하더라도 센서스 간 정보의 일관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한 문제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다.

가구변동에 관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가구변동과 더불어 가구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기에 가구 유형의 분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가구의 유형에 관해서는 다양한 분류 방법이 사용된 바 있다.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분류 방식(예, Santi, 1988; Sweet, 1984)이 많이 사용되지만, 최소 단위 가구(Minimal

29) 통계청이 제공하는 2% 표본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 항목이 다양한 최초 표본(5~20%) 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1960년과 1985년은 전체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2% 표본 자료의 항목은 전수조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1975년(5%)과 1980년(15%)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모두 실시되었음에도 전수조사에서 2% 표본을 추출하여 제공되고 있다(김가은, 전광희, 2020, p. 108).

Household Unit: MHU)에 기초한 분류(Ermisch & Overton, 1985), 가족 핵(family nucleus) 중심 분류(UN, 2017) 등 대안적인 분류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Ermisch & Overton(1985, pp. 36-37)의 MHU는 가구 내에서 인구학적 실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최소 집단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MHU로 ① 무자녀-무배우 성인, ② 한부모 가구, ③ 부부 단독 가구, ④ 피부양 자녀와 동거하는 부부 가구를 언급한다. 한편, UN(2017, p. 197)의 가족 핵 중심 분류는 가구를 ① 1인 가구, ② 핵 가구(nuclear household), ③ 확대 가구(extended household), ④ 복합 가구(complex household)로 분류한다.

아래에서는 이 장에서 분석하는 가구 유형별 가구변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가구 유형’을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가구 유형은 이 연구의 분석 자료인 센서스 표본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한다.³⁰⁾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구의 유형은 ‘가구 유형(구분)’이나 ‘세대 유형(구성)’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제공된다. 특히 세대는 1세대에서 4세대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구분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명한 방식으로 가구의 유형을 구분한다. 다만, 가구 유형의 분류에서 어떤 고정된 개인(가주, 준거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는 대신에, 가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가능한 한 자세히 파악하고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가구 유형의 분류는 특히 가구에 거주하는 비친족 구성원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가구

30) 이러한 접근은 선행 연구 가운데 우해봉(2025)과 Stockmayer(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주, 준거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류에서 비친족 구성원은 잔여적 범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가구변동의 양상을 보여 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Stockmayer, 2004, pp. 14-15).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cohabiting couple)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본적인 가구 유형 분류는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단시설 가구와 6인 이상 비친족 가구를 아우르는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는 2% 표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³¹⁾ 일반 가구는 ① 친족 가구, ② 친족-비친족 가구(친족과 비친족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③ 비친족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구 유형 분류에서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외국인 가구’로 별도로 구분한다. 참고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일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집단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친족 가구는 ① 부부 단독 가구(couple-only household), ② 부부 자녀 가구(couple with child household), ③ 한부모 가구(single parent household), ④ 확대 가구(extended household)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부부 단독 가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는 UN(2017, pp. 196-197)이 정의하는 ‘가족 핵’(family nu-

31) 비록 사례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센서스 2% 표본 가운데 2005년까지의 자료에서는 일반 가구와 집단 가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센서스 2% 표본 구축 과정에서 통계청은 가구 자료의 ‘가구(가구 구분)’ 변수(예컨대, 1980년 파일 설계서 및 코드집의 순번 12)의 범주(주 가구, 동거 가구, 집단 가구)를 기준으로 집단 가구를 제외했지만, 다른 변수(예컨대, 순번 5 가구 구분)에서는 여전히 집단 가구로 분류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계청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순번 5)이 집단 가구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가구 구분, 세대 구성, 가구 주와의 관계 정보가 결측인 사례들을 제외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료를 중심으로 가구 정보에서 변수 간 불일치가 존재함에 유의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cleus)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며, UN은 하나의 가족 핵으로 구성된 가구를 핵 가구(nuclear household)로 명명한다. UN의 정의에서 핵 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무배우 자녀이다(사별/이혼 자녀 포함).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유배우 자녀와 동거하는 부부나 부(父) 또는 모(母)는 핵 가구가 아니라 확대 가구로 분류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1970~1990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미혼 자녀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부부 자녀 가구의 자녀는 미혼 자료로 국한한다.

친족 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확대 가구는 3세대 이상 가구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핵 가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친족 가구를 아우르는 잔여 범주에 속한다. ‘확대 가구’ 용어는 UN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 외의 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대가족’이나 ‘확대 가족’ 용어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UN의 가구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UN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용어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필요시 ‘확대 가구’와 ‘기타 친족 가구’ 용어를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장에서 사용하는 ‘확대 가구’ 용어는 가구변동의 국제 동향에 관한 제3장의 용어 사용과 동일하다.³²⁾

친족 가구에 혼인, 혈연, 입양으로 관계되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포함

32) UN은 확대 가구를 확대 가족 가구(extended family household)로 명명하기도 한다(UN, 2022a). 여기에서 ‘확대 가족’은 가구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부부, 부부와 자녀, 부(父)와 자녀, 모(母)와 자녀 이외의 친족원이 동거하는 가구를 확대 가족으로 이해한다(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2006, p. 110). 이에 따라 UN의 분류 체계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 가구도 확대 가족에 포함된다. UN이 ‘확대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센서스 목적으로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정의됨에 유의해야 한다.

된 가구가 친족/비친족 가구(⑤)이다. 마지막으로, 비친족 가구는 1인 가구(⑥)와 5인 이하 비친족 가구(⑦)로 구성된다. 참고로, UN(2017, p. 197)의 가구 분류 체계에서는 친족/비친족 가구(⑤)와 5인 이하 비친족 가구(⑦)를 아울러 복합 가구(composite household)로 명명된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상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unmarried cohabiting couple) 가구는 5인 이하 비친족 가구, 이러한 동거 커플 관계에서 자녀가 있으면 친족/비친족 가구로 분류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의 센서스 조사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으면 친족/비친족 가구가 아니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분류된다.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발생 빈도가 낮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 혹은 동거 커플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비친족 가구나 친족/비친족 가구보다는 친족 가구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 가구 유형의 분류 도식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 ⑩	
친족 가구			친족/ 비친족 가구 ⑤	비친족 가구					
핵 가구				확대 가구 (기타 친족 가구) ④	1인 가구 ⑥	5인 이하 비친족 가구 ⑦	6인 이상 비친족 가구 ⑧		집단 시설 가구 ⑨
부부 단독 가구 ①	부부 자녀 (미혼) 가구 ②	부/모 자녀 (미혼) 가구 ③							

주: 표기에서 '부/모'는 부(父) 또는 모(母)를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앞에서 언급한 가구 유형에 대한 분류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전반적인 가구변동을 분석함과 함께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변화의 추세와 양상을 살펴본다. 전반적인 가구변동 분석에서는 ① 평균 가구 규모, ② 가구 규모별 분포, ③ 성별-연령(가구 내 평균/최소/최고 연령, 가구원 간 연령 변이/격차 등) 분포, ④ 친족 및 비친족 관계 등 가구 내에서 개인이 형성하는 관계 구조의 분석(관계별 규모 및 분포), ⑤ 전체 인구의 가구 유형별 분포와 추세 및 특징을 분석한다. 이에 추가하여 가구 유형의 권역별 분포도 살펴본다. 하위 가구 유형별 분석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인구 규모 및 전체 인구 대비 분포, 평균 가구 규모, 평균 연령, 세대 분포 등 가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다만, 가구 유형별 세부적인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공통의 지표를 사용하는 대신에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사용한다.³³⁾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표 4-3>은 전체 및 가구 유형별 가구 규모의 추이를 보여 준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기에는 센서스 표본(2%)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에 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구에 관한 정보와 함께 우리나라 총인구에 관한 정보도 참고 목적으로 수록하였다(추계인구(연앙인구) 기준;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 2023년은 중위 전망치). 참고로, <표 4-3>에서 제공되는 가구 정보의 단위는 ‘가구’(천 가구)로, 이 연구(제4장)가 초점을 맞추는 ‘개인’ 단위 분석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의 가구 수는 2,272만 8천 가구로 1980년(800만 2천 가구)에 비해 대략 2.8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걸쳐 1.4배 정도 증가한

33) 전체 및 가구 유형별 분석 지표의 선정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가구변동에 관하여 가장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 Stockmayer(2004)의 분석 지표들을 참고하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청 자료의 특성에 맞춰 수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인구(추계인구)의 증가(3,812만 4천 명 → 5,171만 3천 명)와 비교할 때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구 수의 증가세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표 4-3>에 기초하여 산출해 볼 수 있듯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관측되는 연평균 가구 증가율(exponential growth rate)은 1980년대에 3%를 넘었지만(1980~1985년 3.66%, 1985~1990년 3.38%),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5~2020년에는 2%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2023년까지도 전체 가구 대비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의 비중은 3%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센서스부터 외국인 가구의 비중(1.22%)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전체 가구 대비 외국인 가구의 비중은 2.80%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 가구 내에서 친족 가구의 구성비는 1980년에 93.73%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현재 친족 가구의 구성비는 일반 가구의 62.06%까지 감소하였다.³⁴⁾ 일반 가구 내에서 5인 이하 비친족 가구는 1980년 1.47%에서 2023년에 2.47%까지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의 구성비는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 가구 내에서 1인 가구의 구성비는 1980년 4.8%에서 2023년에 35.47%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는 2022년부터 전체 가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34) 명확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지만, 통계청의 분류 체계상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5인 이하 비친족 가구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인구 및 전체/유형별 가구 규모: 1980~2023년

(단위: 천 명,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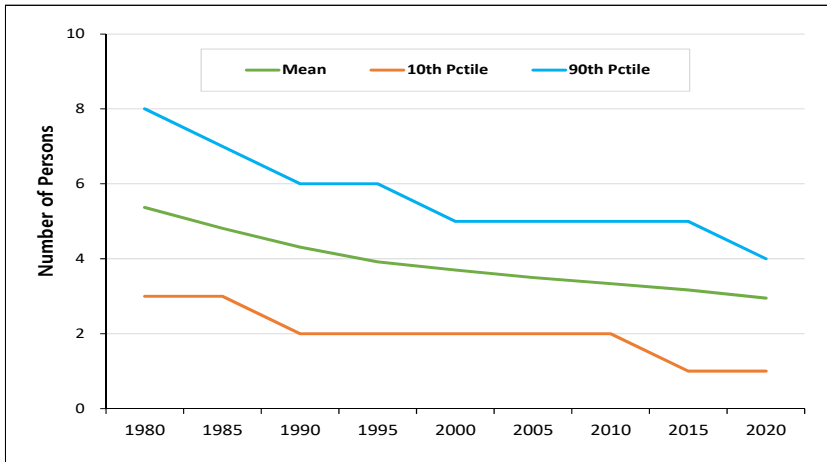
연도	인구	가구													
		전체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			
		전체 (규모)	전체 (%)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5인 이하)	1인 가구	소계	일반 (%)	집단시설 가구	비친족 가구 (6인 이상)	소계	집단 (%)	외국인 가구	외국인 (%)	
1980	38,124	8,002	100.00	7,470	117	383	7,969	99.59	-	-	24	0.30	9	0.12	
1985	40,806	9,609	100.00	8,751	160	661	9,571	99.60	-	-	27	0.29	11	0.11	
1990	42,869	11,377	100.00	10,167	166	1,021	11,355	99.81	-	-	16	0.14	7	0.06	
1995	45,093	12,991	100.00	11,133	183	1,642	12,958	99.75	-	-	16	0.12	17	0.13	
2000	47,008	14,391	100.00	11,928	159	2,224	14,312	99.45	6	9	14	0.10	65	0.45	
2005	48,185	15,988	100.00	12,491	226	3,171	15,887	99.37	8	9	17	0.10	85	0.53	
2010	49,554	17,574	100.00	12,995	202	4,142	17,339	98.66	10	11	21	0.12	214	1.22	
2015	51,015	19,561	100.00	13,693	214	5,203	19,111	97.70	10	6	16	0.08	433	2.21	
2016	51,218	19,838	100.00	13,701	269	5,398	19,368	97.63	9	3	13	0.07	457	2.30	
2017	51,362	20,168	100.00	13,747	309	5,619	19,674	97.55	10	6	16	0.08	478	2.37	
2018	51,585	20,500	100.00	13,790	340	5,849	19,979	97.46	10	7	17	0.08	503	2.45	
2019	51,765	20,891	100.00	13,809	387	6,148	20,343	97.38	10	6	17	0.08	531	2.54	
2020	51,836	21,485	100.00	13,860	423	6,643	20,927	97.40	11	5	16	0.08	542	2.52	
2021	51,770	22,023	100.00	13,810	473	7,166	21,448	97.39	11	7	17	0.08	557	2.53	
2022	51,673	22,383	100.00	13,757	514	7,502	21,774	97.28	11	7	17	0.08	592	2.65	
2023	51,713	22,728	100.00	13,699	545	7,829	22,073	97.12	11	7	18	0.08	637	2.80	

출처: “지표누라: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25a,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sCd=10&idxCd=F0016>.
 저작권 2025. 통계청; “지표누라: e-나라지표”, 통계청, 2025b,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 저작권 2025. 통계청.

제2절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 분석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양상과 관련하여 [그림 4-2]는 평균 가구 규모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2020년의 40년에 걸쳐 인구 증가율에 비해 가구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인구) 기준으로 평균 가구 규모는 1980년 5.37명에서 2020년에 2.95명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가구 규모는 1980~1990년 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4-2] 가구 규모의 변화: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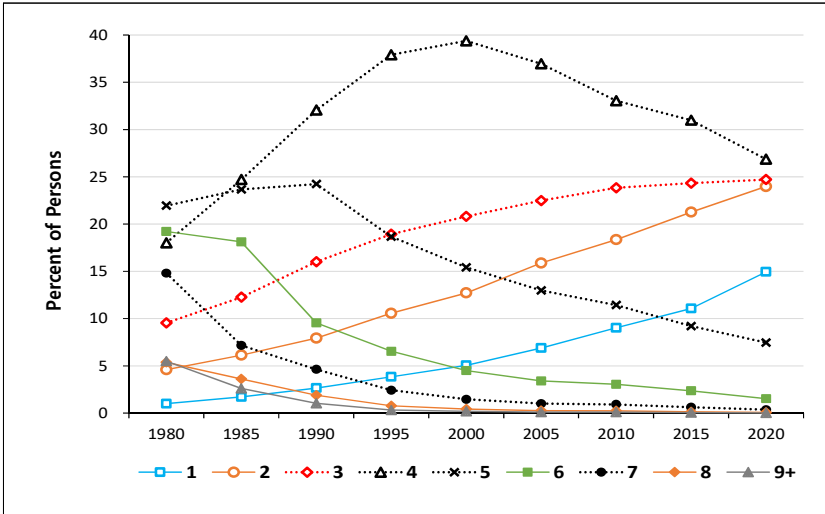
주: 개인 기준으로 산출된 가구 규모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출산율은 1980년대에 이르러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 아래로 떨어지고 기대

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도 선진국 수준까지 상승하여 인구변천을 완료하게 된다(김두섭, 2002, p. 61). 이러한 인구변동과 대조적으로 1980년대의 연평균 가구 증가율은 3%를 넘음으로써, 이 기간의 평균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 가구 규모의 감소와 더불어 전체 가구 규모의 분포 또한 좁아지는 패턴이 관측된다. 가구 규모의 분포에서 제10백분위수(P10)와 제90백분위수(P90) 간 차이는 1980년에 5명이었지만(P10 = 3명, P90 = 8명), 2020년에는 3명까지 감소하였다(P10 = 1명, P90 = 4명).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 규모의 변화는 위에서 살펴본 요약 지표 대신에 [그림 4-3]처럼 가구 규모의 전체 범위(1~9명 이상)에 걸친 가구 규모별 인구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가구원 수가 6명 이상(6~9+)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구성비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예컨대, 가구원이 6명인 대규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에 20%에 근접했지만, 2020년에는 2% 미만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구원 규모가 1~2명인 소규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준다. 가구원이 4~5명 정도로 중간 범위에 속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증가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가구원이 3명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거쳐 최근에는 25%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인다. 5년 단위 센서스 기준으로 4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1985년에 25% 수준에 도달한 후 2000년까지 가구 규모별 인구 분포에서 주도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았지만,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2~4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25% 전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4-3] 가구 규모별 인구 분포의 변화: 1980~2020년



주: 개인 기준으로 산출된 가구 규모별 분포임(인구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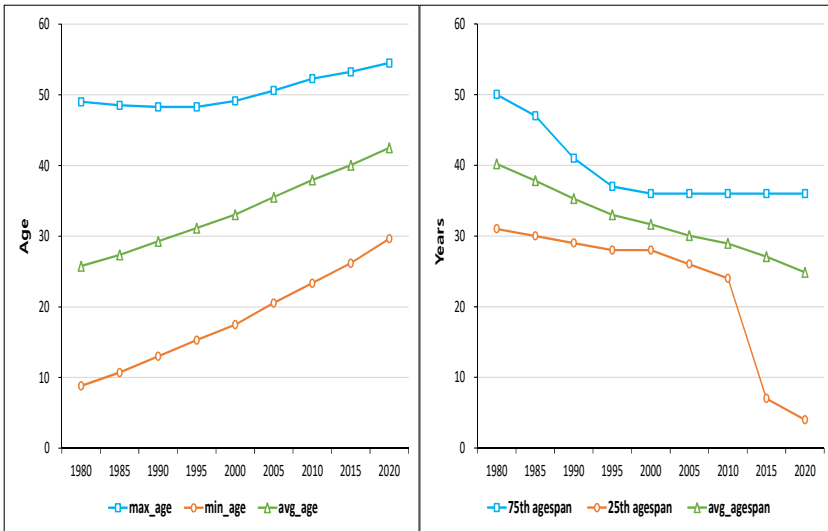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앞에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중반경에 고출산-고사망에서 저출산-저사망 단계로의 인구변천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본격적인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또한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연령 특성을 의미하는 가구의 연령 구조는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가구 구조 변화가 중첩적으로 작용하기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4-4]의 좌측은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가구별 평균 연령(avg_age)과 최소(min_age) 및 최고(max_age) 연령(평균값)의 추이를 보여 준다. 평균 연령은 1980년에 26세였지만, 2020년에는 43세까지 상승하였다. 가구원의 평균 연령과 마찬가지로 최소 연령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 2000년대 이후 추세가 더욱 가팔라진다. 한편, 가구원

의 최고 연령은 2000년까지 49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가 관측된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센서스 2% 표본 자료는 최고 연령을 85세로 재범주화한 자료이기에 평균값 또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³⁵⁾

[그림 4-4] 가구의 연령 및 연령 격차: 1980~2020년



주: 개인 기준으로 산출된 가구의 연령 및 연령 격차이며(인구 가중치 적용), 최대 연령이 85세로 처리된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비록 최고 연령이 85세로 재처리된 상황을 일정 부분 반영하기는 하지만, 최저 연령(평균)의 시간적 추이와 비교할 때 최고 연령(평균)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은 고령층의 거주 패턴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가구 유형별 연령 분포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후술), 상대적으로 확

35) 1인 가구도 분석에 포함하되 평균값, 최솟값, 최댓값은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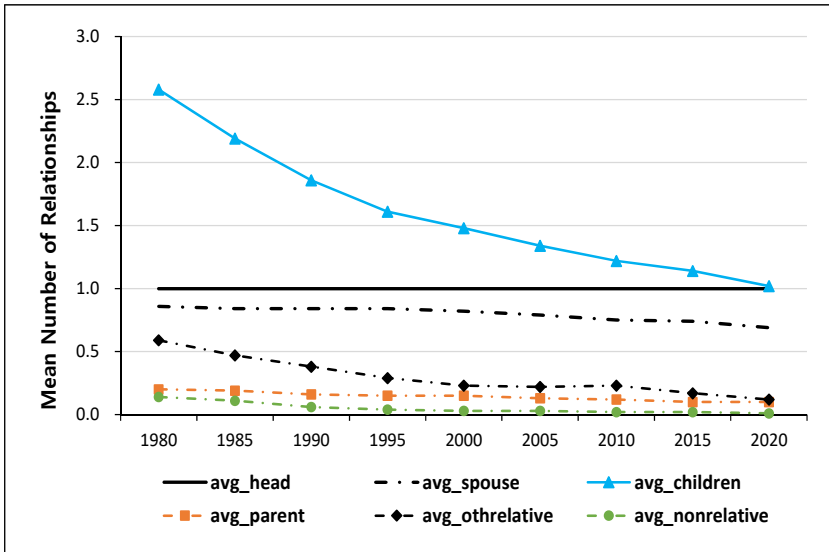
대 가구의 영향력이 컸던 과거와 비교할 때 고령층의 가구 유형은 최근 들어 부부 단독 가구나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구 단위 대신에 개인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고령층이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 대신에 소규모의 단순한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가구의 연령 지표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 고령화 조건(수준)에서 고령층이 과거처럼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면 가구 최고 연령(평균)은 현재보다 더욱 높은 패턴을 보였을 것이다.

한편, 최고 연령에 비해 최저 연령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은 [그림 4-4]의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 내의 연령 격차(age span; 가구 내 최고 연령과 최저 연령의 차이)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림 4-4]의 우측에서 가구 내 연령 격차의 제75백분위수와 제25백분위수 간 차이는 2015년 이후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연령 격차의 제25백분위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1인 가구는 가구 내의 연령 격차가 0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그림 4-4]에서 가구 내 연령 격차의 분포와 관련하여 제25백분위수를 사용한 것은 그보다 낮은 백분위수(예컨대, 제10백분위수, 제20백분위수)를 사용하면 해당 연령 격차 값이 0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구변동의 전반적인 양상 및 추이와 관련하여 관계망의 양적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센서스 자료에서는 특정 준거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구 주를 기준으로 정의된 관계에 기초하여 가구 내에 존재하는 관계의 평균 규모를 살펴본다. 참고로, [그림 4-5]에서 수평선(avg_head)은 가

구주의 수(평균)이다. 이는 가구 내에 존재하는 관계망의 구조와 관련하여 (가구주와 가구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가구주는 한 명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림 4-5] 관계별 평균 규모 추이: 1980~2020년



주: 가구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관계인 규모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그림 4-5]는 앞에서 살펴본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 규모의 축소가 가구주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자녀 수의 감소와 관련됨을 보여 준다. 1980년에는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가 평균적으로 2명 이상이었지만, 2020년에는 1명 정도에 불과하다. 가구에 거주하는 비친척 가구원(avg-non-relative)은 2020년에 이르러 사실상 부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avg_spouse)도 1980년의 0.86명에서 2020년에는 0.69명까지 감소하였다. 가구에 거주하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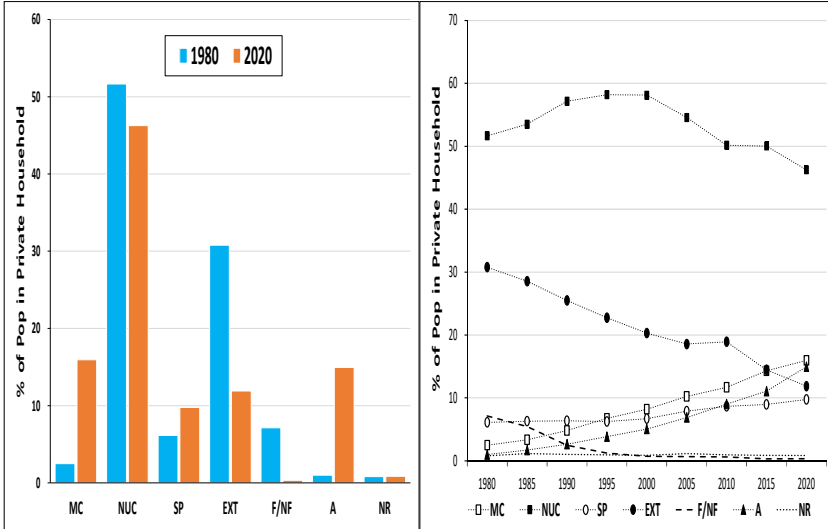
우자 수(평균)는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친족 가구원(avg_othrelative)의 평균 규모는 1980~1990년대에 감소 패턴이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다.

전체 가구변동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본 데 이어 아래에서는 가구 유형별 가구변동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을 부부 단독 가구(MC), 부부 자녀(미혼) 가구(NUC), 한부모 가구(SP), 확대 가구(EXT; 기타 친족 가구), 친족/비친족 가구(F/NF), 1인 가구(A), 비친족 가구(NR)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6]의 좌측은 1980년과 2020년의 가구 유형별 인구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친족 가구 중에는 부부 단독 가구(MC)와 한부모 가구(SP)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와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부부 단독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확대 가구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비친족 가구 중에는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F/NF)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하였지만, 1인 가구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의 우측은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 유형별 인구 구성비 변화의 전체 패턴을 보여 준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대의 상승세를 거쳐 2000년까지 정체된 모습을 보인 후에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인다. 한편, 지난 40년에 걸쳐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대체로 단조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부부 단독 가구(MC)와 1인 가구(A)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일관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F/NF)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부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4-6] 가구 유형별 인구 분포: 1980년 → 2020년

(단위: %)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MC=부부 단독 가구, NUC=부부 자녀 가구, SP=한부모 가구, EXT=확대 가구, F/NF=친족/비친족 가구, A=1인 가구, NR=5인 이하 비친족 가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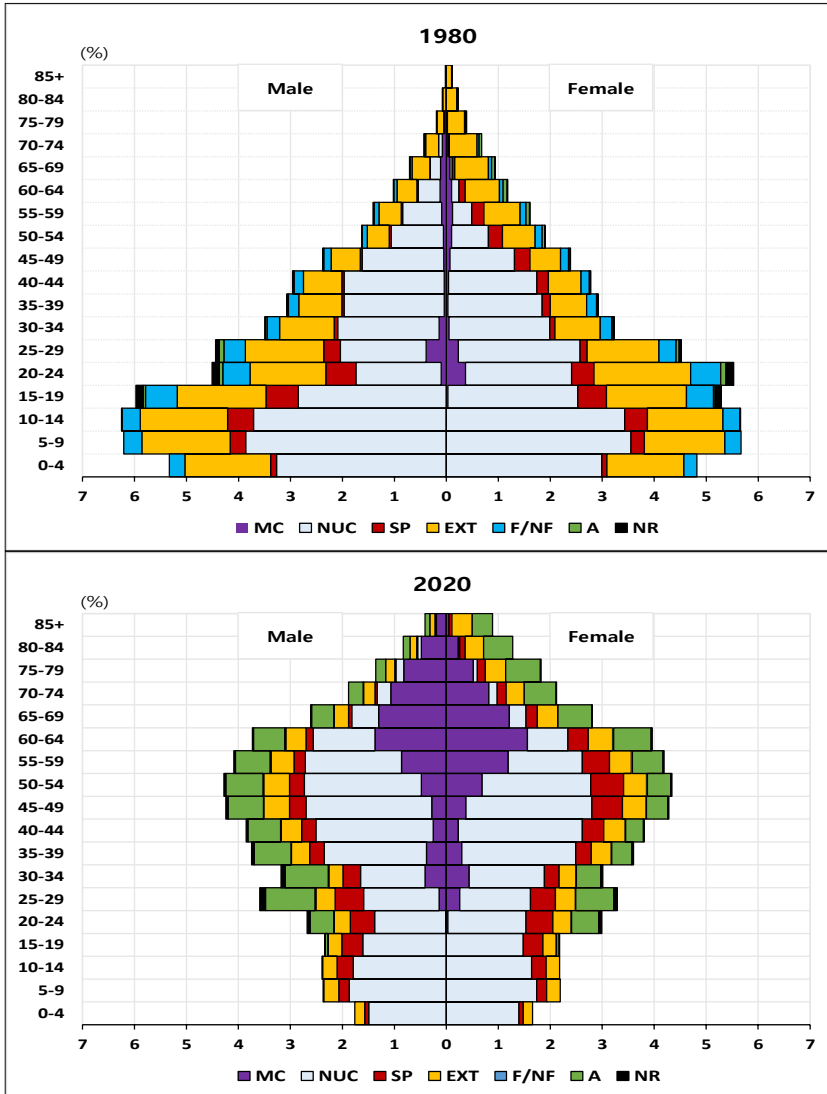
가구 유형별 인구의 구성비 변화는 인구 집단이 선택하는 가구 유형에서의 변화와 함께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인구에서 나타나는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변화는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잘 포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및 연령별 구분과 함께 가구 유형을 추가로 구분하는 접근을 통해 가구변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인구 피라미드에서 사용하는 성별 및 연령별 인구를 가구 유형별로 추가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성별 및 연령별 인구를 가구 유형별로 세분화함으로써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 가구 유형이 성별 및 연령별로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7]의 상단은 1980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하단은 2020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표시한다. 2개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 보면 지난 40년에 걸친 인구변동과 함께 가구변동의 특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다. 1980년에 부부 단독 가구(MC; 보라색)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관측된다. 성별 및 연령별 분포에서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남성은 25~29세, 여성은 20~24세 연령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연령 구간을 지난 후에는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며, 남녀 모두 50~60대 구간에 이르러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80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보기 드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이르러 부부 단독 가구는 전반적으로 관측 빈도가 크게 높아진 동시에 고령층(특히 60대)에서 가장 빈번히 관측되는 가구 유형으로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1980년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고령기에 속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집단의 상당수가 부부 단독 가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가 노년기 이전 단계에서 주요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은 1980년과 2020년에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1980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10대 이하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에 50대와 60대 전반 인구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속한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50대에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속한 인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정 부분 혼인과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자녀 양육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4-7] 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1): 1980년 → 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MC=부부 단독 가구, NUC=부부 자녀 가구, SP=한부모 가구, EXT=확대 가구, F/NF=친족/비친족 가구, A=1인 가구, NR=5인 이하 비친족 가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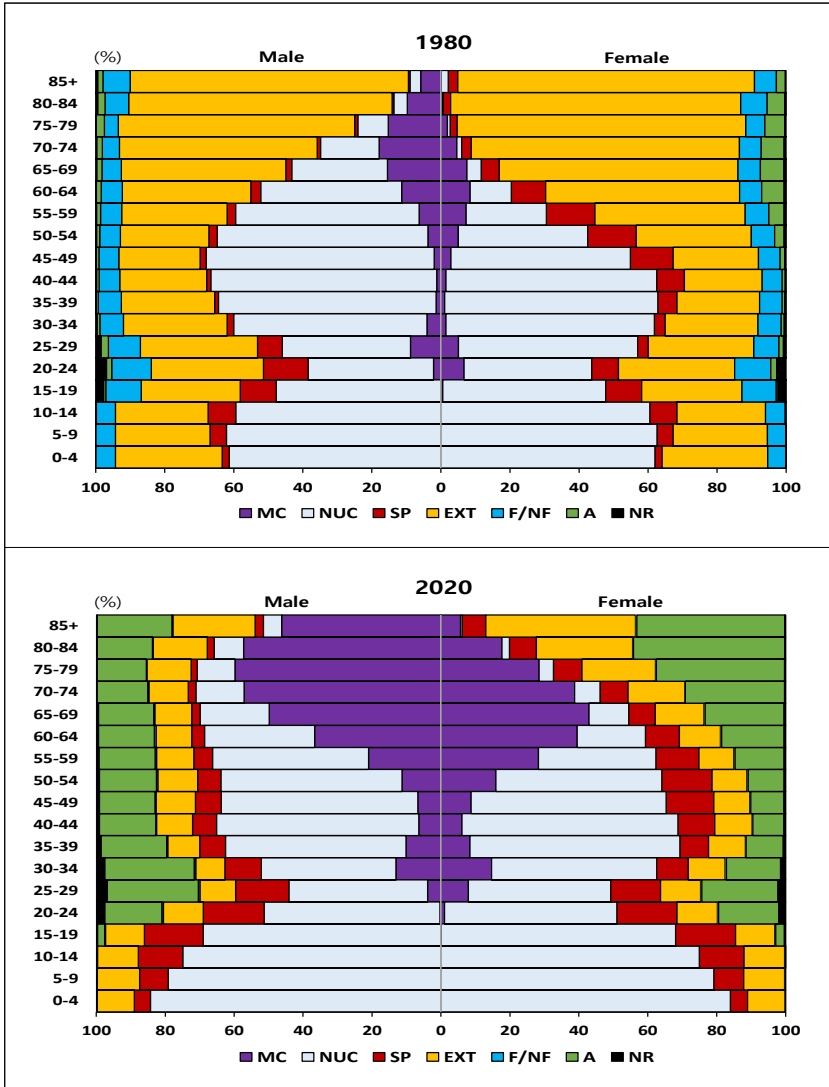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부부 단독 가구에 비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40년의 기간에 걸쳐 한부모 가구(SP)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 또한 증가한 모습이 관측된다. 1980년에는 20대 이하 남녀 및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20년에는 60대 초반 이하 전체 연령 구간으로 확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구에 속한 인구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여성, 특히 중년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

한편, 확대 가구(EXT)는 1980년에는 전체 연령 구간에서 주요 가구 유형으로 나타나지만(주황색), 2020년에는 전체 연령 구간을 아울러 감소한 패턴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F/NF)에 속한 인구의 구성비도 뚜렷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확대 가구와 대조적으로 1인 가구(A)에 속한 인구의 구성비는 20대 이상 전체 연령을 아울러 증가한 패턴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다만, 고령 인구에서는 성별 차별 사망력 및 남편과 아내의 연령 격차 현상과 맞물려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앞의 [그림 4-7]이 성별 및 연령 구조에서의 변화와 가구 유형에서 나타난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반면에, [그림 4-8]은 개념적으로 성별 및 연령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를 고려한(통제한) 상태에서 1980년과 2020년의 가구 유형 분포에서 나타난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4-7]에서 성별 및 연령별 가구 유형 구성비의 전체(남성+여성) 합계가 100%인 반면에, [그림 4-8]에서는 성별 및 연령(5세)으로 구분된 막대 각각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의 구성비 합계가 100%에 해당한다.

[그림 4-8] 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2): 1980년 → 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MC=부부 단독 가구, NUC=부부 자녀 가구, SP=한부모 가구, EXT=확대 가구, F/NF=친족/
비친족 가구, A=1인 가구, NR=5인 이하 비친족 가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분포에서 나타난 변화를 고려한(제거한) 가구 유형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에 이르러 10대 이하 인구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더욱 현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1980년과 비교할 때 10대 이하 연령대에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축소된 것과 관련이 있다.

1980년과 2020년 모두 20대 연령 구간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 연령 구간을 모두 아울러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감소 패턴이 확연히 관측된다. 2020년에 이르러 남녀 모두 20대 이상 연령대에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한 모습도 관측된다. 남성은 25~34세 연령 구간에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고령층에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고령대로 진입할수록 1인 가구와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높아지지만, 남성은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지난 40년에 걸쳐 가구 유형에서 나타난 이러한 패턴은 전반적인 고령기 사망률 패턴의 변화와 성별 차별 사망력, 그리고 혼인 연령에서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개된 거주 유형에서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 사망률의 감소는 고령층이 대규모로 등장하는 인구학적 기초가 된다. 이와 동시에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여성의 기대여명과 아내보다 남편의 연령이 높은 부부의 연령 구조는 고령기에 남성을 중심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주요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는 인구학적 기초가 된다. 반면에 여성 고령층은 남편이 생존하는 동안에

는 주로 부부 단독 가구를 형성하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1인 가구의 형태를 취하거나 성인 자녀 등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가구 유형(확대 가구)이 대안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구변동의 양상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출산력도 가구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다. 50대 이후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출산/양육 기간의 조기 종결과 자녀의 독립이 자리 잡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대체출산율 아래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출산력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부부 단독 가구의 형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의 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는 전체 생애 기간(life span)에 걸쳐 나타나는 가구 유형의 변화를 좀 더 명시적으로 살펴본다. 제1장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청년기나 노년기 등 특정의 생애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전체 생애 기간에 걸쳐 나타난 가구 유형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가구 유형의 변화가 지난 40년에 걸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4-9]는 1980년과 2020년 사이에 가구 유형이 성별 및 연령별로 변화한 양상을 보여 준다. 아동-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가 주도적인 거주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는 1980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지난 40년의 기간에 걸쳐 출생 후 아동기-청소년기까지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20대 전후 초기 청년기에는 1980년과 2020년 모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에 거주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가구 유형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1980년에는 확대 가구(EXT)와 함께 한부모 가구(SP) 및 친족-비친족 가구(F/NF)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20세(여성) 및 25세(남성) 전후로 부부 단독 가구(MC)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이에 비해 2020년에는 부부 자녀 가구(NUC)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상황과 맞물려 한부모 가구(SP)와 1인 가구(A)의 비중이 상승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1980년에 비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30세 전후로 부부 단독 가구(MC)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아동기-청소년기와 유사하게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반면에 다른 가구 유형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비록 20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980년과 비교해 2020년에는 남성 집단을 중심으로 1인 가구(A)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부부 단독 가구(MC)에서도 지난 40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1980년에는 40세 전후로 부부 단독 가구(MC)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매우 낮게 나타남으로써, 이 시기의 부부 단독 가구가 생애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립된 가구 유형이 아닌 혼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속되는 과도기적 생애 단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2020년에 이르러 40세 전후에도 부부 단독 가구(MC)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성인기를 특징 지은 혼인과 출산 간의 견고한 연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구 유형에서 어떠한 후속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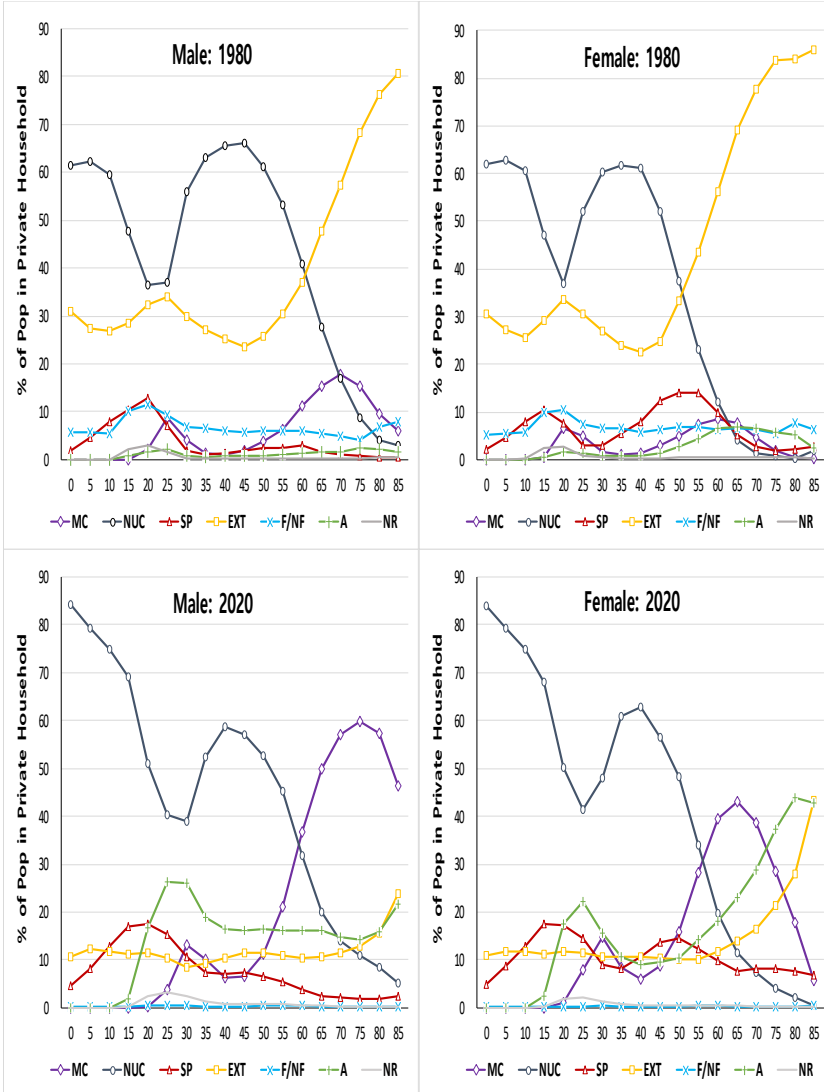
36) 물론 혼인 후 출산하지 않은 부부가 반드시 부부 단독 가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고령기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1980년은 고령기에 남녀 모두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비록 확대 가구(EXT)가 지배적인 거주 형태이지만, 남성은 70세를 전후로 부부 단독 가구(MC)의 비중이 증가한 후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되며, 여성은 50대 전후로 한부모 가구(SP)의 비중이 증가한 후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반면에 1980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 이르러 남성은 70대 중반, 여성은 60대 중반을 전후로 부부 단독 가구(MC)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후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부 단독 가구(MC)는 남성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여성의 경우 70대 중반 이후 1인 가구(A)와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차이를 보인다. 남성 집단에서도 80대 이후 1인 가구(A)와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1인 가구(A)와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비중은 고령의 여성 집단에서 더욱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특히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에는 혼인 후 출산하지 않은 부부가 확대 가구 등 다른 형태의 가구 유형에 거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넘어섰던 1980년에는 부부가 거주하는 가구 유형과 관계 없이 혼인과 출산 간의 연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에는 혼인 후 출산을 하지 않은 부부가 확대 가구 등 다른 형태의 가구 유형에 거주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에 40세 전후까지 부부 단독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는 혼인 후 출산을 하지 않은 가구일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9] 성별 및 연령별 가구 유형의 분포: 1980년 → 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MC=부부 단독 가구, NUC=부부 자녀 가구, SP=한부모 가구, EXT=확대 가구, F/NF=친족/비친족 가구, A=1인 가구, NR=5인 이하 비친족 가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앞에서는 1980년과 2020년을 대비하여 40년에 걸친 가구 유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동기-청소년기 인구가 거주하는 가구 유형에서도 변화가 관측되지만, 고령기의 가구변동이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1980년에는 고령층이 거주하는 가구 유형에서 확대 가구가 주도적이었지만, 2020년에는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구성비가 크게 줄어든 대신에 부부 단독 가구, 1인 가구, 확대 가구 등 고령층의 가구 유형이 다양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지는 고령층의 가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표인 교육 수준에 기초하여 고령층의 가구 유형 분포를 추가로 살펴본다.

〈표 4-4〉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수준별 가구 유형의 분포를 보여 준다. 교육 수준은 초졸 미만에서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의 7개 범주로 구분한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비가 높아지는 패턴이 관측된다.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 55.34%인 것과 대조적으로 초졸 미만 집단에서는 19.53%로 그 격차는 대략 36%포인트에 이른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도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비가 높아지는 패턴이 관측된다. 65세 이상 초졸 미만 집단 가운데 부부 자녀 가구의 비중은 3.06%에 불과하다. 확대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반대의 패턴을 보여 준다.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11.84%인 반면에 초졸 미만 집단의 대략 1/4이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부모 가구에서도 초졸 미만 집단의 비중은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2배 이상이다. 1인 가구에서도 교육 수준별 격차는 현저한 모습을 보인다. 대학원 졸업자의 14.09%가 1인 가구에 거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초졸 미만 집단의 45.74%가 1인 가구에 거주함으로써 그 격차는 대략 32%포인트에 달한다.

교육 수준별 가구 유형의 분포는 성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집단의 구성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초졸 미만 남성 가운데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48.40%로 다소 낮지만, 나머지 집단에서는 부부 단독 가구의 구성비가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남성과 비교할 때 부부 단독 가구의 구성비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차이는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비에서 초졸 미만 여성이 13.64%, 초졸 여성이 30.99%인 것과 대조적으로 중졸 이상 여성에서는 대체로 40% 이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난 40년에 걸쳐 진행된 부부 단독 가구의 증가 현상은 남성 집단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며, 남성 집단에서 부부 단독 가구의 증가 현상은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교육 수준을 모두 아울러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시사한다.

부부 단독 가구와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남녀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진다. 다만, 고졸 이상 집단으로 한정할 때 그 차이가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성별 차이가 주도적이며 교육 수준별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녀 모두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확대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관측됨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초졸 미만(26.17%) 및 초졸(22.37%) 여성 노인의 1/5 이상이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료상의 한계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초졸 이하(초졸 미만+초졸) 여성 집단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센서스 자료를 통해 이들 집단의 세부적인 세대 유형을 살펴보면 2세대 잔여 범주인 2세대 가구(기타)의 구성비가 26.51%로 가장 높다. 2세대 가구(기타) 집단의 대략 3/4은 혼인 상태가 사별이다(미혼 0.52%, 유배우 22.41%, 사별 74.31%, 이혼 2.76%).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초졸 이하(초졸 미만 + 초졸) 여성의 25.59%는 3세대 가구(부부+미혼 자녀+모)에 거주한다. 다음으로 3세대 가구(기타)가 19.31%, 2세대 가구(부부+한부모)가 13.22%이다. 3세대 잔여 범주인 3세대 가구(기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초졸 이하 여성의 혼인 상태에서도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가 대략 72%에 달한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 4-4>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에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이 동일하게 관측된다.³⁷⁾ 다만, 2020년과 비교할 때 1980년에는 교육 수준이 대부분 초졸 이하(초졸 미만+초졸)이기에 교육 수준별 확대 가구의 비중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가지는 함의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1인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비가 높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초졸 미만 인구의 45.74%가 1인 가구에 거주하는 반면에 대졸 이상(대졸+대학원 졸업)은 14% 정도에 불과하다(남성+여성). 교육 수준별 격차는 특히 여성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다. 초졸 미만 여성 집단에서는 50.11%가 1인 가구에 거주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1인 가구에 거주하는 경향이 강함을 명확히 보여 준다(초졸 미만 남성 노인 24.27%). 다만, 교육 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전반적인 성별 격차도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37) 1980년에도 전체 인구에서는 확대 가구(30.77%)보다 부부 자녀 가구(51.66%)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만,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68.43%).

〈표 4-4〉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교육 수준별 가구 유형 분포(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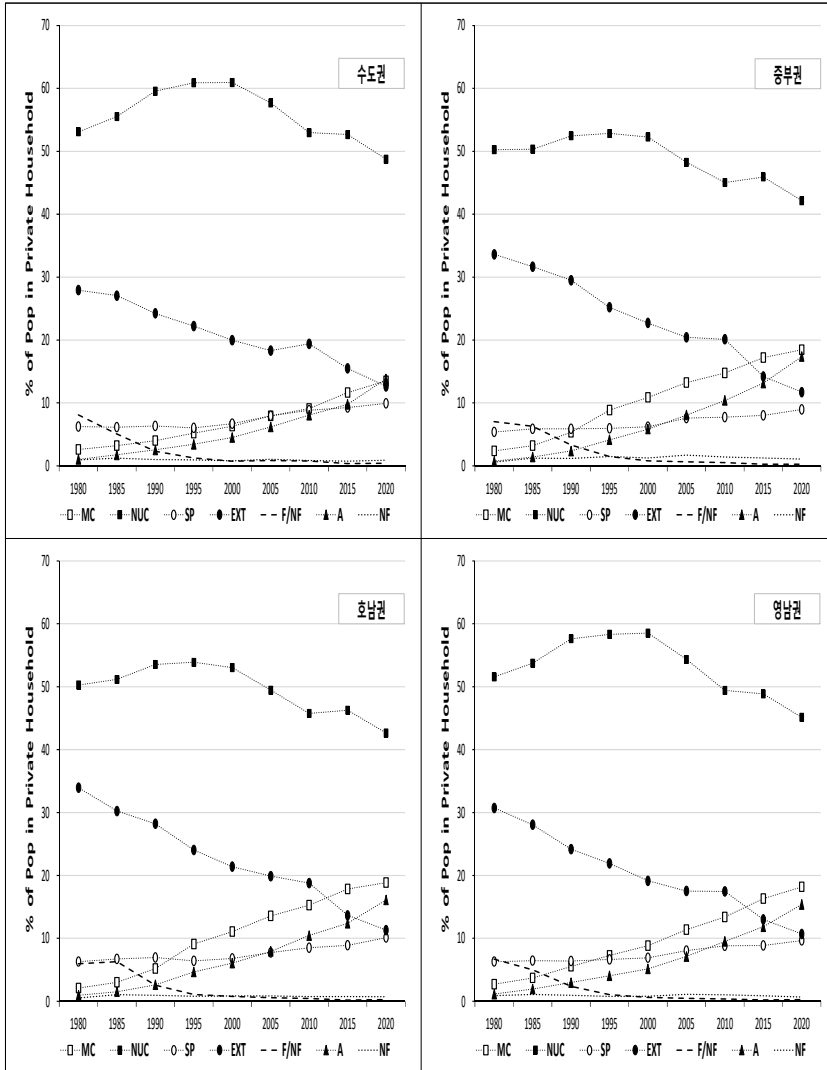
구분		가구 유형						
		부부 단독 가구	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확대 가구	친족/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남성 + 여성	초졸 미만	19.53	3.06	6.85	24.35	0.27	45.74	0.21
	초졸	39.35	7.50	6.03	19.09	0.22	27.53	0.27
	중졸	48.11	10.82	4.79	14.67	0.22	20.98	0.42
	고졸	46.77	13.75	4.95	15.35	0.36	18.35	0.48
	전문대졸	47.66	13.93	4.64	13.39	0.34	19.41	0.63
	대졸	51.55	15.55	3.56	13.92	0.44	14.55	0.43
	대학원	55.34	15.54	2.80	11.84	0.23	14.09	0.16
	전체	41.67	10.11	5.34	17.34	0.28	24.89	0.36
남성	초졸 미만	48.40	8.67	2.65	15.41	0.19	24.27	0.41
	초졸	55.22	11.75	2.28	12.86	0.16	17.42	0.31
	중졸	56.30	13.42	2.03	11.42	0.21	16.18	0.45
	고졸	52.87	16.33	2.29	12.94	0.34	14.75	0.48
	전문대졸	53.19	17.64	2.23	11.00	0.35	14.99	0.60
	대졸	55.02	17.39	2.02	12.87	0.42	11.86	0.43
	대학원	58.24	16.89	1.79	11.76	0.14	11.06	0.12
	전체	54.32	14.50	2.20	12.66	0.27	15.64	0.42
여성	초졸 미만	13.64	1.91	7.70	26.17	0.29	50.11	0.17
	초졸	30.99	5.27	8.01	22.37	0.26	32.85	0.25
	중졸	40.51	8.42	7.35	17.69	0.23	25.43	0.38
	고졸	39.27	10.58	8.22	18.31	0.38	22.77	0.47
	전문대졸	40.50	9.14	7.76	16.50	0.32	25.12	0.67
	대졸	43.56	11.34	7.10	16.31	0.50	20.74	0.44
	대학원	42.08	9.36	7.42	12.22	0.63	27.97	0.33
	전체	31.61	6.61	7.83	21.06	0.30	32.26	0.32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가구 유형은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가구 유형의 전개 양상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은 중부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영남권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호남권역으로 분류된다. [그림 4-10]은 1980~2020년에 걸친 권역별 가구 유형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 대체로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 유형의 변화 패턴은 유사하지만, 가구 유형의 상대적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4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의 가구 유형이 다른 권역들과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 지역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NUC)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은 2020년에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49% 수준이다. 한편, 1980년에 모든 권역에서 부부 단독 가구(MC)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2% 수준이었지만, 지난 40년간 비수도권에서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도 1980년에 모든 권역에서 1% 내외였지만, 부부 단독 가구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40년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권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와 달리 감소세를 보였지만 친족과 비친족이 동거하는 가구(F/NF)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에서도 권역별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NF)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모든 권역을 아울러 1%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1980년에 확대 가구(EXT)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수도권에 비해 높았지만, 2020년에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을 아울러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림 4-10] 권역별 가구 유형의 변화 양상: 1980~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MC=부부 단독 가구, NUC=부부 자녀 가구, SP=한부모 가구, EXT=확대 가구, F/NF=친족/
비친족 가구, A=1인 가구, NR=5인 이하 비친족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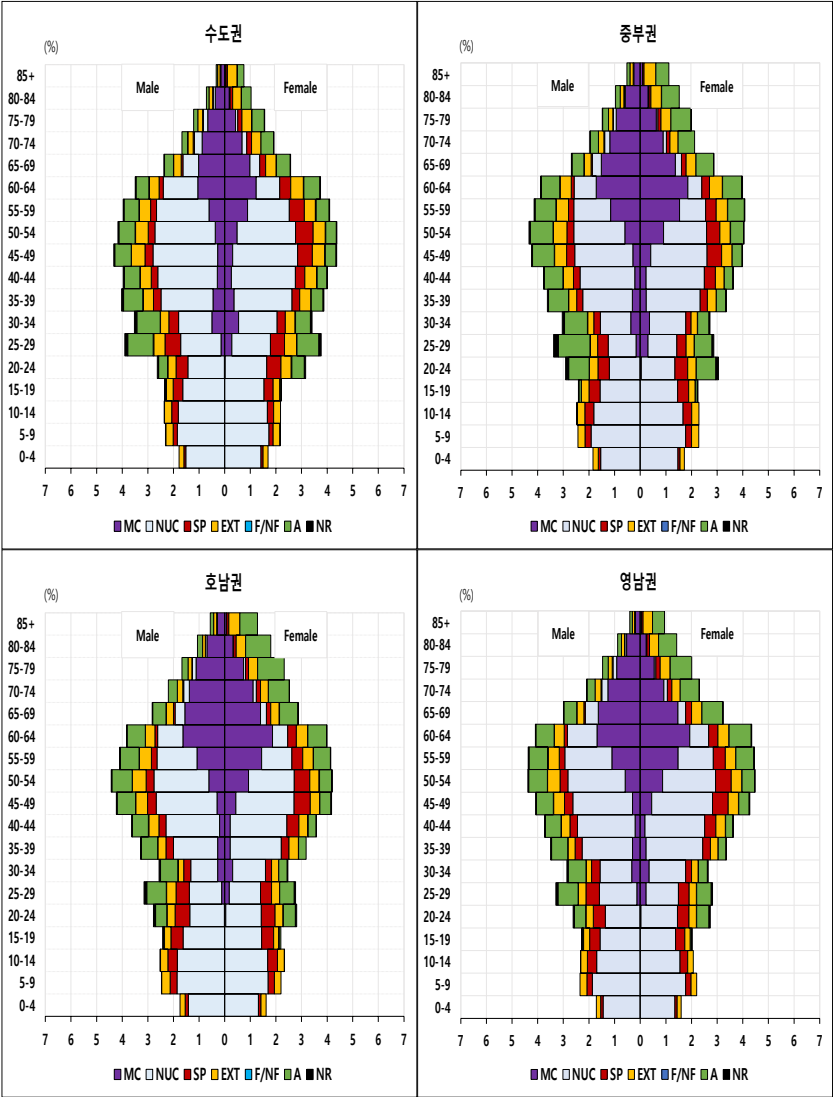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권역별 가구 유형의 분포와 관련하여 [그림 4-11]은 가장 최근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 준다.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상 수도권은 비수도권, 특히 호남과 영남과 비교할 때 20대 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낮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구 유형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비교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교할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패턴은 특히 여성 고령 인구에서 더욱 뚜렷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1980년대에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높았던 확대 가구의 경우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구 유형별 분포에서의 차이는 대체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부 단독 가구와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있다. 연령 분포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더욱 뚜렷한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60대에도 부모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비수도권보다 높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기본적으로 생애과정에서 부부 단독 가구가 부부 자녀 가구로부터 형성되며, 현재까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부 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조기에 소멸하는 비수도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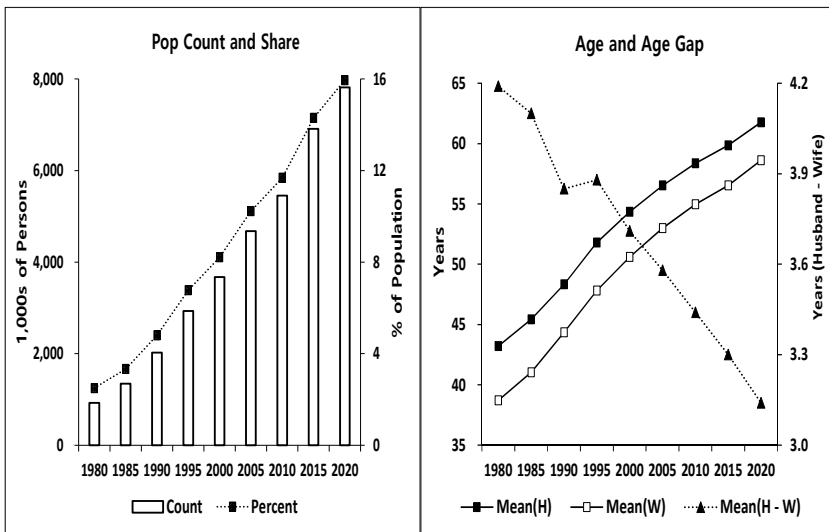
[그림 4-11] 권역별-가구 유형별 인구 피라미드: 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MC=부부 단독 가구, NUC=부부 자녀 가구, SP=한부모 가구, EXT=확대 가구, F/NF=친족/비친족 가구, A=1인 가구, NR=5인 이하 비친족 가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전반적인 가구변동 논의에 이어 아래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지난 40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부부 단독 가구이다. 친족 가구 가운데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절대적 규모와 전체 인구(일반 가구) 대비 상대적 규모 측면에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가구 유형이다. 1980년에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2.5%에 불과했던 부부 단독 가구는 2020년에 15.95%까지 증가하였다. 2020년 현재 부부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는 782만 명 수준에 이른다. 부부 단독 가구에 속하는 남편과 아내의 평균 연령은 1980년의 남편 43.20세, 아내 38.71세에서 2020년에는 남편 61.76세, 아내 58.61세로 증가하였다. 그림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 연령의 표준편차는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4-12] 부부 단독 가구의 현황과 인구학적 특성: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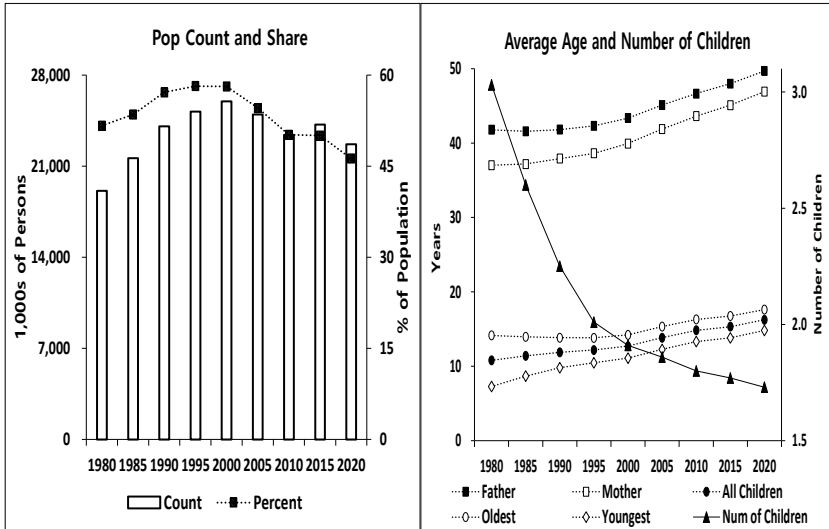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0년 기준으로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 분포에서는

남녀 모두 60대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남성 33.21%, 여성 35.01%). 부부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 가운데 55~74세 연령 구간의 구성비가 절반 이상이며(58.79%), 50~79세 연령 구간에 속하는 인구는 74.51%로 대략 3/4이다. 세대 측면에서 볼 때 1955~1963년 기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러한 부부 단독 가구의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평균 연령(기본 축)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부 간 연령 격차(보조 축)는 1980년 4.19년에서 2020년에 3.14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 40년의 기간에 걸쳐 부부 단독 가구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연상인 인구의 구성비는 1980년 7.76%에서 2020년에 11.99%까지 상승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연령 격차가 줄어드는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노년기 사망률 차이가 감소한다면 향후 여성 고령층에서도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남성 초과 사망률 현상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우해봉 외, 2021, p. 60).

둘째, 부부 자녀 가구이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규모와 구성비에서 199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인다. 비록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지만,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비가 여전히 가장 높다.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1980년에 51.66%였고 1995년에 58.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에 46.26%로 1980년 대비 5%p 이상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속하는 인구는 2,268만 명 수준이다.

[그림 4-13] 부부 자녀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기본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규모는 인구학적 요인 가운데 출산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시기(1955~1963년)를 포함하여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3명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고출산율 현상에 기초하여 형성된 대규모 출생코호트는 성인기로의 진입을 완료한 2000년경까지 대체로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인구변천이 완료된 1980년대 초중반부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반대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4-12]와 [그림 4-13]을 비교해 보면 1980년에는 부부 단독 가구와 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평균 연령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

만, 최근으로 올수록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패턴이 관측된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체로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중년 이하 연령층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대체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형성될 개연성이 높은 부부 단독 가구에 속한 부부의 연령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부부 단독 가구도 고령층과 자녀 출산 이전의 젊은 연령층으로 분포가 양분화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자에 속하는 집단이 후자를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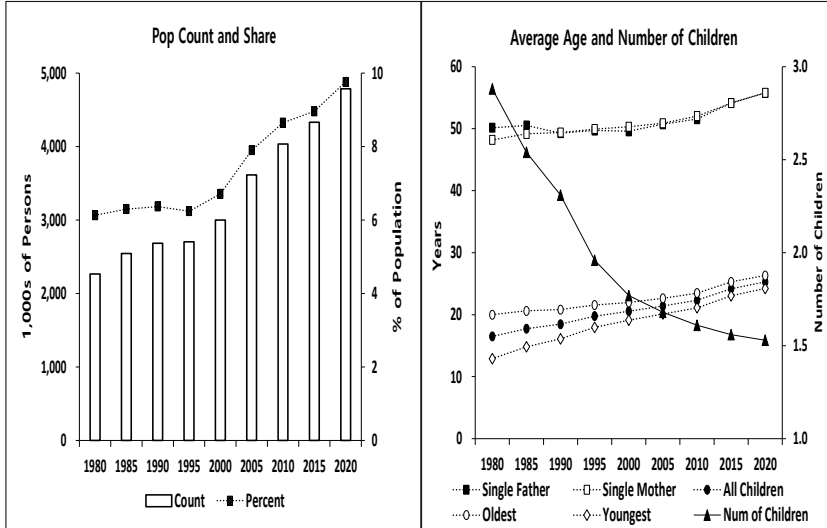
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가구에 동거하는 자녀의 평균 연령이나 최고 및 최소 연령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동거 자녀(미혼)의 평균 연령은 1980년에 대략 11세였지만, 2020년에는 대략 16세로 5세 이상 증가하였다. 동거 자녀의 최고 연령과 최저 연령 간 차이는 1980년에 6세 이상이었지만, 2020년에는 3세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동거 자녀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와 대조적으로 동거 자녀의 수(보조 측)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0년에 3명 수준이었던 부부 자녀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2020년에 이르러 1.7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녀의 수 및 연령 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부부의 가족 생애주기 가운데 상대적으로 좁은 연령 구간으로 출산 기간이 압축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한부모(부/모+자녀) 가구이다. 부부 단독 가구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구도 친족 가구 유형 가운데 지난 40년에 걸쳐 증가세를 보인 가구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그림 4-14]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와 구성 측면에서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00년대 이후의 기간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479만 명 수준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1990년대까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일정 부분 낮은 이혼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인다(우해봉, 2022, p. 51). 물론 이러한 인구학적 배경 외에도 경제적 조건 향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는 친족/비친족 가구(F/NF)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1980년대까지도 한부모 가운데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대신에 비친족 가구원과 동거하는 것과 같은 다른 형태의 거주 유형이 좀 더 빈번히 관측되는 것도 일정 부분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부모 가구와 부부 자녀(미혼)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 한부모 가구의 부(父) 또는 모(母)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연령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부모 가구의 부모(부/모)와 부부 단독 가구에 속하는 부부의 연령을 비교하면 초기에는 한부모 가구의 부모(부/모) 연령이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연령보다 높았지만, 2000년대 이후 추세가 역전되어 최근으로 올수록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4]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 가구의 부(父)와 모(母)의 연령은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4] 한부모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의 연령도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최고 연령과 최저 연령 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와 비교할 때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의 연령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 가구와 부부 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앞의 [그림 4-8]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 자녀 가구가 대체로 가족 생애주기상 중년 이전 단계에 형성되는 경향이 강한 것과 비교해 한부모 가구는 이 시기에 추가하여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형성되는 상황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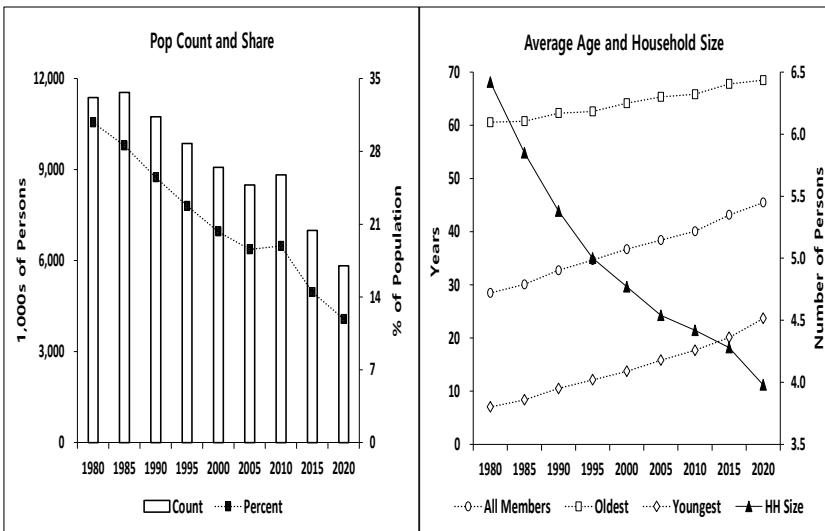
한편, 지난 40년에 걸쳐 한부모 가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

이지만, 한부모 가구가 형성된 인구학적 조건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98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1980년에는 한부모 가구에 속한 부모의 혼인 상태에서 2/3 이상이 사별이었지만, 2020년에는 사별의 비중이 1/3 아래로 떨어졌다. 1980년에는 한부모 가구에 속한 부모의 대부분이 여성이며(87.11%), 사별한 여성이 미성년 자녀나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가 한부모 가구의 전형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1980년에는 한부모 가구에 속한 부모 가운데 사별한 여성의 비율이 61.30%에 달한다. 반면에 2020년에는 한부모 가구에 속한 부모 가운데 남성의 비율(21.01%)이 증가하는 한편 사별한 여성의 비율은 25.70%로 떨어졌다. 2020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의 혼인 상태에서 이혼이 사별을 넘어선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사망률이 고령층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사별한 고령 여성은 성인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1인 가구를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확대 가구(기타 친족 가구)이다. [그림 4-15]에서 볼 수 있듯이 확대 가구는 지난 40년에 걸쳐 규모와 구성비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583만 명으로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11.89%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으로 확대 가구는 부부 단독 가구는 물론이고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확대 가구의 개념이 부부 단독 가구나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친족 가구의 잔여 범주이기는 하지만,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축소되는 가운데 내부적인 구성에서도 변화가 있음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부부와 자녀 및 부모(양친/편친)로 구성된 3세대가 주도적이었던 과거와 비교할 때 확대 가구에서도 점차 2세대 및 1세대 형태의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 이르러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부부, 자녀, 부모(양친/편친)로 구성된 3세대는 대략 30%에 불과하다.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확대 가족의 전형적 유형으로 이해되는 부부, 자녀(미혼), 부모(양친/편친)로 구성된 가구에 속한 인구는 4% 미만이다. 기타 3세대 가구를 포함하더라도 3세대 형태의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대략 6%에 그칠 정도로 확대 가구의 내부적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확대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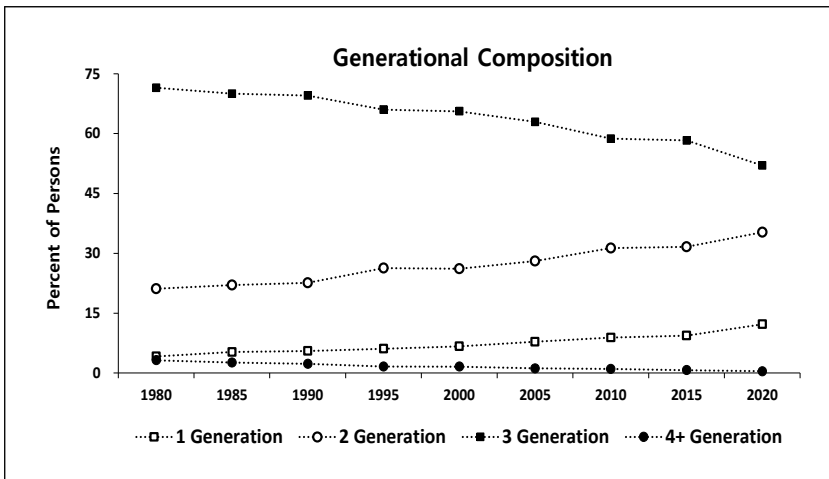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앞에서 살펴본 다른 가구 유형과 마찬가지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기본 축)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1980년에 28세

수준이었던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2020년에 45세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보조 축)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980년에 6명 이상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에 이르러 4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4-16] 확대 가구의 세대별 분포: 1980~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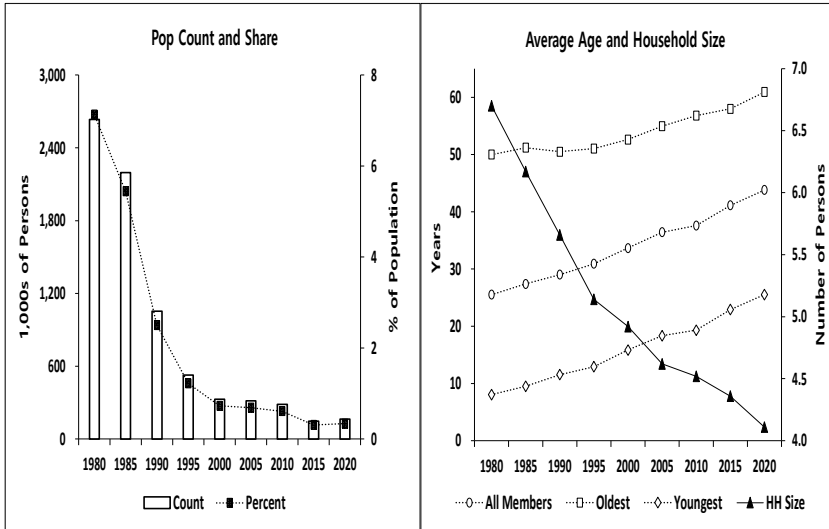
앞에서 확대 가구의 내부적 구성 변화에 관해 간략히 언급했지만, 확대 가구의 가구 규모 감소는 확대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 구성에서의 변화와 동반하여 이루어졌다.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그림 4-16]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에도 확대 가구의 세대 구성에서 3세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50% 이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부부, 자녀, 부모(양친/편친)로 구성된 3세대는 대략 30%이며, 기타 3세대가 20% 수준이다. 확대 가구 가운데 2세대 가구에 속한 인구는 1980년

21%에서 2020년에 3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혼의 형제자매 등 1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도 2020년에는 12%까지 상승하였다.³⁸⁾ 기본적으로 '확대 가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에 걸쳐 확대 가구 또한 소규모의 단순화된 구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다.

다섯째, 친족/비친족 가구이다. 친족/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1980년에 263만 명으로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7.13%이었지만, 2020년에는 1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0.34%).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하여 사실상 현시점에서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독립적인 가구 유형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상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7]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비친족 가구도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한편 가구 규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친족 가구에 비해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그 특징을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친족/비친족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1980년대를 대상으로 친족/비친족 가구 가운데 비친족 가구원을 제외하고 친족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세대 구성을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비가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父) 또는 모(母)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비도 8~9%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관측 빈도가 높았던 친족/비친족 가구의 경우 가족 관계에 있지 않은 복수의 가족이 동거하는 유형(가족+가족)보다는 단일 핵가족(가구)에 1~2명의 비친족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이 빈번했음을 시사한다. 1980년대의 친족/비친족 가구에서 비친족 가구원의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으며, 평균 연령은 남녀 모두 30세 미만이다.

38) 참고로, 센서스에 기초한 UN의 가구 유형 분류 체계를 일부 사용하는 이 연구에서 핵가구(부부 단독 가구, 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모든 친족 가구, 예컨대 형제자매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확대 가구로 분류된다.

[그림 4-17] 친족/비친족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그럼에도 센서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비친족 가구원이 가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는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핵가족 가구에 고용된 사람이나 하숙 형태로 핵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 유형의 분류 체계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과 여기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친족/비친족 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³⁹⁾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센서스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있

39)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전개된 미국의 가구변동을 분석한 Stockmayer(2004, pp. 76-77)의 분석에서 친족/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1970년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친족/비친족 가구가 보여 주는 최근의 이러한

는 동거 커플은 기본적으로 친족/비친족 가구가 아니라 부부 자녀 가구로 조사된다. 또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출생이 혼인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 자체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처럼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역사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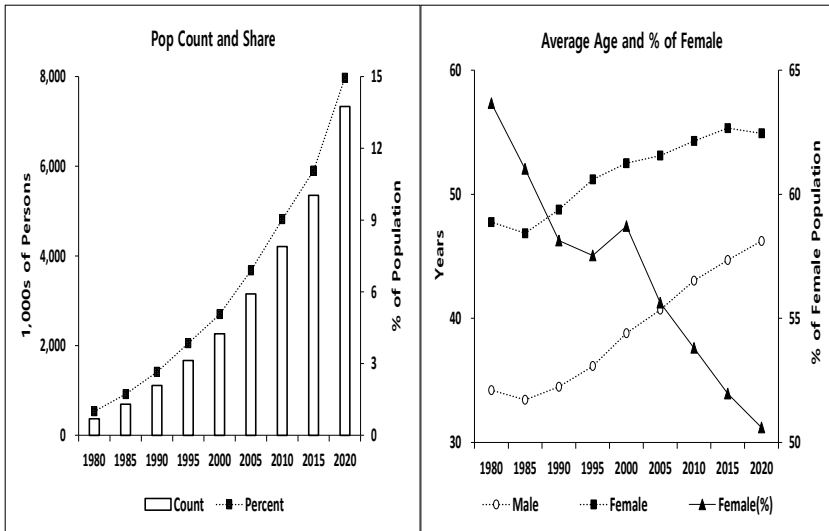
여섯째, 1인 가구이다. 지난 40년의 가구변동에서 1인 가구는 부부 단독 가구와 함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1인 가구는 최근 들어 그 증가 폭이 매우 가파른 모습을 보인다. 1980년에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1% 정도가 1인 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일반 가구에 속한 전체 인구의 14.95%까지 상승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733만 명 수준으로 부부 자녀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그림 4-18]의 우측은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 주는데, 1인 가구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준다. 그러나 평균 연령에서 관측되는 성별 격차가 매우 큼을 살펴볼 수 있다. 비록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 연령 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평균 연령은 여성 54.91세, 남성 46.23세로 그 격차는 8년 이상이다.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별로 1인 가구의 연령 분포가 상당히 다른 점과 관련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에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은 반면에 여성은 고령층을 중심으

패턴은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과 이들 커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일 개연성이 지적된다.

로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 1인 가구의 연령 분포(2020년)에서는 25~34세 연령층이 24.06%이며, 이후 35~64세 연령 구간에서 5세 단위로 대략 8~9%를 차지한다. 여성도 5세 단위 연령 분포에서는 25~29세가 9.64%로 가장 높지만, 60~79세 구간에 걸쳐 연령별로 8~9% 수준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1인 가구 구성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그림 4-18]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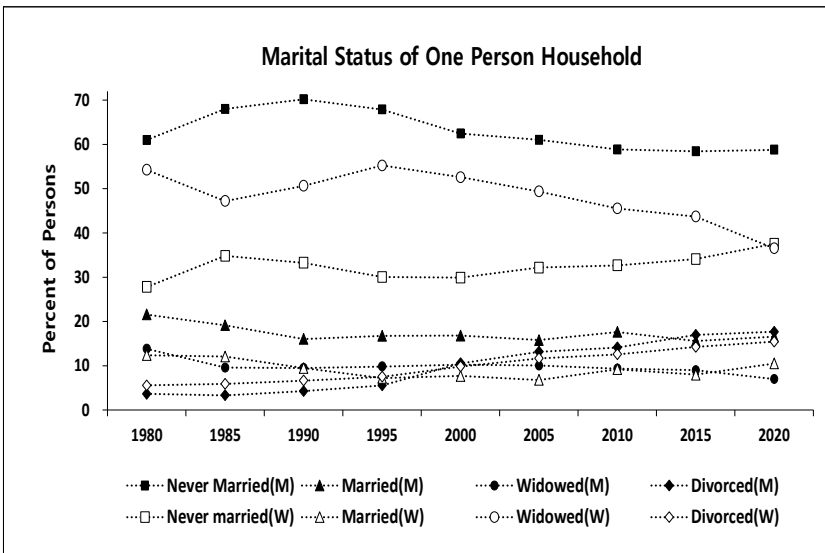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그림 4-19]는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1인 가구의 혼인 상태 추이를 보여 준다. 1인 가구의 구성에서 남성은 미혼 집단, 여성은 사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일련의 변화가 나타남이 관측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1인 가구에서 사별 집단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대신에

미혼 집단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미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2020년에는 여성 1인 가구에서 미혼 집단이 사별 집단을 넘어선다. 남성의 경우 1인 가구에서 미혼 집단이 지속적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이혼의 역할이 커지는 모습도 관측된다.

[그림 4-19] 1인 가구의 혼인 상태 구성: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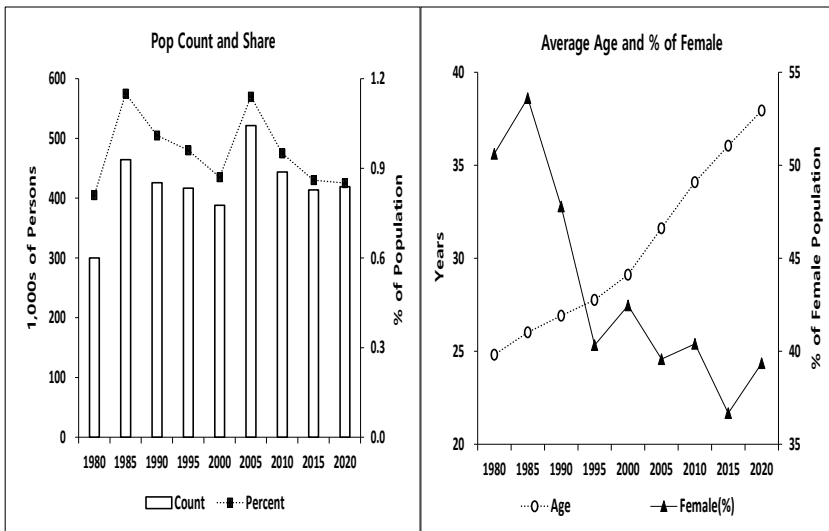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일곱째, 비친족(5인 이하) 가구이다. 가구 유형별 변화의 양상 및 추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비친족 가구는 지난 40년에 걸쳐 규모와 구성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1% 내외가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변동에서 비친족(5인 이하) 가구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

준으로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략 42만 명으로 친족/비친족 가구 다음으로 규모가 작은 가구 유형에 속한다. 서구 사회의 경우 최근 들어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센서스 자료에서 제공하는 ‘부부’ 관계 정보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비친족 가구가 아니라 친족 가구(부부 단독 가구)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⁴⁰⁾

[그림 4-20] 비친족 가구의 현황과 특성: 1980~2020년



주: 가구 구분 혹은 세대 구성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개인 단위 분석임(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40) 참고로, 통계청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 형태에 관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 ‘비혼 동거’ 범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림 4-20]의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도 지난 40년의 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보였지만(기본 축),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할 때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37.94세로 앞에서 살펴본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할 때 평균 연령이 가장 낮다. 한편, 비친족 가구의 성별 분포(보조 축)에서 1980년대에는 여성이 50%를 넘었지만,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20년에는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9%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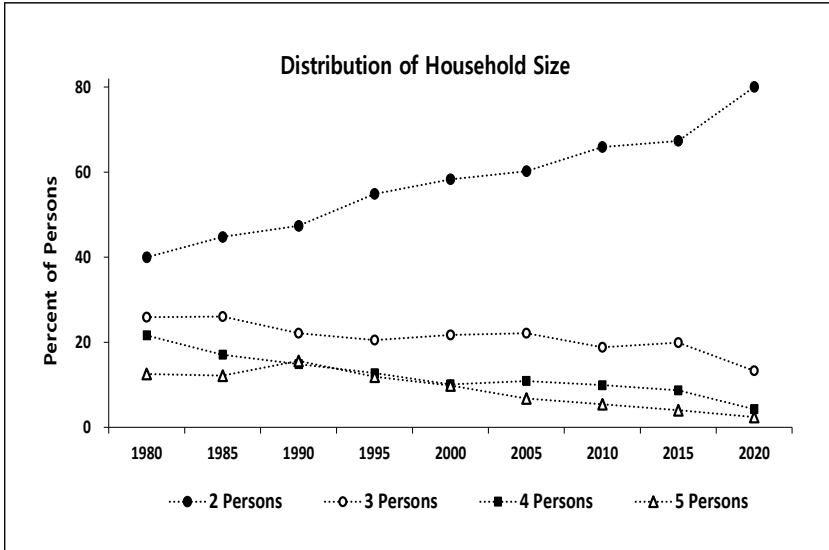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21]은 1980~2020년의 40년에 걸친 비친족 가구의 가구 규모별 분포를 보여 준다. 최근으로 올수록 2인 가구의 구성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2020년에는 전체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80%가 2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3인 이상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대체로 감소세를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확대 가구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친족 가구(5인 이하)에서도 가구 구조의 소규모화(단순화) 추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친족/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원과 마찬가지로 비친족 가구에서도 가구(원)의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생이나 이민자 집단 등 비친족 가구를 형성할 개연성이 있는 다양한 집단을 상정해 볼 때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반드시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논의한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가구원 규모가 2명인 비친족 가구에는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센서스 자료를 통해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⁴¹⁾ 참고로, 2020년 기준으

41) 새로운 가족 형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대규모 사회조사에서는 동거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동거는 목적, 결혼 의향, 거주 형태, 지속 기간 등에서 매우 다양한 현상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사회조사의

로 2인으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58.61%, 미혼 집단의 비율이 74.24%, 성별이 다른 가구원으로 구성된 비율이 48.39%이다.

[그림 4-21] 비친족 가구의 가구 규모별 분포: 1980~2020년



주: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개인 단위의 분석으로 가구 구분(세대 구성)에 관한 정보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종합적으로 1980~2020년의 40년 기간에 걸쳐 전체 및 하위 유형별로 나타난 가구변동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난 40년의 기간에 걸쳐 배우자와 미혼 자녀 이외의 친족(혈족/인척)과 동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확대 가구(기타 친족 가구)에 거주

목적이나 제약 조건, 동거의 정의를 둘러싼 학술적 공감대 부족 등으로 조작적 정의와 측정이 쉽지 않다(Knab & McLanahan, 2007, pp. 19-20).

하는 인구의 감소와 1인 가구 인구의 가파른 증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가 혼인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고령층이 성인 자녀와 동거할 개연성이 감소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뒤에서 논의하는 가구의 파편화-원자화 과정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둘째, 미성년 자녀의 양육 기간에 발생하는 부모의 조기 사망을 대신하여 혼인력 변동이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망률의 감소로 부부가 함께 생존하여 자녀를 양육할 개연성의 증가는 확대 가구나 다른 비친족 가구원과 동거할 유인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지난 40년에 걸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주택시장에서 이루어진 변화 또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 확대 가구를 형성할 유인을 줄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핵심을 이루는 생애과정 단계에서 사망률의 영향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가구변동에서 혼인과 이혼 같은 혼인력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력이나 사망률과 비교할 때 혼인력 변동(혼인의 형성과 해체)을 전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가구변동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셋째, 노년기 사망률 감소로 인한 기대여명의 상승은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가구 생애주기의 새로운 단계로 확립시켰다. 지난 40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도 가구변동의 과정에서 자녀 양육 후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부부 단독 가구)의 등장은 과거의 추세와 명확히 단절된 새로운 가구변동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여명의 상승이 선진국을 가로질러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가 마련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유럽과 북미 지역의 사례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현재와 비교할 때 과거의 부부 단독 가구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기 전의 ‘과도기’ 단계에 불과하거나 혼인 후에도 생애 동안 출산하지 않는 부부에 한정된 상당히 예외적인 가구 유형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이러한 가구 유형이 구조적으로 출현하기 어려웠던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생존 기간과 더불어 성별(부부) 기대수명과 연령 격차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자녀 양육 이후의 단계에 함께 도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과 관계가 있다. 참고로, 1980년에 우리나라의 기대수명(남녀 통합)은 66.1년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83.5년까지 상승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도 1980년에는 8.5년이었지만(남성 61.9년, 여성 70.4년), 2020년에는 6년으로 단축되었다(남성 80.5년, 여성 86.5년) (통계청, 2025c).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로 인해 현재와 비교할 때 생애주기 후반까지 부부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개연성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와 비교할 때 자녀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부모와 동거하는 문화가 더욱 강했다는 점도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종료한 후, 혹은 자녀의 성인기 진입 후에도 부부 단독 가구의 형성을 억제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최근 들어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형성할 연령까지 생존할 개연성이 크게 높아진 동시에, (경제활동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경제적으로 자녀로부터 독립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물론 최근까지 관측된 부부 단독 가구의 증가 현상 또한 영구불변의 추세는 아니며, 혼인력 변화나 자녀와의 동거 패턴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 분석

앞에서 살펴본 가구변동에는 거주 형태(가구 유형)를 선택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요인들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구 고령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가구 유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한 고령의 부부 단독 가구의 확산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가구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변동을 초래한 이들 요인을 추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비록 가구변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이 절에서는 ‘가구 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가구 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연구가 사용하는 센서스 표본 자료를 통해 가구변동을 초래한 하위 요인을 분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구변동 특성이 가구 수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에서는 가구변동의 원인을 인구 분포(규모-구성)의 변화와 가구주율(가구 선택 성향)의 변화로 구분하여 지난 40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구변동에서 인구학적 요인(인구 분포)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과 비교할 때 인구학적 요인의 효과는 경험적 관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계량 분석의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과 비교할 때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분석과 전망은 좀 더 탄탄한 방법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변동의 특성상 단기적인 변동의 폭도 제한적이다.

분석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관측되는 가구의 분포는 ① 혼인/이혼, 출산, 이동, 사망 등을 통한 인구학적 기본 단위(개인 혹은 가족)의 형성 및 소멸 과정과, ② 이에 기초하여 (후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생활 공간의 공유

나 독립을 선택하는 가구의 형성 및 소멸 과정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anti, 1988, p. 51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구변동의 원인을 인구학적 분포(demographic distribution)의 변화와 특정 인구학적 분포를 전제로 가구를 선택하는 성향(residential/ household propensity)의 변화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의 기초가 된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인구 분포는 성별과 연령 및 혼인 상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인구 분포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는 물론이고 성, 연령, 혼인 상태 등 인구학적 속성의 구성을 모두 아우른다.

근본적으로 인구동태율이 인구학적 분포를 결정하기에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인구학적 구성에서의 변화 또한 혼인율, 이혼율, 출산율, 사망률 같은 하위 인구동태율(vital rates)로 분해될 수 있지만(Stockmayer, 2004, pp. 96-98),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세부적인 인구동태율 시계열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관계로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인구학적 구성 변화를 하위 요소(출산력, 사망력, 혼인력, 모멘텀)로 분해하여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⁴²⁾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조건을 하위의 인구변동 요인별로 분해하는 대신에 가구변동을 초래한 ‘전반적인’ 인구학적 맥락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가구변동을 초래한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인구학적 분포 변화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 연구에서 인구 분포 이외의 효과(예컨대, 가구 선택 성향)는 ‘가구주율’(headship rate) 지표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한다(우해봉, 2025, p. 439). 논리 구조에서 볼 때 ‘가구주율’이 특정의 인구학적 조건을 전제로 가구를 형

42) 참고로, 가구변동을 하위 인구동태율로 분해한 Stockmayer(2004)의 연구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SOCSIM)을 활용하였다.

성하는 성향을 의미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이 연구에서 가구주율을 통해 측정되는 가구 선택 성향은 사실상 인구 분포의 효과를 제외한 잔여적 범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가구주율 요소에는 특정 유형의 가구에 대한 주관적 선호는 물론이고 소득 등의 재정적 제약, 선호의 실현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 주택시장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된다(우해봉, 2025, p. 445).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구주율($h(s, m, a)$)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h(s, m, a) = \frac{H(s, m, a)}{P(s, m, a)}$$

여기에서 s 는 성별, m 은 혼인 상태, a 는 연령 구간을 각각 표시한다. 이에 따라 $P(s, m, a)$ 는 성별이 s , 혼인 상태가 m , 연령이 a 인 집단의 인구 규모이며, $H(s, m, a)$ 는 성별이 s , 혼인 상태가 m , 연령이 a 인 집단의 가구주 규모를 나타낸다.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언급할 또 다른 사항으로 이 절에서는 센서스 2% 표본 가운데 ‘개인’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변동(가구 수 변화)을 분석한다. 이 절의 초점은 1980년 이후 40년의 기간에 걸친 가구 수 변화의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과 가구주율로 표시되는 가구 선택 성향 요인으로 분해하는 것이다.⁴³⁾ 기본적으로 ‘가구’에 대한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인구학적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가구가 아니라) 성, 연령, 혼인

43) 앞의 절에서는 전체와 함께 하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을 분석하였지만, 전체 분석 기간(1980~2020년)에 걸쳐 가구 유형별로 요인 분해 목적으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절에서는 가구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 수에서 발생한 변화를 분석한다.

상태 등 인구학적 속성을 지닐 수 있는 ‘개인’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구 수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 표본의 ‘개인’ 자료에서 수집되는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모집단 기준으로 볼 때 ‘가구’의 수와 ‘가구주’의 수가 필연적으로 일치하기에 ‘가구주’를 분석하여 ‘가구’에 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만, 통계청의 가중치 산정 방식으로 인해 현재 개인 표본 자료(가구주)에 가중치를 적용한 ‘가구주 수’ 추정치가 가구(일반 가구)의 모수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정보를 통해 ‘가구’에서 관측되는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한 선행 연구(예컨대, Sweet, 1984)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사용한다.⁴⁴⁾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가구(주) 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인(인구 분포)의 변화와 가구 선택 성향(가구주율)의 변화로 분해하는 Sweet(1984)의 방법을 적용하여 2000~2020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가구변동 양상을 분석한 우해봉(2025)의 연구를 1980~2020년 기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선행 연구에 따라 분석 대상 인구가 다르게 정의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우해봉(2025)의 연구를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구의 선택 과정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인구(성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가구변동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의 규모(size)와 구성(composition)의 변화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지난 40년에 걸쳐 이루어진 인구학적 변화를 기술적으로 정리한다. 우선, <표 4-5>는 1980~2020년 기간의 성별 및 혼인 상태별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여 준다. 지난 40년간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44)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해봉(2025)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전체 인구가 대략 2천만 명 증가했지만,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증감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다.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40년간 연령별로는 19~29세 연령대를 제외한 30대 이상이 전체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29세 연령대 인구는 2000년대 이후 상당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는 1980~2000년 기간에 크게 증가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감소 패턴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50대 이상은 1980~2000년 기간에 비해 2000~2020년 기간에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혼인 상태 범주에서 지난 40년간 인구가 증가하였다. 혼인 상태별 인구의 증가 폭에서는 유배우, 미혼, 사별/이혼 집단의 순서를 보인다.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미혼과 사별/이혼 인구는 2000년대 이후의 증가 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지만, 유배우 인구는 1980~2000년 기간의 증가 폭이 훨씬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혼인 상태를 조합한 세부적인 변화를 보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30대 이하 유배우 및 19~29세 사별/이혼 집단의 인구가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혼인 상태별 인구의 증감 규모에서는 변이가 관측된다. 우선, 지난 40년간 40대 이하를 중심으로 미혼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유배우 집단의 경우 30대 이하에서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40대 이상 집단에서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50~64세). 참고로, 1980년에 50~64세 연령대에 속한 코호트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1916~1930년 출생자이다. 반면에 2020년에 50~64세 연령 구간에 속한 코호트는 1956~1970년 출생자이다. 결국 지난 40년에 걸쳐 50~64세 연령 구간의 유배우 인구가 70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사별/이혼 집단에서는 50세 이상, 특히 65세 이

상 고령 인구에서 증가 폭이 크게 관측된다.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 및 혼인 상태별 인구의 절대적 증감 양상을 살펴 보면 미혼 집단의 경우 남성은 30~40대, 여성은 20~30대의 증가 폭이 크다. 이는 대체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혼인 연령의 상승 현상과 혼인 연령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모두 30대 이하의 유배우 인구가 감소했지만, 40대 이상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사별/이혼 인구는 30대 이상의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지만, 특히 65세 이상 여성 집단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

지난 40년의 기간을 반분(1980~2000년; 2000~2020년)하여 성별 및 혼인 상태별로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두 시기에 걸쳐 인구 증감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혼인 상태는 유배우 집단이다. 특히 30~40대는 1980~2000년 기간에 유배우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20년의 기간에는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하거나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1980~2000년 기간에 30~40대의 주축을 형성하고, 이후 2000~2020년 기간에 50대 이상 중고령층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지난 40년에 걸친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절대 인구의 변화에서는 30대 이하 집단에서는 미혼 인구의 증가와 유배우 인구의 감소,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유배우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주된 패턴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여성 인구를 중심으로 사별/이혼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참고로, 최근 들어 이혼 인구가 증가세에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사별/이혼 인구가운데 대부분은 사별에 해당한다.

〈표 4-5〉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인구 규모의 변화: 1980~2020년

(단위: 천 명)

혼인 상태	연령	전체	남성				여성	
		1980년 ↓ 2020년	1980년 ↓ 2000년	2000년 ↓ 2020년	1980년 ↓ 2020년	1980년 ↓ 2000년	2000년 ↓ 2020년	1980년 ↓ 2020년
미혼	19~29	1,578	323	173	497	810	271	1,082
	30~39	2,538	647	902	1,549	248	741	989
	40~49	1,312	111	751	862	64	386	449
	50~64	689	20	454	474	19	197	215
	65+	106	2	47	49	3	54	57
유배우	19~29	-2,788	-446	-489	-935	-749	-1,104	-1,853
	30~39	-616	1,008	-1,607	-599	1,506	-1,523	-18
	40~49	2,396	1,279	-337	943	1,338	115	1,453
	50~64	6,953	1,337	1,990	3,328	1,256	2,370	3,626
	65+	4,367	662	1,802	2,464	437	1,466	1,903
사별 및 이혼	19~29	-6	5	-7	-2	2	-6	-4
	30~39	39	59	-27	32	55	-47	8
	40~49	359	135	68	203	104	51	155
	50~64	1,182	99	528	627	118	436	554
	65+	1,985	72	357	429	771	785	1,556

주: 혼인 상태 및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결측인 사례(가구)를 제외함(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인구학적 변화는 인구의 절대적 증감뿐만 아니라 인구의 구성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다. 〈표 4-6〉은 1980~2020년 기간에 나타난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인구의 구성비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여 준다.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구성비의 변화도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미혼이나 사별/이혼 같은 무배우 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전체 인구 규모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라도 가구 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40년에 걸쳐 인구의 구성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별도의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연령 기준으로는 19~29세(-21.20%p) 및 30대(-6.11%p)의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에 50~64세(+13.96%p) 및 65세 이상(+12.45%p)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한편, 혼인 상태 기준으로는 미혼(+4.06%p)과 사별/이혼(+4.19%p) 집단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에 유배우(-8.25%p) 집단의 구성비가 감소한 패턴을 보여 준다. <표 4-6>을 통해 1980년 대비 2020년의 구성비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 인구 감소와 맞물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혼인 상태를 아울러 19~29세 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19~29세 남성의 경우 미혼(-4.969%p)과 유배우(-4.787%p) 집단의 구성비 감소 폭이 비슷하지만, 19~29세 여성은 유배우 집단의 구성비 감소(-9.563%p)가 두드러진다. 30대 남성은 1980년 대비 2020년에 미혼 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였지만(+3.502%p), 유배우 인구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한 패턴이 관측된다(-6.735%p). 상대적으로 변화량이 작지만 30대 여성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50~64세 연령대는 남녀를 모두 아울러 미혼 구성비가 증가하는 동시에 유배우 구성비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다만, 절대적 변화량에서는 미혼에 비해 유배우 인구의 구성비 변화량이 훨씬 큰 모습을 보인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1980년 대비 2020년에 미혼과 유배우 집단의 구성비가 증가하였지만, 유배우 집단의 구성비 변화량이 더 크다. 전반적으로 사별/이혼은 지난 40년에 걸친 구성비 변화가 다른 혼인 상태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에서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1980~2020년

성별	혼인 상태	연령	구성비(%)			변화량(%p)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 2000년	2000년 ↓ 2020년	1980년 ↓ 2020년
남성	미혼	19~29	12.643	9.226	7.674	-3.417	-1.552	-4.969
		30~39	0.541	2.353	4.043	+1.813	+1.689	+3.502
		40~49	0.053	0.377	2.123	+0.324	+1.746	+2.070
		50~64	0.018	0.072	1.161	+0.054	+1.089	+1.143
		65+	0.007	0.010	0.123	+0.003	+0.113	+0.116
	유배우	19~29	5.145	1.970	0.359	-3.175	-1.611	-4.787
		30~39	10.808	10.151	4.072	-0.657	-6.078	-6.735
		40~49	9.075	9.861	6.933	+0.787	-2.928	-2.141
		50~64	6.759	8.534	11.548	+1.775	+3.013	+4.789
		65+	2.065	3.391	7.047	+1.326	+3.656	+4.982
	사별 및 이혼	19~29	0.031	0.036	0.011	+0.004	-0.025	-0.020
		30~39	0.131	0.268	0.144	+0.136	-0.124	+0.012
		40~49	0.183	0.538	0.588	+0.354	+0.050	+0.405
		50~64	0.383	0.556	1.721	+0.173	+1.165	+1.338
		65+	0.497	0.547	1.298	+0.050	+0.751	+0.801
여성	미혼	19~29	9.090	8.420	7.279	-0.670	-1.141	-1.811
		30~39	0.216	0.906	2.515	+0.691	+1.609	+2.300
		40~49	0.039	0.223	1.113	+0.184	+0.890	+1.073
		50~64	0.025	0.075	0.537	+0.050	+0.462	+0.512
		65+	0.019	0.020	0.147	+0.001	+0.127	+0.128
	유배우	19~29	10.351	4.417	0.788	-5.934	-3.629	-9.563
		30~39	10.129	11.248	5.138	+1.119	-6.110	-4.991
		40~49	7.889	9.271	7.568	+1.382	-1.703	-0.321
		50~64	5.002	7.139	11.374	+2.137	+4.235	+6.372
		65+	0.993	1.997	5.134	+1.004	+3.137	+4.141
	사별 및 이혼	19~29	0.082	0.061	0.033	-0.021	-0.028	-0.049
		30~39	0.442	0.458	0.245	+0.016	-0.213	-0.197
		40~49	1.147	1.068	0.964	-0.079	-0.104	-0.183
		50~64	3.155	2.419	2.961	-0.737	+0.542	-0.194
		65+	3.081	4.388	5.358	+1.308	+0.970	+2.278

주: 혼인 상태 및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결측인 사례(가구)를 제외함(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표 4-7〉은 1980~2020년에 걸친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가구주율과 그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세 이상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 인구 가운데 남성의 가구주율은 유배우 집단과 사별/이혼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율이 상당히 높은 패턴을 보인다. 미혼 남성도 40대 이상에서는 독립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여성도 미혼과 사별/이혼 집단에서는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5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나 30대 이상 사별/이혼 여성의 가구주율은 70% 이상이다. 한편, 유배우 남성의 가구주율이 대체로 80% 이상이지만, 유배우 여성의 가구주율은 19세 이상 전체 연령 집단을 아울러 2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인다.

지난 40년에 걸쳐 나타난 가구주율의 변화 또한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남녀 모두 미혼 집단, 특히 고령층의 가구주율 증가 폭이 큼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1980년에 65세 이상 미혼 남성이 가구주인 비율이 8.350%에 불과했지만, 4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대략 89%가 가구주이다. 미혼에 비해 증가 폭이 작지만 사별/이혼 집단의 가구주율 증가 패턴도 관측된다. 특히 남녀 모두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의 가구주율 증가 폭이 크게 관측된다. 유배우 집단의 가구주율을 보면 여성의 가구주율이 전체 연령을 아울러 10~15%p 정도 증가한 반면에, 유배우 남성은 65세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 가구주율이 감소한 패턴이 관측된다. 비록 성별로 상반된 패턴이 나타나지만,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른 19세 이상 전체 유배우 집단의 가구주율은 다른 혼인 상태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다(1980년 46.613% → 2020년 51.855%).

〈표 4-7〉 성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가구주율 및 가구주율의 변화: 1980~2020년

성별	혼인 상태	연령	가구주율(%)			변화량(%p)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 2000년	2000년 ↓ 2020년	1980년 ↓ 2020년
남성	미혼	19~29	10.220	16.106	25.955	+5.886	+9.849	+15.735
		30~39	24.468	43.113	49.594	+18.645	+6.481	+25.126
		40~49	28.654	64.428	63.689	+35.774	-0.739	+35.035
		50~64	24.472	76.871	78.288	+52.399	+1.417	+53.816
		65+	8.350	70.750	88.993	+62.400	+18.243	+80.643
	유배우	19~29	76.927	85.879	74.918	+8.952	-10.961	-2.009
		30~39	90.226	94.148	82.523	+3.922	-11.625	-7.703
		40~49	95.746	96.910	84.848	+1.164	-12.062	-10.898
		50~64	96.218	96.535	86.884	+0.317	-9.651	-9.334
		65+	82.009	87.365	86.623	+5.356	-0.742	+4.614
	사별 및 이혼	19~29	48.721	36.317	57.911	-12.404	+21.594	+9.190
		30~39	69.728	66.219	72.358	-3.509	+6.139	+2.630
		40~49	79.482	85.188	80.523	+5.706	-4.665	+1.041
		50~64	77.886	86.595	87.917	+8.709	+1.322	+10.031
		65+	45.275	54.107	84.794	+8.832	+30.687	+39.519
여성	미혼	19~29	7.729	14.156	25.130	+6.427	+10.974	+17.401
		30~39	21.012	41.904	44.997	+20.892	+3.093	+23.985
		40~49	24.812	67.327	60.424	+42.515	-6.903	+35.612
		50~64	11.326	73.030	76.262	+61.704	+3.232	+64.936
		65+	1.338	72.923	83.263	+71.585	+10.340	+81.925
	유배우	19~29	1.856	2.376	17.402	+0.520	+15.026	+15.546
		30~39	3.593	3.746	18.213	+0.153	+14.467	+14.620
		40~49	4.665	5.839	19.972	+1.174	+14.133	+15.307
		50~64	4.862	4.804	18.915	-0.058	+14.111	+14.053
		65+	3.622	3.413	13.782	-0.209	+10.369	+10.160
	사별 및 이혼	19~29	48.841	53.727	66.978	+4.886	+13.251	+18.137
		30~39	75.709	80.759	77.364	+5.050	-3.395	+1.655
		40~49	77.204	90.064	88.948	+12.860	-1.116	+11.744
		50~64	48.206	72.580	86.567	+24.374	+13.987	+38.361
		65+	18.443	43.974	71.824	+25.531	+27.850	+53.381

주: 혼인 상태 및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결측인 사례(가구)를 제외함(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지난 40년에 걸쳐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서 가구주율이 증가했지만, 증가 양상은 시기별로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인다. 미혼 집단에서는 19~29세 연령대를 제외한 남녀 모두에서 1980~2000년 기간의 가구주율 증가 폭이 2000~2020년 기간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다. 지난 40년에 걸쳐 유배우 여성의 가구주율이 상승한 패턴은 대체로 2000년대 이후의 변화에 해당한다. 사별/이혼 집단의 가구주율 변화 패턴은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이지만, 19~29세와 65세 이상 집단의 가구주율 증가 폭은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 수 변화를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rate effect)와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distribution effect)로 분해한 Sweet(1984)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우해봉, 2025, p. 434).

$$\begin{aligned} \Delta(H_{t+40} - H_t) &= Rate\ Effect + Distribution\ Effect \\ &= \sum_s \sum_m \sum_a \{D_{t+40} \times R_{t+40} - D_{t+40} \times R_t\} + \sum_s \sum_m \sum_a \{D_{t+40} \times R_t - D_t \times R_t\} \end{aligned}$$

앞의 가구주율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s 는 성별, m 은 혼인 상태, a 는 연령을 표시한다.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 수 변화($\Delta(H_{t+40} - H_t)$)는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와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t=1980$). 여기에서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는 인구 분포(D)를 고정한 상태에서 두 시점 간 가구주율(R) 변화에 따른 가구 수 변화를 비교한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는 가구주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두 시점 간 인구 분포의 변화에 따른 가구 수를 비교함으로써 산출한다.⁴⁵⁾ 예

45) 참고로, 비율 변화의 효과와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를 이 연구에서 사용한 수식과 다른

컨대, 이 식을 통해 1980년과 2020년 사이의 가구 수 변화를 분석하면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는 2020년의 인구 분포에 2020년의 가구주율과 1980년의 가구주율을 각각 적용할 때 산출되는 가구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는 가구주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구 분포의 변화에 따른 가구 수 변화를 비교하여 산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가구변동의 ‘실제’를 요인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정에 기초한 방법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방법은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와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 수 변화에서 ‘기대되는’ 효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련의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미시 인구 시뮬레이션 모형은 가구변동에서 관측되는 인구변동 요인과 가구 선택 성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좀 더 현실적으로 모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표준화-분해에 기초한 분석은 간명한 동시에 가구변동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쉬운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표 4-8>은 1980~2020년에 걸친 가구 수 변화를 비율(가구주율) 변화와 분포 변화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 준다. 윗부분은 혼인 상태별-연령별 세부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를, 아랫부분은 세부 조합별 분석을 혼인 상태별 혹은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를 보여 준다. 분석 결과는 1980년 대비 2020년에 가구주율 변화로 557만 9천 가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분포에서 나타난 변화로 791만 2천 가구가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우선, 가구주율 변화는 미혼 집단에서는 19~29세 남녀 집단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우 집단에서는 50~64세 여성(11.78%; +65만 7천 가구)에서 가구주율 증가로 인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한 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다만, 50~64세 남성 집단에서는 반대의 패턴(-7.95%; -44만 3천 가구)이 나타남으로써 유배우 집단 전체로 볼 때는 가구주율 변화로 인한 가구의 증가 폭이 제한적이다(3.84%; 21만 4천 가구). 사별/이혼 집단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여성 집단(21.09%; 117만 6천 가구)에서 가구주율 변화로 인한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연령 기준으로 종합하면 가구주율 변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 효과는 65세 이상(32.73%), 50~64세(20.66%), 19~29세(19.14%)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혼인 상태 기준으로는 미혼 집단에서 가구주율 변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량이 가장 크며(47.37%), 사별/이혼 집단에서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가 35.50%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인구 분포 변화의 영향으로 1980~2020년 기간에 총 791만 2천 가구가 증가했는데, 성별로 보면 인구 분포 변화의 영향은 남성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집단에서 가구주율 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된다. 세부적으로, 미혼 집단에서는 30~39세 집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7.42%). 유배우 집단에서는 50~64세(40.47%) 및 65세 이상(25.54%) 남성 집단에서 인구 분포 변화의 영향이 크게 관측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30~39세(미혼) 및 50세 이상(유배우) 남성은 1980년 대비 2020년에 절대 인구가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사별/이혼 집단에서는 50~64세 남성에서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가 6.18%로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종합적으로, 인구 분포 변화의 영향을 정리하면 연령 기준으로는 50~64세(54.02%) 및 65세 이상(32.55%) 집단에서, 혼인 상태 기준으로는 유배우 집단(65.01%)을 중심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⁴⁶⁾

46) 구체적인 수치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00~2020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우해봉(2025)의 분석 결과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이다.

〈표 4-8〉 가구 수 변화의 요인 분해: 1980~2020년

구분			비율 변화(%)			분포 변화(%)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연령 및 혼인 상태	미혼	19~29	8.90	9.34	18.24	0.64	1.06	1.70
		30~39	7.49	4.45	11.93	4.79	2.63	7.42
		40~49	5.48	2.92	8.40	3.12	1.41	4.53
		50~64	4.61	2.57	7.18	1.47	0.31	1.77
		65+	0.73	0.89	1.62	0.05	0.01	0.06
	유배우	19~29	-0.05	0.90	0.85	-9.09	-0.43	-9.52
		30~39	-2.31	5.54	3.23	-6.83	-0.01	-6.83
		40~49	-5.57	8.54	2.97	11.41	0.86	12.26
		50~64	-7.95	11.78	3.84	40.47	2.23	42.69
		65+	2.40	3.85	6.24	25.54	0.87	26.41
	사별 및 이혼	19~29	0.01	0.04	0.05	-0.01	-0.02	-0.04
		30~39	0.03	0.03	0.06	0.28	0.07	0.35
		40~49	0.05	0.83	0.88	2.04	1.52	3.56
		50~64	1.27	8.37	9.65	6.18	3.38	9.55
		65+	3.78	21.09	24.87	2.46	3.63	6.08
연령	19~29	8.86	10.28	19.14	-8.46	0.60	-7.86	
	30~39	5.20	10.01	15.22	-1.76	2.69	0.94	
	40~49	-0.04	12.30	12.25	16.57	3.78	20.35	
	50~64	-2.07	22.73	20.66	48.11	5.91	54.02	
	65+	6.91	25.82	32.73	28.05	4.51	32.55	
혼인 상태	미혼	27.21	20.16	47.37	10.07	5.41	15.48	
	유배우	-13.48	30.61	17.12	61.50	3.51	65.01	
	사별/이혼	5.13	30.37	35.50	10.94	8.57	19.51	
계			18.86	81.14	100.00	82.51	17.49	100.00
규모(천 가구)			1,052	4,527	5,579	6,528	1,384	7,912

주: 혼인 상태 및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결측인 사례(가구)를 제외함(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마지막으로, <표 4-9>는 <표 4-8>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본 비율 변화와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를 모두 아울러 지난 40년 동안 가구 수에서 나타난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남녀 합산). 1980년 대비 2020년에 1,349만 2천 가구가 증가했는데, 인구 분포 변화의 효과(58.65%)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가구변동에서 인구학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보여 주듯이 가구변동에서 인구학적 요인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조합별로 살펴보면 50~64세(25.04%) 및 65세 이상(15.49%) 유배우 집단을 중심으로 인구 분포의 변화, 즉 인구 규모 및 구성비 변화로 인한 가구 수 증가가 크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10.28%)과 19~29세 미혼 집단(7.54%)에서는 가구주율 증가가 가구 수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1980~2020년 기간의 40년에 걸쳐 가구 수 증가에서 인구 분포의 영향과 가구주율 변화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했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보여 주듯이 이들 두 요인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인구 집단이 상이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종합적으로,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에서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인구학적 변화(인구 분포 변화)가 미친 가장 큰 영향은 50대 이상 유배우 인구(특히 50~64세 남성)의 증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가구 유형별 변화 양상의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면, 지난 40년에 걸쳐 나타난 가구변동의 주요 양상인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배경에는 50대 이상 고령 유배우 인구(특히 남성)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172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표 4-9〉 가구변동의 요인별 분해 종합: 1980~2020년

구분			가구 규모(천 가구)			구성비(%)		
			비율 변화	분포 변화	전체	비율 변화	분포 변화	전체
연령 및 혼인 상태	미혼	19~29	1,018	134	1,152	7.54	1.00	8.54
		30~39	666	587	1,253	4.94	4.35	9.29
		40~49	469	359	827	3.48	2.66	6.13
		50~64	400	140	541	2.97	1.04	4.01
		65+	90	5	95	0.67	0.04	0.71
	유배우	19~29	47	-754	-706	0.35	-5.59	-5.23
		30~39	180	-541	-361	1.33	-4.01	-2.67
		40~49	166	970	1,136	1.23	7.19	8.42
		50~64	214	3,378	3,592	1.59	25.04	26.63
		65+	348	2,090	2,438	2.58	15.49	18.07
	사별 및 이혼	19~29	3	-3	0	0.02	-0.02	0.00
		30~39	3	28	31	0.02	0.21	0.23
		40~49	49	282	331	0.36	2.09	2.45
		50~64	538	756	1,294	3.99	5.60	9.59
		65+	1,387	481	1,869	10.28	3.57	13.85
연령		19~29	1,068	-622	446	7.92	-4.61	3.30
		30~39	849	74	923	6.29	0.55	6.84
		40~49	684	1,610	2,294	5.07	11.94	17.00
		50~64	1,153	4,274	5,427	8.54	31.68	40.22
		65+	1,826	2,576	4,402	13.53	19.09	32.62
	혼인 상태	미혼	2,643	1,225	3,868	19.59	9.08	28.67
		유배우	955	5,144	6,099	7.08	38.13	45.21
		사별/이혼	1,981	1,544	3,524	14.68	11.44	26.12
	전체		5,579	7,912	13,492	41.35	58.65	100.00

주: 혼인 상태 및 가구주와의 관계 정보가 결측인 사례(가구)를 제외함(인구 가중치 적용).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80~2020,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가구변동 분석 결과의 종합

제2절 국내외 가구변동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가구변동 분석 결과의 종합

이 연구는 인구변동과 맞물려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분석하고 가구변동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UN의 2022년 가구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료상의 한계와 국가 및 지역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구 규모의 축소 현상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구변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측되는 가구 규모의 축소 현상은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감소 현상과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관측되는 가구 규모의 축소가 기본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관련됨을 시사한다. 한편,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아동-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감소하고 고령층이 있는 가구가 증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확대 가구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을 시사한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가구의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되지만, 가구의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수렴 패턴이 관측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유럽이나 북미 등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확대 가구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유럽이나 북미처럼 인구변동과 가구변동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을 중

심으로 상당히 유사한 가구변동 양상이 관측된다는 점은 가구 규모의 축소와 구조의 단순화처럼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가구변동의 전조를 보여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구변동을 선도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구변동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구의 규모와 유형 및 구성에서 관측되는 국가(지역) 간 이질성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을 아울러 나타나는 출산율과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기대수명의 상승 같은 인구변동이 향후 가구변동이 전개될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할 수 있지만, 가구변동의 세부적인 양상은 개별 국가(지역)가 발전해 온 다양한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통계청의 센서스 2% 표본 자료에 기초하여 1980~2020년에 걸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전체 및 하위 유형별 가구변동의 추이와 양상을 살펴해보았다. 전체 및 가구 유형별 분석 결과는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변동 과정은 전체 인구 가운데 확대 가구나 비친족 가구원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복잡한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부부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자녀 혹은 동거 가구원이 없는 소규모의 단순화된 가구 구조가 주류로 등장하는 가구의 파편화-원자화(household fragmentation/atomization) 과정에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지난 40년에 걸쳐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부부 단독 가구는 물론이고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아졌다. 1980년대에 걸쳐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던,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또한 최근에는 독립적인 가구 유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가구,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또한 여전히 주요 가구 유형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5인 이하

비친족 가구의 경우 지난 40년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1%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변동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비록 가구변동에서 관측되는 가구의 파편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 가구의 원자화 과정이 특정 유형의 가구를 선호하는 성향에서 나타난 변화와도 관련되지만,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부 단독 가구나 1인 가구(특히 여성)의 증가 현상은 일정 부분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다.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은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구처럼 가구의 생애주기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학적 기초가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률의 감소 혹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부부 단독 가구나 1인 가구의 확장과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출산력은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에는 부부와 자녀(미혼)로 구성된 가구의 증가와 연결되는 반면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사망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가구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최근 들어 현저해지는 혼인력에서의 변화, 예컨대 생애 혼인율의 감소, 혼인의 지연, 이혼과 재혼의 증가는 기존의 사망률을 대신하여 가구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자녀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2000년대 이후 한부모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200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이혼 건수와 이혼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 연령, 혼인 상태로 정의된 인구학적 변화(인구의 절대적 규모와 구성 변화)와 가구 선택 성향(가구주율)에서의 변화로 구분하여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가구변동(가구 수 변화)을 분석하였다. 1980~2020년

에 걸친 가구 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인과 가구 선택 성향 요인으로 분해한 분석 결과는 지난 40년에 걸친 가구변동에서 두 요인 모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 주지만,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동시에 두 요인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인구 집단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에서는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특히 유배우 남성)의 고령층 진입이 가구 수 증가를 견인했으며, 독립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성향(가구주율)의 증가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여성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가구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제2절 국내외 가구변동의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인구학적으로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중반 전후로 고출산-고사망 구조에서 저출산-저사망 구조로의 인구변천을 완료하였고(김두섭, 2002, pp. 57-61), 이후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동시에 최근 들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총인구 또한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1980~2020년의 기간에 걸쳐 확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부부 단독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구의 유형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을 보여 준다.

이렇듯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가구변동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구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특히 유배우 남성),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개

연성이 높다. 다만, 혼인의 지연과 생애 비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혼인 해체율이 높아지면 부부 단독 가구의 상승 패턴은 억제될 개연성도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당분간 고정불변의 인구학적 조건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예컨대, Stockmayer, 2004, p. 2)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혼인력 변동이 가구변동의 세부적인 전개 양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 1인 가구의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의 가구변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초고령층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혼인 해체의 증가 및 재혼의 감소에 따라 1인 가구는 고령의 남성 집단에서도 주요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가구변동은 유럽 등 가구변동의 선도국이 보여 준 추세를 따라가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인구학적 변화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훨씬 가파른 모습을 보인다. 초저출산과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으로 향후 한국 사회가 경험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는 선진국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가구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출현시킬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인구변동은 부부 자녀 가구, 부부 단독 가구, 확대 가구, 1인 가구의 전개 양상에 큰 함의를 가진다. 다만, 향후 한국 사회가 경험할 가구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단순히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대신에, 선진국이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제도적 조건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구변동과 밀접히 연관된 인구변동, 예컨대 출산의 연기와 저출산 현상의 지속, 혼인의 지연과 생애 혼인율의 감소, 혼인 해체의 증가 같은 현상은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과 밀접히 연관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의 인구변동

에 따른 가구변동을 제2차 인구변천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에서 제2차 인구변천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Lesthaeghe (1991, 2010, 2020)와 van de Kaa(1987, 2001)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인구학적 이슈로 등장하여 확장되었다. 고전적인 인구변천 이론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저출산-저사망 구조로의 인구변천을 이미 완료한 사회를 대상으로 인구동태 현상과 가구-가족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2차 인구변천은 대체 수준 이하 출산율의 지속, 혼인 외의 다양한 거주(동거) 방식, 혼인과 출산의 분리, 인구변동의 불안정성을 주요 요소로 포함한다(Lesthaeghe, 2010, p. 211). 제2차 인구변천을 구성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혼인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구(가족) 구조의 쇠퇴를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맞물려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이 강조되는 문화변동(가치관)이 진전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인구 체계와 거주 형태에서도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제2차 인구변천이 엄밀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이론(가설) 체계가 아니기에 변화의 시작과 전개 속도 등 가구변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Fokkema & Liefbroer, 2008; Kuijsten, 1996)은 거주 형태에서 관측되는 공통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권역)별 차이가 여전히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유럽 등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성립된 제2차 인구변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출산의 연기와 저출산 현상의 지속, 생애 비혼 및 혼인 해체의 증가 등 한국 사회에서도 제2차 인구변천의 주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혼인과 출산의 연계가 강하게 남아 있는 등 제2차 인구변천 논의와 상반되는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구변동에

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과 단기간에 이루어진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혼인력은 서구 사회에서 형성된 가구변동 논의와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지난 20세기 후반(1980년대) 이후 경험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은 가구의 구조 측면에서 핵 가구(nuclear household) 내부의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부부 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구성비는 2000년경을 전후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그 구성비가 가장 높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체출산율 아래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동시에 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은 부부 자녀 가구의 비중을 유의미하게 축소시키는 강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 한국 사회에서 생애 비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는 부부 자녀 가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축소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부부 자녀 가구의 축소가 어떤 대안적인 가구 형태로 전환될지는 불명확하다. 서구 사회에 비해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노년기 이전에도 ‘부부 단독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핵 가구에 대한 대안으로(생애 혼인율의 감소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지속해서 증가할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보고되는 가장 최근의 현상(Esteve & Reher, 2024)처럼 핵가족이나 직계 가족 같은 가까운 친족(primary kin)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계 친족(혈족) 같은 상대적으로

가깝지 않은 친족이나 비친족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 부분 증가하는 추세 역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새롭게 전개되는 가구변동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센서스가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4장)와 관련하여 친족과 비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나 비친족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현재 수집되는 정보(센서스)의 분류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을 시의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공식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 가구나 이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가구는 가구 유형의 분류 체계상 전자는 부부 단독 가구나 비친족 가구, 후자는 부부 자녀 가구나 친족과 비친족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분류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보 수집 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가구주와의 관계 범주를 세분화하는 등 사회의 변화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가구주(준거인)의 지정으로 인해 가구 내의 관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접근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접근에서는 가구주(준거인)와의 관계가 특정되지 않을수록 가구 내의 관계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타 동거인’과 같은 잔여 범주는 물론이고 한 범주에 복수의 관계 유형을 할당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예컨대, 기혼 자녀, 기혼 자녀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한 항목으로 구성하면 개인별로 가구 내에서 형성하는 모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가구주나 준거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구 관계 행렬 방법(household relationship matrix method)이 제안된 바 있다. 가구주

혹은 준거인에 기초한 방법과 비교할 때 가구 관계 행렬 방법을 사용하면 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구조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구의 모든 구성원 대신에 성인이나 아동 같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용상의 복잡성(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가능성, 사용자 친화적 안내서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다. 이에 따라 가구 구조를 파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가구 관계 행렬 방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계 행렬 방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적으로 가늠해 보는 사전 테스트를 권고한다 (Brandon, 2007, p. 174; UNECE, 2006, pp. 111-112).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와 가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원이 센서스이며, 통계청이 인구통계 자료의 설계, 수집, 분석 전반을 아우르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가구 관계 행렬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분석 못지않게 개인 단위의 분석 또한 중요하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인구학계에서는 가구변동에 관한 분석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는 인구변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구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향후 개인 단위 자료를 통해 가구변동을 이해하는 접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 단위 자료와 가구 단위 자료 간의 정합성 확보도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 관련 통계는 기본적으로 분석 단위를 ‘가구’로 한다. 그러나 가구 단위의 분석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하는 가구변동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을 통해서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개인이 특정 유형의 가구(가족)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궁극적인 대상이 인구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통계적 단위인 가구가 아니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은 정책적 개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은 가구의 파편화/원자화 과정은 기존의 사회적 위험(실업, 질병/장애, 빈곤)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과거처럼 특정 집단이나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가구변동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위험과 상승 작용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정책적으로 거주 유형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지원이나 통합 수준,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접근 가능성, 재정적 안정성이나 긴장 상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배우자 상실과 독거 가구 거주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Martikainen et al., 2019, p. 359).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에 따라 빈곤이나 돌봄 문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1인 가구가 반드시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다른 친족이나 비친족 관계에 있는 개인들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도 있다. 예컨대, Djundeva et al.(2019, p. 1413)은 1인 가구 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이 상당함을 지적한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친족/비친족을 아우르는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낮은 집단(restricted social network)의 취약성(주관적 복지)을 보여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접촉 빈도도

높은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주관적 복지 수준이 높음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Dykstra(2021, p. 207)는 ‘혼자 생활하기’(living alone)가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정도(수준)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거주 유형의 분류 체계상 1인 가구로 분류되지만, 인근에 자녀가 거주하는 등 1인 가구를 둘러싼 공간적 조건이 다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건물에서 생활하지만,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거주 유형을 Isengard & Szydlík(2012, p. 451)는 ‘준동거(near coresidence) 가구’로 명명한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분석 결과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준동거’ 가구의 형성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한다. 다만, 동거와 준동거 거주 유형이 지역적으로(공간적으로) 유사한 패턴(분포)을 보이지만, 동거와 비교할 때 준동거 가구의 형성 과정에서는 경제적 압박이나 필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 준다(Isengard & Szydlík, 2012, p. 4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수준)가 낮은 고령층일수록 1인 가구에 거주할 개연성이 높은 동시에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령의 1인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 1인 가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주요 가구 유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부 단독 가구의 특성(예컨대, 돌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부부 단독 가구)에 따른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뿐만 아니라 혼인력 변동에 따라 1인 가구나 다른 가구 유형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있다. 현 고령층에서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부부 단독 가구가 가장 흔한 유형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에서는 동거 커플이나 동성 관계 등 최근 들어 점점 더 복잡한 가구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Dykstra, 2021, p. 208). 실체적 혹은 조작적 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따로 (또는) 함께 사는’(Living Apart (or) Together: LAT) 가구-가족(Duncan & Phillips, 2010; Levin, 2004)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식적인 혼인 관계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관계에 대한 대안적인 가구-가족의 형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확대 가구가 지배적인 가구 유형이었던 과거와 달리, 고령층이 거주하는 가구 유형이 훨씬 복잡해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령층이 거주하는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은 ‘가구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고령층이 생활하는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도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앞에서 언급한 Isengard & Szydluk(2012, p. 451)의 ‘준동거 가구’처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지만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기능적으로는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 준하는 거주 형태도 여기에 해당한다. 고령층 내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예컨대, 교육 수준)에 따른 분화와 함께 특정 가구 유형에 체류하는 ‘기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조건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건강 상태, 관계망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이 거주하는 가구 유형은 생애과정의 다른 단계와 비교할 때 훨씬 다양하고도 동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와 부부 단독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현상이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감소 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기는 하지만, 확대 가구의 전개 양상 또한 매우 복잡하다. 전반적으로 확대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른 가구 유형과 마찬가지로 확대 가구 또한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핵 가구를 제외한 ‘잔여적 친족 가구’의 의미를 갖기에 확

대 가구가 생성되는 다양한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특히 확대 가구 가운데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교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 있다. 반드시 고령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으며, 성인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의존하는 반대의 관계도 가능하다. 물론 상호적 교환 관계도 가능할 것이다. 교환 관계의 속성에 따라 파급 효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가구 형성의 세부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도 중요할 것이다.

고령층의 거주 환경에 관해 문헌 연구를 진행한 Dykstra(2021)는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동거나 집단시설 입소 같은 고령층의 거주 환경이 ‘일정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대신에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나 정책적 개입의 양상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과거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 부모의 비율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의 재정적 독립이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를 중심으로 성인 자녀와 고령 부모 간 동거 추세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을 언급한다. 또한 재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는 시설에 거주하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공식적(제도적) 돌봄 환경의 차이가 국가별 거주 유형에서 큰 차이를 초래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공식적(제도적) 돌봄 환경이 적절히 구축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돌봄과 유급 고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일 수 있다(Fokkema and Liefbroer, 2008, p. 1411).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문제가 가족의 생애주기 단계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성인 자녀가 근로 활동을 하면서 고령의 부모

를 돌봐야 하는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성인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돌봄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출산을 감소 등 최근까지의 인구변동 양상과 독립적 거주 성향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도 1~2인 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자료상의 제약으로 이 연구에서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1~2인 가구의 거주 환경에 따라 후속적으로 시설 거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정책(aging in place)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1~2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재가 돌봄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 시설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과 시설 돌봄의 적절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동시에, 비공식 돌봄에 의존해야 할 때도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 돌봄과 근로 활동을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기초에 관한 분석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전개된 인구변동이 ‘미래’의 가구 구조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지 못했다. 인구변동이 가구 구조에 미치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좀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구변동에 대한 분석을 넘어 가구변동의 ‘미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미래에 전개될 가구변동을 정확히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개연성 높은 미래의 예측(forecasting) 대신에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구변동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모형 구축과 현실 모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예컨대, Reeves, 1987; Smith, 1987; Wachter, 1987; Watkins et al., 1987)는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인구학적 요인을 하위 요소(출산력, 사망력, 이동력, 모멘텀)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예, SOCSIM, ProFamy) 접근의 유용성을 지적한다. 특히 시뮬레이션 접근은 가구변동을 초래하는 하위 인구학적 요인들의 역할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의 확보 등의 문제로 가구변동(가구 수 변화)을 초래하는 요인의 분해 분석에서 가구 유형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시뮬레이션 접근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횡단면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횡단면적 관측은 특정의 거주 형태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비록 현시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가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의 거주 형태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의 거주 형태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분석은 거주 형태와 삶의 질 간 연관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Dykstra, 2021, p. 212).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가구의 형성, 전환, 소멸에 관한 종단면적 분석이 어느 정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서스 표본 자료에 기초하여 이차적인 분석을 진행한 이 연구에서는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외형적인 혹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정의된 가구 유형을 통해서는 가구변동의 세부적인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형적으로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가구 등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지만, 새로운 거주 형태(예컨대, LAT)의 등장으로 기능적 혹은 관계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가구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김가은, 전광희. (2020).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인구센서스의 일관성 검토. **사회과학연구**, 31(3), 103-125.
- 김두섭. (2002).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1)** (pp. 49-80). 통계청.
- 김민경. (2002).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1)** (pp. 21-48). 통계청.
- 김세진, 김혜수, 이선희, 채주석, 강은나. (2023).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조대희. (1994).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2). 가족과 가구.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1)** (pp. 247-281). 통계청.
- 김창민, 김은경, 신광영. (2020). 가구구조와 소득불평등. **한국인구학**, 43(1), 31-59.
- 박경숙, 김현식, 송유진, 이희길, 심수진, 김미선, 권오재, 석주영. (2015). **인구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통계개발원.
- 송유진. (2024).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통계청 (편), **한국의 사회동향** (pp. 62-73). 통계청.
- 송창길, 오진호, 고경표. (2024).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22).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보 작성 시범 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25).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과 요인 분해: 2000~2020년. **보건사회연구**, 45(1), 429-449.
- 우해봉, 임지영. (2024).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우해봉, 장인수, 정희선. (2021).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김현경, 오옥찬, 함선유, 한겨레. (2021).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2024. 1. 19. 타법개정).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4. 12. 17. 시행).

통계청. (1960-2020).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세트, 코드북, 조사표].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5. 4. 23. 검색, <https://mdis.kostat.go.kr/index.do>

통계청. (2025a).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2025. 6. 23.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16>

통계청. (2025b). 지표누리: e-나라지표.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2025. 8. 1.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

통계청. (2025c).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사망: 사망자수, 조사망률, 기대수명. 2025. 8. 12.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2&conn_path=I2

통계청. (2025d). 통계조사: 통계용어사전. <https://mods.go.kr/statisticalTermView.es?act=view&mid=a1050600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우리나라의 가구변동과 그 전망.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55?mode=full>

Berkner, L. K. (1972). The stem family and the developmental cycle of the peasant household: An eighteenth-century Austrian exampl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7(2), 398-418.

Bongaarts, J. (2001).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in the developing world in the 1990s. *Population Studies*, 55(3), 263-279.

- Brandon, P. D. (2007). Mapping children's living arrangements with a relationship matrix. In S. L. Hofferth, & L. M. Casper (Eds.), *Handbook of Measurement Issues in Family Research* (pp. 159-17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rch, T. K. (1979). Household and family demography: A bibliographic essay. *Population Index*, 45(2), 173-195. <https://doi.org/10.2307/2735726>
- Burch, T. K. (1995). Theories of household formation: Progress and challenges. In E. van Imhoff, A. Kuijsten, P. Hooimeijer, & L.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pp. 85-108). Plenum Press.
- Da Vanzo, J., & Goldscheider, F. K. (1990). Coming home again: Returns to the parental home of young adults. *Population Studies*, 44(2), 241-255.
- De Vos, S., & Palloni, A. (1989). Formal model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kinship and household organization. *Population Index*, 55(2), 174-198. <https://doi.org/10.2307/3644867>
- Djundeva, M., Dykstra, P. A., & Fokkema, T. (2019). Is living alone “aging alone”? Solitary living, network types, and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4(8), 1406-1415.
- Duncan, S., & Phillips, M. (2010). People who live apart together (LATs): How different are they?. *The Sociological Review*, 58(1), 112-134.
- Dykstra, P. (2021). Living arrangements in later life. In N. F. Schneider, & M. Kreyenfeld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Sociology of the Family* (pp. 205-217). Edward Elgar Publishing.
- Engelhardt, G. V., Gruber, J., & Perry, C. D. (2005). Social security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Evidence from the social security no

- t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2), 354-372.
- Ermisch, J. F., & Overton, E. (1985). Minimal household units: A new approach to the analysis of household formation. *Population Studies*, 39(1), 33-54.
- Esteve, A., Galeano, J., Turu, A., García-Román, J., Becca, F., Fang, H., Pohl, M. L. C., & Trias Prat, R. (2023). The CORESIDENCE Database: National and Subnational Data on Household and Living Arrangements Around the World, 1964-2021 [Data set]. Zenodo. <https://doi.org/10.5281/zenodo.8142652>
- Esteve, A., Pohl, M., Becca, F., Fang, H., Galeano, J., García-Román, J., Reher, D., Trias-Prats, R., & Turu, A. (2024). A global perspectiv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1970-2020. *Genus*, 80(1), 2. <https://doi.org/10.1186/s41118-024-00211-6>
- Esteve, A., & Reher, D. S. (2024). Trends in living arrangements around the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0(1), 211-232.
- Fokkema, T., & Liefbroer, A. C. (2008). Trends in living arrangements in Europe: Convergence or divergence?. *Demographic Research*, 19(36), 1351-1418.
- Giannelli, G. C., & Monfardini, C. (2000). Joint decisions on household membership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youths: The role of expected earnings and local markets. IZA Discussion Papers, No. 191.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21034/1/dp191.pdf>
- Goldscheider, F. K., & DaVanzo, J. (1985). Living arrangement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mography*, 22(4), 545-563.
- Haurin, D. R., Hendershott, P. H., & Kim, D. (1993). The impact of real rents and wages on household 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5(2), 284-293.

- Isengard, B., & Szydlik, M. (2012).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 *Research on Aging*, 34(4), 449-474.
- Jacobsen, L. A., Mather, M., & Dupuis, G. (2012). Household chang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lletin*, 67(1), 2-12.
- Jiang, L., & Hardee, K. (2011). How do recent population trends matter to climate chang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0, 287-312. <https://doi.org/10.1007/s11113-010-9189-7>
- Jiang, L., & O'Neill, B. C. (2007). Impacts of demographic trends on U.S. household size and structur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567-59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7.00186.x>
- Keilman, N. (1995). Household concepts and household definitions in Western Europe: Different levels but similar trends in household developments. In E. van Imhoff, A. Kuijsten, P. Hooimeijer, & L.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pp. 111-135). Plenum Press.
- Keilman, N. (2006). Households and families. In G. Caselli, J. Vallin, & G. Wunsch (Eds.), *Demography: Analysis and Synthesis (Volume 3)* (pp. 457-476). Elsevier.
- Knab, J. T., & McLanahan, S. (2007). Measuring cohabitation: Does how, when, and who you ask matter?. In S. L. Hofferth, & L. M. Casper (Eds.), *Handbook of Measurement Issues in Family Research* (pp. 19-3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obrin, F. E. (1976). The fall in household size and the rise of the primary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3(1), 127-138.
- Kramarow, E. A. (1995).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perspectives on household change. *Demography*, 3

2(3), 335-352.

- Kuijsten, A. C. (1995). Recent trends in household and family structures in Europe. In E. van Imhoff, A. Kuijsten, P. Hooimeijer, & L.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pp. 53-84). Plenum Press.
- Kuijsten, A. C. (1996). Changing family patterns in Europe: A case of divergenc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2(2), 115-143.
- Lesthaeghe, R. (1983).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3), 411-435.
- Lesthaeghe, R. (199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PD Working Paper 1991-2. <https://briso.research.vub.be/sites/default/files/2024-02/WP-IPD-1991-2.pdf>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 (2020).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1986-2020: Sub-replacement fertility and rising cohabitation-a global update. *Genus*, 76(10). <https://doi.org/10.1186/s41118-020-00077-4>
- Levin, I. (2004). Living apart together: A new family form. *Current Sociology*, 52(2), 223-240.
- Li, T., Fan, W., & Song, J. (2020). The household structure transition in China. *Demography*, 57(4), 1369-1391.
- Martikainen, P., Murphy, M., Moustgaard, H., & Mikkonen, J. (2019).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in 1987-2035 in Finland: Trends by age, sex and educational attainment. *Ageing & Society*, 39(2), 358-380.
- McGarry, K., & Schoeni, R. F. (2000). Social security, economic growth

- h, and the rise in elderly widows' independence in the twentieth century. *Demography*, 37(2), 221-236.
- Messineo, M. J., & Wojtkiewicz, R. A. (2004). Coresidence of adult children with parents from 1960 to 1990: Is the propensity to live at home really increasing?. *Journal of Family History*, 29(1), 71-83.
- Monkkonen, P. (2015). How economic development shapes household structure and the age of leaving home and household formation: Evidence from 67 countries' 'Big Microdata'. UCLA ZILman Center Working Paper Series. <http://dx.doi.org/10.2139/ssrn.2765680>
- Murphy, M. (1991). Modelling households: A synthesis. *Population Studies*, 45(1), 157-176. <https://doi.org/10.1080/0032472031000145946>
- Murphy, M. (2011). Long-term effect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on family and kinship networks in Brita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Supplement), 55-80.
- Mutchier, J. E., & Burr, J. A. (1991). A longitudinal analysis of household and non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in later life. *Demography*, 28(3), 375-390.
- Ott, N. (2010). The use of panel data in the analysis of household structures. In E. van Imhoff, A. Kuijsten, P. Hooimeijer, & L.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pp. 163-183). Plenum Press.
- Pilon, M. (2006). Household and family demography: Applic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In G. Caselli, J. Vallin, & G. Wunsch (Eds.), *Demography: Analysis and Synthesis (Volume 3)* (pp. 435-455). Elsevier.
- Reeves, J. H. (1987). Projection of number of kin. In J. Bongaarts, T. K. Burch, & K. W. Wachter (Eds.),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 d Their Application* (pp. 228-248). Clarendon.
- Riley, J. C. (2005). Estimates of regional and global life expectancy, 1800-2001.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537-543.
- Ruggles, S. (1994).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family struc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9(1), 103-128.
- Santi, L. L. (1988). The demographic context of recent change in the structure of American households. *Demography*, 25(4), 509-519.
- Smith, J. E. (1987). The computer simulation of kin sets and kin counts. In J. Bongaarts, T. K. Burch, & K. W. Wachter (Eds.),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pp. 249-266). Clarendon.
- Stockmayer, G. E. (2004). The demographic foundations of change in U.S. households in the twentie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ttps://u.demog.berkeley.edu/~gretchen/Stockmayer_Diss.pdf
- Sweet, J. A. (1972). The living arrangements of separated, widowed, and divorced mothers. *Demography*, 9(1), 143-157.
- Sweet, J. A. (1984). Components of chang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1970-1980. *Demography*, 21(2), 129-140.
- Sweet, J. A., & Bumpass, L. L. (1987).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Russell Sage Foundation.
- United Nations (UN). (1989). 1987 Demographic Yearbook.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products/dyb/dybssets/1987%20DYB.pdf>
- United Nations (UN). (1993). Glossary of the 1993 SNA - Definition of Term. <https://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glossresults.asp?gID=243>
- United Nations (UN). (1998a). Recommendations for the 2000 Censuse

- s of Population and Housing in the ECE Region.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250701?v=pdf#files>
- United Nations (UN). (1998b). *Recommendations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vision 1).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UN). (201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UN). (2019). Patterns and trends i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Evidence from a United Nations dataset.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pdf/ageing/household_size_and_composition_technical_report.pdf
- United Nations (UN). (2022a).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Data set].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data/household-size-and-composition>
- United Nations (UN). (2022b). *Handbook on Measuring International Migration through Population Censuse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UN).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Most used) [Data set].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folder=Standard%20Projections&group=Most%20used>. 2025. 9. 29.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2006).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ecommendations for the 2010 Censuses of Population and Housing. United Nations Publication ECE/CES/STAT/NONE/2006/4. https://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CES_2010_Census_Recommendations_English.pdf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3-55.

- van de Kaa, D.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Supplement), 290-331.
- Wachter, K. W. (1987). Microsimulation of household cycles. In J. Bongaarts, T. K. Burch, & K. W. Wachter (Eds.),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pp. 215-227). Clarendon.
- Wall, R. (1995).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household in Europe. In E. van Imhoff, A. Kuijsten, P. Hooimeijer, & L.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pp. 19-52). Plenum Press.
- Watkins, S. C., Menken, J. A., & Bongaarts, J. (1987). Demographic foundations of family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46-358.
- Willekens, F. (2010). Family and Household Demography. In Y. Zeng (Ed.), *Demography: En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pp. 86-112). Eolss Publishers.



Abstract

Demographic Found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Household Change in South Korea

Project Head: Woo, Haebong*

This study explores trends and patterns in household change from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along with the demographic contexts that have driven these changes. First, it draws on the *United Nations Databas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2022* to investigate global trends and patterns in household change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Despite data limitations and cross-country variations, a decline in average household size—largely driven by falling fertility rates—has emerged as a key characteristic of household change worldwide. Declining fertility and rising life expectancy have led to a decrease in households with children or adolescent members and an increase in those with elderly members. However, global population aging has not led to a resurgence of large and complex households such as extended households. Although household composition shows no clear convergence pattern comparable to that observed for household size, single-person and couple-only households have increased—particularly in regions leading household change, such as Europe and North America—while extended and couple-with-children

* Co-Researchers: Choi, Insun

households have declined.

The fact that similar patterns of household change have emerged—especially in advanced regions such as Europe and North America, which have long histories of demographic transition—suggests that these trends may foreshadow future global household changes, including smaller household sizes and simpler household structures. Nevertheless, considerable variation in household size, type, and composition persists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This variation indicates that, while demographic transitions observed in developed countries—such as declining fertility and marriage rates, rising divorce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may shape the overall direction of future household change, the specific forms these changes take will vary depending on the unique developmental context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regions.

Second, using 2% sample data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this study analyzed trends and patterns of household change in South Korea from 1980 to 2020, both overall and by household sub-type. Over the past four decades, household transition has followed a process of fragmentation and atomization: the share of people living in large, complex households—including extended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non-kin members—has declined, while small, simplified households, such as couple-only households or households without co-resident children, have

become dominant. The processes of fragmentation and further atomization in household structure are closely linked to demographic transitions. Declining fertility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have created the demographic foundation for a new stage in the household life cycle, characterized by couples living together after their children have become independent. Meanwhile, recent shifts in marriage patterns have emerged as an additional factor contributing to greater diversity in household structures.

Third, we analyzed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over the past 40 years by decomposing the effects of population distribution and household propensities (i.e., headship rates).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from 1980 to 2020 indicates that both demographic and household propensity factors contributed to household growth, with demographic factors exerting a stronger influence. Specifically, the transition of the large baby-boom generation—particularly married men—into the elderly population was a major driver of household growth. On the other hand, an increasing propensity to form independent households was a major factor driving the growth of households among widowed women aged 65 and older and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Key words: population change, household change, household structure